

연 구 자 료

연구 2004-2-64

- KOICA 국제 재난구호시스템 구축방안
-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이 용 덕

KOICA 

한 국 국 제 협 력 단

KOICA 국제 재난구호시스템 구축방안

목 차

〈요 약〉

I. 긴급 재난구호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1
2. 세계 규모의 추진 필요성 및 배경	1
3. 세계의 긴급 재난원조 추진 일반동향	2
4. 국제 지원시스템 및 수행체제	3

II. 우리나라의 긴급 재난구호 추진동향

1. 실시 개요	3
2. 추진기관 및 집행체제	4
3. 추진현황 및 실적	4
4. 평가	5
5. 향후 추진과제	6

III. 세계 선진 주요국 원조기관의 추진실태

1. 미국	6
가. 추진 개요	
나. 주요 추진실적	
다. 주요 임무 및 수행 역할	
라. 추진 방법 및 조직 운용	
마. 향후 추진방향	
2. 일본	10
가. 추진 개요	
나. 주요 추진실적	
다. 주요 임무 및 수행 역할	
라. 추진 방법 및 조직 운용	

마. 향후 추진방향

3. 우리에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	15
--------------------------	----

IV. 긴급 재난원조의 효율적 추진방안

1. 선진 대응 시스템 정비 및 구축	16
2. 관련 법규 제정 및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18
3. 즉응 집행시스템 상설화	19
4.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구축 및 확보	19
5. 민간부문(NGO)과의 상설 연계네트워크 구축	20
6. 파견대원 구성 및 교육	21
7. 수원국과 업무협조	22
8. 현지 구호활동 전개	23
9.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홍보 전개	23
10. 북한 및 기타 국가에의 재난지원	24

V. 단계적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1. 단계적 추진전략	25
가. 재난의 구분 및 분류	
나. 파견 대상 기준	
다. 단계별 활동내용 구분	
2. 실행계획	27
가. 활동 지침	
나. 활동 목표	
다. 활동 내용	
라. 운용 전략	
마. 운용 시스템	

VI. 결론 -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	30
-----------------------------	----

< 요약 >

1970년대부터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한 국제재난은 1990년 이후 매년 약 500건 정도가 발생하여 20만명 정도의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UN 등에서는 OCHA(Office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을 설치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기타 UNDP, UNHCR, UNICEF, World Food Program, World Bank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별로는 미국을 위시한 OECD가입 선진국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터키지진 그리고 작년 이란 지진시 정부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05년 개최예정인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의 선언서 초안에 의하면, 보다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다음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1) 공동체와 국가에 있어서 인명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의 재난손실의 실제적 감소
- 2)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개발계획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재난위험 통합 고려
- 3) 강력한 제도와 매커니즘 그리고 체계적으로 재해를 제어할 수 있는 공동체 능력의 개발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역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도 이제 동국제재난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국제원조의 주요형태가 변화되는 이 시점에 인명의 살상이란 참극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도적 이념 하에 지원체제 구축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

I. 긴급 재난구호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OECD에서는 긴급재난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우리의 사회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생명, 운송, 환경, 통신 등에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를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라고 하며, 이외에도 인명과 관련하여 손상을 입는 경우, 즉 지진, 화재, 폭발 등이 긴급재난의 범주에 포함된다.

일본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중대사고·사건 및 그 외 긴급사태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난에 관한 범주는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 재난의 범위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세계 규모의 추진 필요성 및 배경

지구상의 국가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즉각 그 나라 국민의 인명에 영향을 미치고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당 국의 치안 불안과 무질서의 발생 등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정정불안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의 자료(국외소방방재자료, 2004)에 의하면 1992년-2001년 기간 중 전 세계 재해발생건수는 약 5,000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사망자수는 약 200만명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지구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지구사회가 서로 도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지구규모의 안정을 도모하는 UN과 OECD에서는 이러한 재난에 적극 대응, 그 산하기구로 하여금 실시간적인 지원과 사후조치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UN산하의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다.

3. 세계의 긴급 재난원조 추진 일반동향

앞서 언급한 OCHA 및 World Food Program, UNICEF, WHO, ICRC 등을 비롯한 세계규모의 기구는 본 구조 지원활동을 인류애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USAID 그리고 일본의 JICA를 비롯한 각 선진원조기구들은 매년 일정액 이상의 금액을 재난구호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JDR(Japan Disaster Relief Team)을 구성, 원조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역시 지원체제를 갖추어 USAID산하에 해외재난원조실(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CIDA가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구호의 경우, 독자적인 재난 대응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운용하고 있는 데 이의 주요 목적은 재난의 측정 및 평가, 개도국의 능력 강화 아울러, 현지자원 활용 및 조달 그리고 구조팀 파견 등을 위한 대응 및 활동사항에 대한 지침이 그 주요내용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1월 이란 지진 피해시 긴급구호금 20만 불 지원을 비롯, 119구조대 24명 그리고 의료팀 19명 등을 파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4. 국제 지원시스템 및 지원체계

국제 재난구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각국의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UN 산하의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World Food Program, UNICEF, 그리고 적십자사(Red Cross), 각국 NGO들, 아울러 Media(Local and International)를 손꼽을 수 있다.

기관별 예산규모(1999년 기준)의 크기는 재정을 지원하는 World Bank, UNDP, WFP, UNICEF, UNHCR, WHO 등의 순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난현장에서의 직원 파견 인원수를 보면 국제적십자사가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UNICEF, UNHCR 등의 순이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UN 산하의 모든 나라가 국제시스템 내에서의 공존을 위한 인도적 의무, 즉 재난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와 아울러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기본 이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세계의 인도적 지원체계의 공고화를 위한 추진 과제는 국제원조와 재건노력 사이의 제도적인 면과 부담예산 그리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는 데, 특히 많은 예산이 필요시 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기금 확보가 앞으로의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II. 우리나라의 긴급 재난구호 추진 동향

1. 실시 개요

우리 정부 차원의 재난구조 실적은 2000년 터키 및 대만의 지진 피해 아울러 2001년의 인도지진 피해지역에의 의료단 파견, 그리고 2001년 아프간 난민 지원 등에의 경비지원을 들

의료팀 19명 파견이 우리의 활동내역이다. 이 당시 KOICA로서는 2004년 1.6일부터 1.17일까지 피해지역인 테헤란 남동쪽 1,000Km 소재의 Bam시의 복구활동에 기여하였다.

KOICA 파견팀의 활동내역을 보면 방역, 전기시설물 보수 그리고 조립식 주택관련 향후 지원계획 검토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현지 정부당국자의 감사 및 호평을 받은 바 있다.

4. 평가

우리 정부의 지원활동은 현장 복구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거주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필요한 활동을 벌임으로써 현지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으며 아울러 이란정부 관계자들로부터도 사의표시를 받은 바, 이는 단순히 재난지역에 구호물품 및 지원품을 지원하는 형태에서 탈피, 재해현장에 구호팀을 파견함으로써 인도적 의미의 지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서 각 개도국가들에서의 재난 발생시 이를 위한 집행기능으로서의 대응시스템을 KOICA내에 상설조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원조집행기관인 KOICA를 포함한 종합재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데, 이는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외교부 및 행정자치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운용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법규 제정 그리고 국민들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자금의 확보 및 상설 구조팀(대원)조직 구성, 또한 구조대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도 필요할 것이다.

5. 향후 추진과제

향후 추진과제로는 우선 선진 대응 시스템 정비 및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 시 되며 아래 사항(추진과제)에 대하여 적극 검토·대응해야 할 것이다.

- 가. 관련 법규 제정 및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나. 재난 집행시스템 상설화
- 다.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구축 및 확보
- 라. 민간부문(NGO)과의 상설 연계네트워크 구축
- 마. 파견대원 구성 및 교육
- 바. 수원국과의 업무협조
- 사. 현지 구호활동 전개
- 아.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홍보 전개
- 자. 북한 및 기타 국가에의 재난지원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의 구분 및 기준 그리고 구조팀 파견 기준 및 각각의 활동내용 및 요령 등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실행계획 등도 심도 있게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Ⅲ. 세계 선진 주요국가의 추진 실태

1. 미국

가. 추진 개요

199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인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원조가

이루어져 왔다. 지난 1990년대 자연재해로 인하여 약 665,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960년대에는 이의 3배에 달하는 인명손상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위생과 대응부족 등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1990년대의 20억불에서 2000년대에는 60억불로 3배 확대되었는데 이 가운데 미국정부의 부담은 다른 선진국보다 3-4배 많은 원조를 실시하였다.

대략 1960년대 이후 발생한 재난은 지진과 화산분출로 인한 경우가 수적으로 압도적인 데, 홍수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우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주로 3대 과제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는 데 이는 Care(보건의료), Catholic Relief Services(종교활동), Save the Children(아동보호)등인데 이러한 활동비용 중 절반 가량은 미국정부로부터 지원된다.

미국정부는 2000년에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16억불을 투여하였다. 이는 12개 주요선진국의 총 지원금 보다 많은 것이다. 더욱이 1998-2000년의 경우에는, 미국은 총 인도적 원조의 1/3을 지원하였으며, 200년도에는 World Food Program의 구조활동을 위한 지원금의 절반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1990년 후반이후 미국의 경우, NGO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지원금액의 1/4는 동 민간활동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으며 미국 USAID의 재난지원실 예산의 60-70%는 NGO지원을 위하여 쓰여진다.

참고로, Micro Soft 등과 같은 민간기업들도 컴퓨터 같은 자사제품의 제공을 통하여 긴급사태에 대비, 조력하고 있다.

나. 주요 추진실적

미국정부는 21세기 들어 최근에 2000년의 인도지진 지원

그리고 2003년의 브라질과 2004년의 아이티의 홍수 피해 지원, 그리고 2004년의 수단 및 2003년의 리비아에의 구조 팀(DART :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파견 및 일상 필수품 지원 등 많은 원조를 실시하여 왔다.

미국은 앞서 언급한 DART를 상시 가동하여 멀리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원조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아이티와 도미니카 등 카리브연안국가에 대하여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주무 담당부서인 Bureau for Humanitarian Response 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는 지원시 HIDN(Health, Infectious Diseases and Nutrition) Office 등과 같은 부서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 주요 임무 및 수행 역할

지원형태는 주로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인 타국가와 유사한 일반적인 지원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원의 목적은 인도적 원조로서, 미국의 가치인 봉사, 안전 및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전 세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장하는 부서인 OFDA(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는 자체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적의 조치한다.

특히, 재난에 대한 대응과 평가를 위하여 FOG(Field Operations Guide)를 마련하여 그 지침에 따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침 안에는 앞서 언급한 DART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설치로부터 및 종결까지를 비롯한 각종 상황에 대한 운용지침이 제시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활동 전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재난 평가와 같은 경우는 향후 우리가 조직운용시 참고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안전과 의료조치 및 위생 등 인명의 피해를 억지하기 위한 점검표(Check List) 및 특히 보건 및 위생건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라. 추진 방법

미국정부는 USAID내에 DCHA 국(Bureau for Democracy, Conflict & Humanitarian Assistance)를 두어 동부서로 하여금 긴급재난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도록 조직화하고 있다.

이 산하에 Field Offices를 두어 행정업무를 비롯 각종 해당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으며, 주재국내 해외사무소의 역할도 크게 중요하다.

특히 이 산하 Office인 OFDA(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가 재난에 대한 지원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마. 향후 추진방향

미국정부는 1990년대를 신인도주의(New Humanitarianism)의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강조되어 도덕적 의무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향후 한층 강화된 지속적인 재난원조를 이행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인도적 원조와 대외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지수(인도적 지수)에 대한 제고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이나 NGO 등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동을 강화하고, 이 활동결과는 감사에 의해 검증되는 시스템을 운용할 것이다. 아울러 재난예방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보수집 및 확산 대응방법의 취약성 등에 대한 환경을 형

성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점증하는 재난 구호활동사항의 복잡성의 증대 및 다
기화로 각 재난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고 특히 재난현장에
의 대응을 위한 전문가와 본부 및 지역사무소의 적정인력
확보에 진력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다대한 노력이 필요한 인도적 원조에 대한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행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는
일부 행정, 정치 및 안전의 측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각
적인 조치를 취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일본

가. 추진 개요

1970년대 인도지나 전쟁에 의해 대량으로 발생한 캄보디
아 난민에 대한 서구제국과 같은 지원시스템을 갖추진 못
한 일본은 단순 의료팀의 활동에 의존하는 소규모 구호활
동 밖에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재난원조의 재삼 인식하게
되어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문부성, 후생성 및 국내 다수
의 공립, 사립병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지원을 얻어,
난민과 재해를 대상으로 한 국제구급의료팀(JMTDR :
Japan Medical Team for Disaster Relief)을
1982년 설립하여 JICA로 하여금 조직적인 운용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1985년 9월의 멕시코 지진과 11월의 콜롬비아 화산분출에
대한 원조를 시작으로 의료요원과 재해응급대책 전문가
및 구조요원으로 구성된 종합한 형태의 국제긴급원조체제
의 정비를 이룩하였다.

1985년 12월 아베외상은 각의에서 긴급원조체제의 정비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동의를 얻게 되어 본격적인 체제 구축

에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위한 경비는 1986년도부터 JICA의 교부금의 신규항목으로 설정되어 「재해원조 등 협력비」로서 운용하게 되었다.

이후 법률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 1987년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으며, 1992년 6월에는 대규모의 긴급원조대를 파견토록 하기 위하여 상기 법률의 일부를 수정하여 자위대의 동 구조활동에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도록 입법화하였으며, 동년 4월에는 JICA의 의료협력부에 소속되어 있던 국제긴급원조실이 국제긴급원조대사무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나. 주요 추진실적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1992년부터 2004년 5월 현재 인적원조는 구조팀 10회, 의료팀 32회, 전문가팀 24회, 자위대부대 4회 등을 포함하여 합계 70회 실시되었으며, 물적원조는 원조물자공여 271회, 민간원조물자의 수송 3회, 합계 274회가 실시되었다.

연도별로 주요지원 실적을 보면 1987년 베네주엘라 홍수, 베트남 태풍, 브라질 홍수 피해 지원, 1988년 수단, 멕시코,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지원, 중국과 아르메니아 지진 피해 지원 등이고, 1990년대 들어서는 1990년 사상자 1,660명을 낸 필리핀 지진에 의료팀을 파견하였고, 1991년 역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페루에 물자공여를 실시하였다.

이어 1992년에는 콜롬비아 및 이집트의 지진으로 물자공여와 전문가팀을 파견하였고 인도네시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의료품 등을 공여하였다. 1994년도에도 역시 콜롬비아와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발생하여 물자공여를 실시하였고 파키스탄에는 홍수 피해로 인한 필요 물자를 공여 하였다.

1996년에는 캄보디아에의 홍수 피해 지원과 이집트의 건물 붕괴의 지원을 위한 구조팀을 파견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 산림화재가 발생, 소화기기 등 화재관련 물자를 공여하였다. 1999년도에는 터키에 사상자 14,000명을 낸 지진이 발생, 외무성 직원을 포함한 계 39명의 구조팀을 파견하여 현장 구조활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도 이후에는 2003년 멕시코 지진으로 물자공여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발생한 SARS의 발생지 중국에 전문가팀을 파견한 바 있다. 그리고 알제리 및 이란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하여 역시 구조 및 의료팀을 파견한 바 있다. 아울러, 동년 발생한 인도네시아 지진과 북한 용천 열차사고에 비상용구 등 물자공여를 실시한 바 있다.

다. 주요 임무 및 수행 역할

일반적으로 일본 국제긴급원조대의 역할은 다음의 3가지로 구별된다.

1) 구조팀 : 수색 . 구조활동

구조팀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해상보안청의 각 구조대원으로 편성된다. 현재 62 지자체 소방본부와 9 도도부현 경찰 및 해상보안청 합계 약 1,500명이 파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조팀은 지진 등의 재해에 의한 재난자의 수색, 구조, 응급조치 및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등의 활동을 벌인다.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현재까지 10회 파견된 바 있다.

2) 의료팀 : 의료활동

의료팀은 국제긴급원조대에 참가할 뜻을 갖고, JICA에

등록된 의사, 간호사, 의료요원 등에서 선발, 구성된다.
의료팀은 재난자에 대한 진료활동을 중심으로 현지 의료 기관에 대한 진료에 관한 기술적 조언 및 역병의 발생.만 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활동 등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약 32회의 파견실적을 보이고 있다.

- 3) **전문가팀** : 재난지역 응급대책 및 재해복구활동 실시
전문가팀은 관계 성청에서 선발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편성된다. 전문가팀은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재난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분야에 대한 응급대책 및 재해지역의 시설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복구활동을 벌인다. 현재까지 24회 파견된 바 있다.

라. 추진 방법 및 조직 운용

국제긴급원조대(JDR Team : Japan Disaster Relief Team)은 해외 지역, 특히 개도국의 일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에 대하여 재해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국제긴급원조활동을 실시한다.

일본정부는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많고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이를 개도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울러 일본측에게 요청할 경우 신속히 대응, 국제긴급원조대를 파견한다. 이로서 일본으로서는 국제협력의 폭을 넓히려고 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일본은 해외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로 재난국이 긴급히 요청하는 자금의 공여, 의료팀의 파견 등으로 한정되게 대응하여 왔으나, 1987년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구조·수색활동 및 의료활동 그리고 응

급대책 및 복구활동을 위한 관련팀을 파견토록 운용 체제를 갖추고 있다.

원조체제의 형태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국제긴급원조체제>

자금원조 : 긴급 무상자금협력

인적원조 : 국제긴급원조대 파견

물자원조 : 구호물자(텐트, 모포, 생필품 등)의 공여,
민간원조물자의 수송

<재난구호 조직>

국제긴급원조대 산하의 3개 팀(Operation Team, 연수 팀, 인도원조조정팀)이 동 재난구호업무를 담당한다.

마. 향후 추진방향

일본은 금년 4월 재난감소국제회의(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의 채택 문안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1994년도에 채택된 '요코하마 전략(Yokohama Strategy)' 즉, 「자연재해 예방과 준비, 완화 실행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재해관리와 위험도 측정 등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계획의 관련 조항의 실행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는 보다 안전한 세계를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다음의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1) 공동체와 국가에 있어서 인명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의 재난손실의 실제적 감소

2)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개발계획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재난위험 통합 고려

3) 강력한 제도와 매커니즘 그리고 체계적으로 재해를 제
어할 수 있는 공동체 능력의 개발

따라서, 일본은 향후 자국이 지진 등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인 만큼, 가일층의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에서의 선진원조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국제협력의 한 형태인 재난구조활
동에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의 침체로 개발원조액은 증대되고 있지 못하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꾸준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며, 일본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지원규모와 역량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우리에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

우리의 국제재난구조활동이 작년 이란 지진피해지역의 복구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
리의 국제협력의 분야의 확대와 범주의 다기화로 연결되
어, 우리의 가시적인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리라 판단된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할 때, 양국 모두 지난
198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국제재난구조활동을 추진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미국의 존재양식인 자유와 생명
존중 및 봉사를 근간으로 아프리카지역까지 그들의 영향
력이 작용하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활동영역을 넓혔으며,
일본도 1987년 이후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지

금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적, 인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이 우리의 체제 구축시 유효하다 판단되며, 일본의 경우는 구조적, 기능적 유사로 인하여 그들의 경험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우리에게 미국의 행동 가치철학인 인도주의적 기준과 행동준거는 우리의 구조활동의 이념에 참고가 되리라 판단되며, 미국의 실시체제 및 운용구조도 우리의 조직 구성시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예산의 확보와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는 우리의 재난구조활동을 성공케 하기 위한 기반이 되리라 판단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양국간의 원조이념의 유사성, 지역정서 등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우리의 조직 및 활동 모색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공조의 초기단계에서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 그리고 협조시스템 운영으로서 양국간 역내 재난대처 공동대응시스템 구축 등 향후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긴급 재난원조의 효율적 추진방안

1. 선진 대응 시스템 정비 및 구축

현재 국내재난의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대책기구인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타국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는 과거의 미국과 일본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의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재정적, 물적구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재난국의 입장에서는 물적 제공도 반

드시 필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인적지원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재정지원에서 인적지원으로의 지원의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응 체제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조직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데, 현재의 무상 및 기술협력사업이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체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개도국과의 연계가 기본적으로 외교업무이므로 외교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령이 119구조활동 등 재난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인명구호와 관계가 있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필요시 인적, 물적 이동을 위하여 수송기 이용 등 국방부와의 연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종합한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조직도(圖)와 관련해서는 본 원조업무에 관한 각 부처간의 의견이 종합된 후 논의되어도 무방하나, 기본적으로 지휘 체계가 단일화되어야 한다. 즉, 만일 단(團)의 형태를 띠다고 가정하면 단장, 부단장의 형태로 각 정부부처로부터 파견된 자들로 각 지휘계층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부대장은 협력단이나 외교부직원이 담당하면 될 것이다. 기타 상세사항(인적구성, 역할 정의 및 설정 등)은 본 보고서에서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Task Force을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언급할 사항은 일본과 같이 법률의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우리는 이에 더하여 그 역할의 본령을 확대하고 있는 NGO의 역할도 공식적으로 인정, 법안 마련시 이를 포함시키고 아울러 구조대의

인적구성에도 사전협의 전제로 포함시키는 것이 공적개발 업무의 민간참여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2. 관련 법규 제정 및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관련 법률의 명칭이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의 재난구호에 대한 역할이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법률제정시 명칭 등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리라 믿으며, 아울러 이와 동시에 지난 1990년대 일본 고베와 미국 LA지진 등 선진국의 경우도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으므로, 선진국의 경우는 개도국과 그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재정지원보다는 인적지원을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의 활동명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대로 본 업무를 정부차원의 대응업무로 파악,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되어져, 정부 해당 각 부처의 의사결정자가 모여 상호 토론 하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아울러, 의사결정시스템은 정부차원의 결정을 받아, 하위체계인 구조대가 협력단의 통제(인솔)하에 개도국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하위 2원 시스템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상설 사무국은 외교부나 외교부의 지휘를 받는 협력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동 재난구호 담당사무국인 국제긴급구조대사무국은 JICA내에 위치하고 있다.

3. 즉응 집행시스템 상설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즉응 집행시스템인 긴급원조대 사무국을 JICA내에 운영하고 있다.

기상이변 및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지구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세계차원의 대응에서 보듯이 매년 그 발생회수와 피해지역 그리고 사상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UN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때, 이에 호응하여 극력 대처한 국가는 극히 일부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지금의 자연재해에 대한 전지구적인 대처와 상호협력력을 추구한다면 지난 30년전의 환경문제와 같은 똑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다.

이에, 즉응시스템의 상설화의 개연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집행하부구조로 협력단내에 또는 외교부에 상설사무국을 구성하여 가급적 시간 낭비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각 정부내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외교부의 중개역할이 필요하므로 한시적으로 외교부내에 위치하였다가 협력단으로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처음부터 협력단내에 위치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운영 및 지휘는 협력단의 총재가 전담하고 사전 방침 및 운영 그리고 사후결과는 외교장관에게 활동업무 종료후 실시토록 한다.

4.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구축 및 확보

동 즉응 집행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의 구조활동 인원과 물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

이다.

우선 실제로 공적개발원조예산에 국제긴급원조비 항목을 신설하고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우선, 사무국 상설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및 구조대원 훈련 및 운영 등 제반 비용 그리고 개도국 및 선진제국 파견지에서의 활동비용 등에 대한 비용지침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 연 몇 개국에 어느 정도로 지원 할 것인지는 기존의 우리의 대 개도국 사업계획 수립 시와 동일하게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원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전에 각 해당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활동은 인류애에 입각한 봉사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구조활동 중 신체에 장애를 입는 경우는 상이군경자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는 다든지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든지 하는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하여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 재정지원 및 물적 지원에 대하여는 재난국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접수된 요구에 대하여 관련 후속조치는 협력단내 해당 부서가 조치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의료 및 생필품의 조기공급을 위하여 업체 Pool System 운영도 고려해 봄 직하다

5. 민간부문(NGO)과의 상설 연계네트워크 구축

개도국 일반 민중의 실태 파악과 이의 해결에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민간 NGO와의 연계는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세계 각 국에서 활동하는 NGO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대표적인 NGO는 프랑스의 「국경 없는 의사회」와 「Green Peace」 등일 것이다.

특히, 일부 민주주의 발전이 느린 나라에서는 공적 채널인 원조국 정부보다는 아무런 이해조건이 없는 민간부문을 신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개도국 정부는 사실 민간부문의 활동을 존중한다. 이에 민간부문 NGO가 민간외교의 최전선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전방위외교의 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부문의 재난구조활동을 위한 조직구성과 활동이념을 갖추고 있는 민간NG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을 동 시스템 내에서 유효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구호뿐만 아니라 협조가 아닌 실질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합운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도 고려해 볼 직하다.

주요단체로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조협회, 응급의료기관들과 그외 협력단에 등록되어 있는 NGO 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를 들면 「민관합동 국제재난구호협의회」라든지 하는 일정 통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매개 역할은 협력단이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특히, 협력단의 민간협력팀의 지원은 매우 필요하며, ODA 사업에서의 민간의 역할 증대와 사업영역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이 쌍두마차의 한 축이 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협력단 홍보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6. 파견대원 구성 및 교육

팀의 구성 체제가 형성되면 각 임무에 따른 대원 구성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좋은 자료는 미국의 FOG(Field Operations Guide)가 좋은 지침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일거에 재해로 인한 모든 발생분야를 커버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가급적 종합지원체제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위한 사전준비도 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종합훈련센터를 목표로 기존의 봉사단원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원(훈련 장소 활용 및 교육 위탁) 등도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 119구조대 등 정부차원의 단원을 제외한 의료원(의사, 간호사, 조무원 등)등 자원 확보를 위한 등록제 실시 등 제반 조치에 대하여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공무원직 및 교육직 등 일반인이 아닌 신분들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활동요령 및 안전요령 등 교육내용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봉사정신에 대한 정신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7. 수원국과의 업무협조

본 구조활동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어 또한 중요한 것이 수원국 정부와의 협조이다.

재난지역에서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정부로부터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주민의 요

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시급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구호활동이 성공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초의 경우는 재난국의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 대사관의 최초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국 정부의 지원 요청내역과 기타 지원국들의 활동 내역(필요 없는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정보들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재난국의 종교, 관습 등 일반사정은 반드시 알고 활동에 임하여야 하며,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은 극도로 자제하는 현지국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필요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인도적·인류애적 입장에서 지원활동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8. 현지 구호활동 전개

재난국의 현지에 임해서 구호활동을 전개할 때에 매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지인의 반발을 사는 불쾌한 행동이나 언해 등은 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심으로 성의를 다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하며 나의 동포라는 심정으로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지국 정부의 상황설명과 정보제공 및 요청에 따라 도덕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저 손 만을 뻗치는 가식적인 행위는 오히려 반발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9.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홍보활동 전개

본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위식 고취를 위하여 국제화시대에 맞는 우리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활동의 적

극 전개가 필요하다.

물론 사후 활동에 대한 미디어 자료 제공 및 강연활동의 전개 그리고 수훈(현직국 정부 또는 우리정부)등에 대한 공보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 언론 매체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며 필요시 미디어 관계자의 현장 동행 취재 기회 제공 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시 초중등교 교육자료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교과서에 의의 및 활동상을 게재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지진의 피해 가능성에서 예외가 아닌 지진층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홍보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10. 북한 및 기타 국가에의 재난 지원

지난 북한 용천의 열차사고로 인한 재해의 참상은 이제 비극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때, 우리의 NG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원이 쇄도하였다.

이제 우리도 남북간의 재해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이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남북한교류법에 의한 공식채널의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남북간의 접촉이 더 이상 사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환경에 도달한 바, 북한 인민의 지원을 위한 동포애적 측면에서 북한에 재난발생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자간에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부 당국자간 합의에 도달할 시, 정부는 협력단으로 하여금 북한 재난지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인적 지원을 위한 환

경이 구비되기 전까지라도 물자 및 재정지원 등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경우의 지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적, 재정적 지원보다는 인적 지원에 충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웃 일본의 고베 지진, 그리고 대만 및 미국 LA 지진 등 상시적으로 우리도 일상으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상대국에 재난 발생시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V. 단계적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1. 단계적 추진전략

가. 재난의 구분 및 분류

재난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의 분류기준과 더불어 주요국 및 OECD, UN 등에서 구분하는 기준을 따른다.

즉,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의 특성은 위험이 크더라도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하여 발생하거나, 시간과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인간의 면밀한 노력 또는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또한 같은 유형의 재난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며, 그리고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열거된다.

나. 파견 대상 기준

현재 정부차원의 해외재난지원체제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기능과 경험인력이 확보가 제1과제가 되므로, 1차적으로는 재외공관과 재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구조대를 파견할 것인가 여부와 그 파견규모를 결정하고 미미한 발생인 경우는 물적지원 또는 재정적지원으로 대체토록 한다.

이 경우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황의 변화에 대응, 즉 추가상황보고(2차, 3차 등)를 접수하여 이들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구조대 파견여부는 사무국의 재난국 피해상황에 대한 종합 판단을 통해 결정토록 한다.

법적체제가 정비되고 기타 인적자원 운용시스템과 상설사무국 등이 갖추어지면 재난국정부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여 발생규모에 관계없이 얼굴을 보이는 인도적 지원을 실시토록 한다. 이에, 상시대응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데,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긴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구조대는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구조팀, 의료팀, 전문가팀 등으로 편성한다. 동 팀들의 운영은 사무국이 재난상황을 공관 및 미디어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한 종합 판단하에 팀을 운용하며, 인적구성 등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동 구조대 설치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해외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 119대를 운용하고 있는 데, 6개팀 8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해외긴급구조대의 편성운영은 해외항공기, 선박재난 등 대형재난 발생시 재난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 단계별 활동내용 구분

- 1단계 : 재난지역 공관으로부터 상황보고 접수 및 종합 분석 및 대응방향 검토
- 2단계 : 재난지역 공관에 상황추이 변화 예의 주시 및 철저 보고 및 주재국정부 요청 접수 및 확인
- 3단계 : 지원방안 결정 (물적, 재정적, 인적지원 중)
- 4단계 : 필요시 지원방안에 대한 언론브리핑 실시
- 5단계 :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파견)
- 6단계 : 만약에 대비, 재난국 지역의 우리국민의 안위확인
- 7단계 : 구조대 임무 실시
- 8단계 : 예상활동기간의 연장여부 검토
- 9단계 : 구조활동 종료
- 10단계 : 귀국 및 결과보고 (상황 종료)

☐ 참고로 현지에서의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 활동내용을 추후 Task Force 구성시 검토

2. 실행계획

가. 활동지침

재난국 국민의 생명 구조를 기본정신으로 인종과 종파와 지역을 초월한 인도주의적·박애적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구조하는 것과 동일한 자세로 임한다.

나. 활동목표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소의 피해로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파견전 수립한 제반 구조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특히 지방인 경우, 농가축 수 등 재난구조 활동이 종결 된 후, 현지주민들이 생업에의 즉시 종사가 가능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한다. 아울러 활동기간중 활동목표가 명기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구조활동을 추진하고 일일활동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한다. 이에 따라 매일 매일의 진척도를 확인하며, 100% 달성토록 노력한다.

다. 활동내용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지역 점검 및 정비
 -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
 - 재난위험지구 순회 정비
 - 대규모 인원집합장소 점검관리
- 2) 응급 구호 및 이재민 보호 활동
 - 응급구호물자 점검
 - 응급구호
 -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 및 관리
- 3) 동원장비 관리
 - 수방자재 점검
 - 동원장비 지정관리
- 4) 구조대 활동인원 점검 및 인명구조 활동
 - 주재국 또는 파견국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확인
- 5) 응급복구 활동

- 공공시설물 등
- 재해복구 물자운송 지원

6) 방역 및 보건위생 활동

- 방역물자 점검
- 재난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

7) 재난국 정부에의 활동 결과 통보

- 사전 활동계획 대비 실적 등

8) 귀국 후 결과보고

라. 운용전략

재난국가의 특성에 맞는 구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파견 전 대상국가 및 재난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구조활동방안 및 전략을 마련토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각 국가의 정황에 근거하여 전략적 활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당지역 및 국가의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마. 운용시스템

국제긴급재난지원단(가칭) 또는 사무국을 설치(KOICA내 또는 기타방안)하여, 민간NGO와의 유기적 협조시스템 하에, 국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목표로 전국민의 참여시스템화를 도모한다. 향후에는 선진 타국과의 협조시스템 구축도 도모하며, 이의 대상으로는 일본과 미국 등이 유력하다.

VI. 결론 -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확한 방법론을 찾기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제국의 형태를 답습하거나 모방하면 방법론은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실행이다.

앞서 언급한 제반 흐름별 정리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작업한 것이다. 이 이상의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마도 누락된 부분은 후에 보완하여 체제 구축시에 보완하면 되리라 판단되며, 본 연구보고서는 아직 국내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국제재난에 대한 개론으로서의 역할 자체에 충실코자 하였다. 우선 흐름에서 좀더 많은 국가의 예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운 데 시간관계상 그리고 자료의 부족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우선은 선진제국의 관련법률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각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적이다.

둘째, 상설기구를 형성하여 외교부나 협력단내에 두는 것이다. 외교부를 거론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의 실행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협력단 내에 위치시키는 것이 실행체제상 맞는 이야기다.

셋째, 예산과 인적자원의 상시 확보문제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용자원을 항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다기화 되어 가는 국제협력의 형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의 확보이다. 현재 국제협력에 대한 저변이 굳건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재난대처에 철저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있다면 국외재난에 대한 이해는 쉽게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역시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 점은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문제에의 적극대처이다. 북한지역은 지리적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물론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사회인프라의 부실로 인적재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우리의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함은 민족적인 감정에서라기보다는 생명의 존중함에 의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국제재난관련 우리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본문에서의 10가지 효율적 추진방안과 결론에서의 5가지 결론 논지는 미미하나마 본 보고서로부터 도출되는 핵심이다. 향후, 본 업무가 궤도에 올라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고가 그 하나의 밑알이 되기를 희망한다. 끝.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목 차

I.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과 최근 동향

1. 동아시아지역 일반사정 1
2.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역할 3
3.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지역의 위치 4
4. 동아시아지역의 최근 동향 6
 - 중국 및 역내 경제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5. 동아시아지역과 우리의 관계 7
 - 경제·통상적 관계를 중심으로

II.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선진제국의 개발원조 공여

1. 선진제국의 개발원조 목적 및 이념 9
2. 선진제국의 원조 추진방법 10
3. 선진제국의 원조실적 및 추이 10
4. 원조의 동아시아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및 효과 11
5. 주요 선진제국의 원조 추진 12
 - 가. 미국
 - 나. 일본
 - 다. 독일
 - 라. 영국
 - 마. 프랑스
 - 바. 기타 주요국가
6. 원조 평가 및 환류(Feedback) 19
7. 향후 개발원조의 추진방향 21
8. 우리나라 개발원조 추진에의 시사점 21

Ⅲ.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원조 공여

1. 원조 추진목적 및 이념	23
2. 원조 추진방법	24
3. 원조 추진실적 및 추이	24
가. 중국	
나. 태국	
다. 필리핀	
라. 말레이시아	
마. 브루나이	
바. 베트남	
사. 라오스	
아. 미얀마	
자. 싱가포르	
4. 주요 원조 추진사례	59
5. 원조추진 효과 및 우리와의 관계	65
- 외교관계 증진 및 통상 증대 그리고 상호이해와 관련하여	
6. 향후 추진방향	66

Ⅳ. 중국과 동아시아지역과의 제반관계

1. 역사적 유대관계	68
2. 통상적 이해관계	69
3. 중국의 동 지역에 대한 지원실적 등 추이	70
4. 향후 양지역간의 협력관계 예측	71
- FTA 구축 포함	
5. 동 지역의 중국에 대한 시각	72
(경제적 의존 및 협력 등)	

V.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제반관계

1. 역사적 유대관계 73
2. 통상적 이해관계 73
 - 국교재개 후 (1992년 이후)
3. 외교적 협력관계 74
 - FTA 논의
 - 기타 북핵 관계 등
4.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지원(원조공여) 75
5. 중국의 경제발전에서의 기여 및 반응 91
6. 향후 바람직한 원조형태 93
7. 이상적 중국 지원모델 정립 93
8. 향후 원조 지속 추진시 고려사항 95

VI. 중국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자유지역(시장) 구성

1. 추진 개요 및 내용 96
2. 추진 효과 97
 - 역내 및 세계적
3. 우리에의 영향 및 파급효과 97
 - 우리의 대응전략 및 전망

VII.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ODA 추진 방안

1.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적 원조철학 98
2. 원조이념 및 공여형태의 고려 98
3. 바람직한 원조공여 방법 및 모델 정립 99

VIII. 결론

- 바람직한 21세기 상호공존의 원조를 추구하며

I. 동아시아지역 발전에 있어서의 원조의 역할

1. 동아시아지역 일반사정

동남아시아지역국가(통칭 ASEAN 국가)와 중국, 몽골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지역은 에드워드 사이드 등 서양인들의 시각으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경제발전 및 문화적으로 지체된 변방에 불과한 인식이 일반적인 관념이다. 흔히, 말하는 동양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권을 의미한다. 15세기 이전 중국에 의한 기술 및 상업의 발전은 전세계의 상업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서양의 17세기 이후의 산업혁명과 인문과학의 발전 등에 끼친 영향은 다대하다. 이러한 서양에의 파급효과는 역으로 제국주의를 발전시켜, 19세기 이후 벌어진 제국전쟁으로 식민지배를 받는 등 부메랑의 부침이 있었음은 역사적 사실로 널리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사고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서양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데, 이는 다름 아닌 문명의 발상지 그리고 광대한 땅의 크기(남한의 100배 크기 규모)와 전세계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인구 등의 국가의 특이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대중화권의 형성은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구 안남(베트남) 및 몽골 등의 지역으로 지평을 확대, 동아시아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주로 서방의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의 지배를 받은 동아시아지역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획득, 자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구 소련의 지도아래 좌익세력이 득세한 베트남 등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중국은 수정사회주의의 길을 선택, 스스로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맹주의 역할을 자임하려고 한다.

기존의 인도지나반도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6개국은 196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ASEAN)을 형성, 지역단위의 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경제적 유대를 통한 상호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자립경제력이 떨어진 이들 국가들은 주로 서방, 특히 일본과 미국, 독일 등의 전후 복구 원조에 힘입어 빈곤 타파 등에 진력하나 여러 세계경제의 부침으로 인하여 후발개도국으로 아직도 위치지어져 있으나, 그 자원 확보 및 풍부한 인적자원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 향후 국제경제에서 그 역할이 중시되는 신흥시장(BEMs : Briskly Emerging Markets)으로 분류되어 서방의 투자자들로 부터 남미시장과 함께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한 베트남 등은 경제 발전속도가 빨라, 인도지나 경제를 견인한 새로운 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흔히 회자되는 초기 개발경제시기에는 국가의 자본(Hard, Soft 포함)이 집중되는 경우가 상례이므로 이들 국가의 경우도 우리의 1960-1970년대의 우리의 개발연대시기(개발독재)나 일본의 경사생산방식을 본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는 서구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선진제국의 개발공여원조는 당분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동 지역 진출로 인한 산업생산구조(안행형)로 형성된 국제분업은 후에 ASEAN에 가입한 4개국 즉,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을 포용, 역내 산업구조의 차별화를 가져왔다. 이는 단기적으로 동 지역 국가의 국부창출에 기여하였으나, 산업구조 상 하위구조(하청분업)를 형성, 향후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금은 확대되는 Digital Divide로 인하여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기구(세계은행/IBR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와 선진제국의 동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는 당분간 이들 지역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아울러 종교적, 인종적, 문화관습적 차이 극복도 동 지역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주요 향후과제가 될 것이다.

2.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역할

동아시아지역은 서구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과는 달리, 역사와 그 인종적, 지역적 문화의 차이로 일원적인 시스템을 공유한 적은 없으나, 문화인류학 상 양순하고 사회지배구조 및 시스템에 비교적 순응하는 관습을 보유하고 있어 공격적이기보다는 피 지배적인 역사문화 및 양태를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이 19세기 중반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대상이 된 것은 양질의 노동력과 천연자원 공급지 그리고 무역수출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 네덜란드에 의해서 조종된 동인도회사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중반이후에도 변함이 없어 농업 등 1차 산업 또는 극히 초보적인 경공업제품에 의존하는 동 지역 국가들은 국내시장의 형성을 위하여 수출지향공업화보다는 수입대체공업화에 진력, 종국적으로 기술과 자본을 수입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하청산업 구조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추세에 반발한 것은 1980년대 이후 불기 시작한 세계화의 부(負)의 그늘에 그들이 놓여있다는 인식을 버리고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합심되어 지역블럭 ASEAN을 형성, 수출지향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다만, 동 지역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여 협력을 이룩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나, 동 지역국가들은 궁극적으로 경제동맹인 최종적인 형태인 완전한 AFTA(Asia Free Trade Are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지금은 초보단계인 관세동맹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ARF(Asia Regional

Forum)등 정치연합 결사체도 병행 추진, EU와 미주지역의 NAFTA가 추구하는 정치·경제통합체 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라고 호평하여 향후 태평양시대의 도래를 주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가 주도하여 1989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설립되었고, 그 중요성이 배가되어 과거 지배-피지배의 관계였던 유럽과 아시아대륙간의 모임인 ASEM(Asia Europe Meeting)이 만들어졌다. 현재 아시아지역은 국제사회에서 수출 및 수입시장으로서 공히 중시되는 국제경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그 수출입 총규모는 유럽과 미주지역에 비해서는 적으나 그 성장잠재력은 크다고 판단되어 세계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지역의 위치

동아시아지역국가는 그 수출대상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통상활동을 이룩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그 정치이념을 민주주의와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가 대다수이므로 미국은 자유진영의 맹주로서 구 소련과 공산중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가로 이들 동아시아지역국가에게 시장을 개방, 수출을 하도록 도와 주었다.

이러한 통상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동아시아지역국가는 1차 산업과 경공업제품 및 원료를 수출하였고 반대로 중공업, 전자제품 등 기술을 위주로 하는 기술집약품목은 수입을 하여 전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초과하는 입초현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을 포함하여 일본 및 우리나라 그

리고 역내국가간 무역행위가 활발하여 세계경제질서(World Economic Order : WEO)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 이후 동 지역국가에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진출한 일본의 경우는 동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 및 시장침투를 목적으로 Off-shore Outsourcing 등의 형태로 진출하여 동 지역국가의 국부창출과 아울러 자국제품의 수입시장화 하였지만 동시에 형성된 안행형 산업구조는 산업공동화와 더불어 후발 개도국은 세계 경제 구조 하에서 소외되는 지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를 계기로 동 지역국가들의 Multilateral적인 접근인 AFTA와 Bilateral적인 접근인 국가 간 FTA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동 아시아지역은 흔히 회자되듯이 저임의 노동력과 근면성 그리고 자원의 용이한 확보 등 그 경제가치면에서의 최적화가 가능하여 많은 해외자금이 유입되었다. 최근의 경향으로는 이러한 해외자본이 중국본토로의 전환 등 일부 어려움도 겪고 있으나, 반면 중국이 수입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자본획득(국내총생산 : GDP)과 역내시장의 협력이라는 면에서는 지역블록화 추세에 비쳐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 동 지역국가들의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상에 있는 등 인간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 BHN)의 충족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 하에 있음도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해결은 강력한 산업구조 조정 등 개혁정책의 적극 추진과 시장개방 등이 요구되며 아울러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을 담당할 유능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타지역과의 원활한 교류 및 선진기술의 도입이 매우 절실하고 이는 선진원조국가들에 의하여 당분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동아시아지역의 최근 동향

최근의 중국 및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보면, 중국과의 2010년까지의 FTA 형성과 ASEAN간의 공동시장 구축 등 활발한 경제적 움직임이 탐지된다.

국가별 경우를 보면, 태국은 선진제국으로부터의 Soft Loan 차입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는 등 과거의 선진제국 의존형으로부터 자립형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 구습으로부터 벗어나 자주국가의 이미지 각인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성공적 완료로 현재는 주변제국의 경제원조에 전념하는 등 ASEAN의 맹주역할을 지향하는 등 적극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과거의 독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그 정권의 형태가 민주화되면서 인구 2.5억명의 소비자수와 광대한 영토와 석유 등 부존자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부국으로의 성장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회교의 중심국가로 회교권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의 관계 설정 및 중동 회교권 국가와의 관계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로 동아시아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은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자기입장을 주장할 지위에 있지는 못하나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그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미얀마는 군부정권과 아웅산 수지여사와의 관계 설정 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본 및 중국의 지원으로 조만간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주변 태국과 말련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의 ASEAN

가입으로 후발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여 많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1980년대 말의 개방정책(Doi Moi Policy)을 실시하여 많은 외자를 도입하는 등 1990년대 이후 매년 10% 가까운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주변국가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며,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벗어나 개방과 개혁의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과는 1997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미국자본의 유입에 성공, 경제제재 해제와 더불어 비약적인 성공을 이룩하고 있다.

기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아시아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관광과 정보통신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2000년 초기부터 정보통신분야에 국력을 집중, IT 2000(Singapore One, Industry 21 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중개 무역국가의 이미지로부터 IT Hub국가로 변신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5. 동아시아지역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교정책이 역외에서는 주로 미국과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역내국가와의 선린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동아시아 국가의 아무리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로 원자재는 동아시아국가로부터 수입하였고 아울러 2, 3차 산업제품은 동 지역에 판로를 구축하여 우리 통상에서 동 지역국가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유지는 동 지역국가와의 교역과 미국에 의한 바가 크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 및 경제 활황으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시아권이 EU와 AFTA(America Free Trade Area)와 같은 세계경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된다.

1980년대 이후 국제경제 시스템 내에서 주요 통상국가로 발돋움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2위권의 경제 및 통상규모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완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동아시아지역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지역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실시는 동 지역국가의 인적자원 양성과 사회기초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해 왔으며, 이는 각종 우리의 자체 수혜자 평가와 각 국 원수들의 입장 표명 및 관계 고위직 인사들의 언급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II.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선진제국의 개발원조 공여

1. 선진제국의 개발원조 목적 및 이념

미국 및 일본을 위시한 선진제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는 선린 우방으로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원조를 시작하였으며, 둘째로는 자국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수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는 데 또 하나의 개발원조의 목적이 있었다.

원조 초기에는 세계경제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초강대국에 의하여 세계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뒤진 나라는 국제관계에서 열위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심정 하에 자유진영은 미국의 경제원조를 미국의 세계전략 및 외교정책의 지지의 대가로 공여 받았으며, 소련 역시 공산주의의 맹주로서 공산진영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의 우월지배를 위하여 COMECON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원조는 후발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에 그 주요목적을 두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원의 개발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선진제국의 실상을 느끼고 앞선 선진문물을 느낌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추진배경에는 개도국이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기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존 듀이가 말하는 계몽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특히, 분야로서는 농업을 비롯한 제1차 산업 그리고 식수, 직업훈련 등 그리고 보건, 질병 등 의료분야 아울러 민주화 촉진 및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정부 구성 등을 이행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평화유지를 위한 내전예방 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자유진영의 원조의 목적 및 이념이다.

아울러, UNCTAD 등 무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77 Group 형성 등 외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선발개도국과 후발 국가들과의 발전의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경제발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남남협력은 우리나라와 아시아제국간의 경우가 될 것이다.

2. 선진제국의 원조 추진방법

미국은 주로 자유진영의 확보차원에서 식량원조와 인도적 현금 공여 등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연수생초청 및 프로젝트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두드러지는 현상은 경제 기술적으로 뒤진 후발개도국 국민의 의식을 계몽하기 위하여 미국의 Peace Corps나 일본의 청년해외협력대 등의 젊은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음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는 연수생초청사업 을 통하여 사회기초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에 진력하였으며, 독일은 기술측면의 지원을 배가하였고, 미국은 긴급사태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 등이 그 원조의 중심을 이루었다.

기타 영국 및 프랑스의 동아시아지역국가에 대한 지원은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3. 선진제국의 원조실적 및 추이

2000년도를 기준으로 미국은 총 150억불 중에서 1/3은 아시아 지역에 공여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는 약 100억불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1/3이 동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용 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동 지역이 미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공여대상이 되는 이유는 자유진영과의 유대가 강하고 타 대륙(남미, 아프리카)에

비해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고 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이며, 아울러 수출시장으로서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지역과 서아시아지역을 합하면 총 원조액의 50% 정도가 아시아지역에 공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총 공여액은 원조의 초기단계로부터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동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도 공여 초기단계부터 아시아지역 중시정책을 견지, 총 금액의 1/2정도가 아시아지역에 공여 되었으며 지원된 금액에 대한 Output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급속히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이들 국가가 선진 경제발전주기 내지는 단계에의 진입 시에는 공여수준은 축소될 것이며, 이는 동구 CIS 체제전환 국가들이나 또는 남미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4. 원조의 동아시아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및 효과

미국 및 일본의 원조는 동아시아지역 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역내 경제발전 및 통상 증진에 기여한 바 크다. 특히, 엔차관과 무상협력을 병행한 일본의 원조자금은 동 지역에 일본의 제품 유입 및 기술 학습효과를 가져와 동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일방화 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하여 동 지역국가의 경제사회시스템이 미국 및 일본지향으로 경도되어 국제분업의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계속 역내에서는 후발주자로 남게 되는 동 지역국가에는 세계경제질서 내에서는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방에 위치하게 되는 어려움도 제기되나, 기본적인 인간기본욕구를 미국과 일본의 원조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해소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일본은 동 지역에 인적자원의 양성을 도모, 기술인, 기능인 및 전문가집단을 양성하여 사회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력확보를 도와주었으며, 미국과 독일은 기술전수를 통하여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조력하였다. 이러한 선진제국의 기여를 통하여 경제적 국부창출과 수출주도를 이룩하여 과거의 빈곤 및 기아, 열악한 위생조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이를 선진제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동 지역국가들은 제반 국가와의 통상증진과 역내 교역 증대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어 지역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동인을 얻게 된다.

종국적으로, 동 지역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미국과 일본의 원조지원으로 확보하게 되어, 세계경제질서에서의 편입 및 중견개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5. 주요 선진제국의 원조 추진

가. 미국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민주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용하는 국가들이고, 반면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국가들이다.

우리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북쪽, 즉 공산주의 전염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은 자국의 원조이념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도지나 반도가 공산세력화 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원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1945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동 베트남은 자유 월남과 베트콩정권으로 양분되어 약 20년에 가까운 내전을 치르게 되는 데, 급기야는 1965년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국제질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던 적도 있다. 이 때, 미국은 막대한 원조자금을 남쪽 월남에 지원하였으며, 우리도 군대를 파병하여 상당한 전과를 이룩하였고, 동시에 일본과 프랑스, 독일 서방세계의 지원도 크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원조와 국익은 상당부분 연계가 되어 이루어지는 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크게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미국의 원조자금에 기인하는 바 크다.

미국의 원조자금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데, 그 주요 목적은 첫째,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한 동인 유발 둘째, 보건의료 및 위생, 빈곤 감소, 그리고 민주화 촉진, 전쟁예방 및 인도적 원조 등으로 대별된다. 동 원조의 추진은 각 국 주재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아울러 약 3,500 여 개의 미국기업들과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300개 이상의 NGO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면 인도네시아로부터 종교문제로 인하여 오랜 투쟁 끝에 독립을 쟁취한 동티모르의 경우, 선거감시와 경제재건 등에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동 티모르 지원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었으며, 현재 활발한 국가재건사업이 진행 중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전투병 파병과 KOICA를 창구로 하여 독립기념관 건립 등 구스마오 정권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그리고, 인도지나반도에 위치한 대부분의 ASEAN국가들은 과거 미국과의 유대로 군사동맹체 결성(SEATO)등을 이루어 지역안보를 도모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실시된 경제원조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최근에 ASEAN에 가입한 북방 3국(캄보디아, 라

오스, 미얀마)는 과거 사회주의 정권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이 촉진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양자본 및 원조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이들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미국 등이 주도하는 WTO, ADB 가입 등에 의하여 점진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일본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기화로 특수가 진작되어, 경제회생을 이룩한 일본은 1953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전후배상을 겸한 경제원조를 시작하였다.

당시의 일본이 처한 상황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피해국에 대한 전후보상 등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어 원조는 두가지 측면을 띠고 실시되었다.

첫째는 순수한 의미의 전후 보상처리로서 일본이 미국의 지원(미국시장에의 수출 등)하에 가득한 국제수지를 아시아국가에의 배상을 통하여 동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조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것과 둘째로 동 원조를 Tied원조(연계원조)를 통한 자국제품의 동반수출 등을 위한 수출저변 및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 즉 아시아 변방에 위치한 일본이 과거의 탈아입구(脫亞入歐)로터 본래 상태인 탈구입아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제정세에 대한 시각을 조정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국가의 생존전략의 입장에서 원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후 1960년의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갱신과 1964년의 동경올림픽 등으로, 특히 이케다 내각의 소득배증계획의 달성으로 경제의 최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1969년에는 자유진영에서 독일(서독)을 제치고 제2위의 대국으로 급부상한 일본은 1966년 미국과의 주도로 설립한 ADB(아시아개발은행)을 재

정기반으로 하여 장기 저리의 Soft Loan 지원과 JICA(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무상 및 기술협력을 실시하여, 동 동아시아지역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1989년에는 쌍둥이 적자(재정, 무역적자)라는 쇠락하는 경제로 인하여 일본은 드디어 미국을 제치고 약 150억 달러의 원조금액으로 세계 제1위의 원조 공여국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장기불황(잃어버린 10년 : Lost Decade)으로 최고공여국의 자리는 미국에 다시 내주었으나, 2001년의 경우 동 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한 원조액은 약 28억 달러로 전체금액의 약 1/3에 해당되는 금액이 투여됨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은 그만큼 강조된다 하겠다.

전후로부터 시작한 일본 원조정책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방위외교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데 이의 대표적인 대상이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부존자원이 빈약한 일본은 국가생존전략 즉, 해외직접투자와 병행한 엔화 경제권 형성 및 동아시아지역 국가의 생산 및 수출시장화 등을 지향하여 동 경제원조를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강력한 행정개혁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향후 어떠한 모습의 원조정책을 구현할 것인가 주목되는 데 우선 감지되는 현상은 원조대상국가의 다양화 및 예산 집행의 투명화, 시민참여 등으로 얼굴을 보이는 원조를 실시하는 개방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 독일

제 3제국(나치정권)의 멸망 후, 자유세계에 편입된 서독은 유럽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나, 역사적

인 소련과의 유대관계로 영국과 프랑스의 견제 하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길을 모색하여 왔다.

흔히 마셜 플랜(Marshall Plan)으로 불리는 미국의 전후 유럽부흥계획의 주요 대상국으로 많은 원조자금을 수혜한 서독은 자체의 선진 산업기술과 무역의 창출로 국부를 창출, 1960년대 이후 미국에 이어 서방세계에서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에, 지역적으로 유럽지향의 원조정책을 펴 왔던 독일은 아시아 지역에도 원조의 주요 대상국에 포함, 주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다.

동아시아국가로서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기존의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포용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규모의 단순한 기술원조를 실시하였다.

태국의 지원 예를 보면, 기술협력으로서 직업훈련과 교육관련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기초인프라 및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산업기술 이전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기술이전도 추진하여 동국으로 하여금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였다.

독일이 강조하는 직업훈련교육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사업을 보면, 아시아공과대학(AIT) 및 Thai-German Institute, Bangkok 그리고 International Skill Development, Songkhla 등이다.

환경과 자원보호 프로젝트로서는 대기오염 통제와 도시환경관리 및 도시 쓰레기 처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환경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환경분야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동아시아지역에 우리 삶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토록 하였다.

1958년부터 추진된 독일의 대 인도네시아 원조는 필리핀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술협력사업인 직업훈련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 데, 현재까지 약 100여개의 프로젝트사업이 이루어졌다.

금세기 들어서는 분권화와 경제개혁 그리고 보건의료 및 교통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독일에 의하여 1999년 이후 추진된 주요사업을 보면, 기술협력사업인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에는 직업기술 교육과 고용 및 경제구조개혁 그리고 자원보호와 빈곤 감소, 환경보호와 에너지관리 제고 등을 중점사업 목표(Major Objectives)로 설정하고 원조를 추진하였다.

라. 영국

영국정부의 대 아시아정책은 빈곤감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아울러, 보건과 교육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원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향후 2년간 45% 정도의 개발원조액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서 우선 미얀마의 경우를 살펴보면, EU의 기본정책에 따라 영국정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도적 필요성에 의한 것과 기본서비스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영국정부의 원조방침이다. 주요분야로는 HIVs와 태국-미얀마 국경난민,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NGOs 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미얀마에 대한 지원은 2003년의 경우 400만 파운드이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우도 기본의료 및 빈곤 억제, 여성 및 어린이 교육 등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빈곤 감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6억명이 1일 1달러 이하의생활을 하고 있으며, 4.86억명이

1일 2달러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 계층 간의 불공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환경악화와 물 부족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지원이 힘든 분야는 보건, 교육, 위생 분야 등이다.

영국정부는 동 국가에서의 지원활동에 있어 우선, World Bank, ADB 및 UN System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베트남은 아직도 23백만 국민이 빈곤의 어려운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빈부의 점증하는 격차는 지역과 사회로 나아가서는 종족간의 경우에서도 드러난다. 영국정부는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전략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2004-2006년 간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중점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공공 재정자원의 효율적 분배, 둘째, 포괄적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능력의 강화, 셋째, 베트남의 경제·사회적 변화 과정의 지원 등이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GOs의 참여는 물론이고 베트남정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시스템을 유효히 활용하면서 가능한 분야에서는 선진원조기관과 협력하여 실시·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 프랑스

프랑스도 기타 선진원조국가와 대동소이하게 빈곤, 보건·의료 및 농촌개발 등 일반 Grass-roots Level의 생활수준 향상을 그 기본 원조방향으로 채택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원조 방향을 보면, 프랑스는 2003년 분야별 원조 방향 개선을 통하여 식수 및 정화분야를 새로이 추가 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수자원 보호 및 관리 프로젝트에 적용 운영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 원조내역을 보면 천연 자원 및 농촌 개발 8.3%, 수자원 보호 관리 6.8%, 도심 개발, 인프라, 국토정비 41.4%, 식수 및 정화(농촌, 도시) 17.0%, 인간 개발 14.4%, 금융분야 15.5%, 기타 3.4%등이다.

동 아시아지역에서의 프랑스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03년 말 메콩강 유역에의 지원을 통해 베트남, 중국, 라오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동 지역에 투여된 금액은 2003년도 프랑스 총 원조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바. 기타 주요국가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OECD 국가들도 자국 대외정책 및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춰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데, 그 주요목적은 앞서 언급한 주요국가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빈곤 감소 및 보건, 교육 등 MDGs(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들의 기초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6. 원조평가 및 환류(Feedback)

유럽 전후 부흥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공적개발원조는 장·단양면에 있어서의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는 제 2차 세계대전 종료 시점에서 세계 국부의 1/2를 점유하였던 미국의 GDP가 전비 부담과 채무국의 부채탕감 및 전후 세계경제의 불건전성 등 그리고 냉전 이데올로기의 시작에 의한 군비확산 등으로 인하여 자체 경제재건의 여력이 전혀 없었던 유럽대륙을 비롯한 개도국의 전후 경제·사회개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자국의 국부창출로 인한 세계경제 질서의 회복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해외직접투자와 더불어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원조가 비교우위에 의한 국제 상품거래를 촉진, 세계

경제의 선 순환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무역의 부가가치를 크게 만들어 중국적으로는 자국민의 후생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반대로,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Tied원조의 형태를 띠어, 선진 공여국의 상품유입이 증대로 인하여 수입대체능력이 없었던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점과 또한, 공여자금이 개도국의 선의의 통치(Good Governance)를 위한 공익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수혜국 상층부의 개인용도로 전환 사용되는 부정 유입의 경우도 발생, 오히려 수혜국 내 계층 간의 반목이 조장되었고 또한 동 자금 중 일부가 수혜국 정권에 의해 자국민을 압제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공여자금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용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국제화의 과정에서 동 공적개발원조가 개도국의 시장을 침입하는 선진 공여국의 선전자금화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동 공적개발원조가 자조 능력이 전혀 없었던 개도국으로 하여금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원천자금(종자돈)으로서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원조가 비록 세계경제질서 내에서 선진국 경제구조에 개도국 경제구조의 종속화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개도국들이 직면하였던 제 1차적 과제인 빈곤과 기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원조의 양 개념은 선진 공여국으로 환류되어, 원조의 Untied화, Peer Review 그리고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원조 성과가 증진되도록 유도하였고 중국에는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설치되어, 전 세계원조가 OECD 국제감시 모니터링체제에 의하여 실시되고 연례적으로 개도국에서

의 사업결과가 평가됨으로써 원조의 공적 기능의 강화 및 효율성 추구, 자금 집행의 투명성 등이 제고된 점은 상기할 만하다.

7. 향후 개발원조의 추진방향

1980년대 말까지 세계경제가 활황을 보여, 선진 각국이 세계화의 일환으로 개발원조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원조의 피로현상의 노정과 세계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국들의 원조액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비능률적인 원조 실시로 원조국 자국의 국민(Taxpayer)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원조자금의 투명한 집행이 강조되어 민간 참여가 활발히 전개되는 등 원조 Scheme에의 일대 변화가 일어 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이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환경, 보건의료, 교육, 여성 및 전쟁예방 등 1국에 한정되지 않고 전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제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상호협력이 매우 절실하며, 동 개발원조는 향후에도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Developmental Gap과 Digital Divide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는 공여국의 효율적 원조 추진을 위한 제반 시스템 구축 및 수혜국의 자조노력 증대 등이 크게 요구된다.

8. 우리나라 개발원조 추진에의 시사점

2006년 DAC 가입을 목표로 외교활동 중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선진개도국의 입장과 과거 수혜를 받았던 입장에서 공여국 입장으로서의 전환(세계 무역대국 12위, 1인당 GNP 약 11,000불, GDP 약 5,500억불로 전 세계 국가 중 13위)등으

로 그 지위에 걸맞은 국제원조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2006년의 DAC 가입은 국내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설립 당시 360만불에서 13년이 지난 현 시점의 원조액은 1억 불을 초과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OECD 권고수치인 국가 GDP의 0.33%에는 훨씬 못 미치는 0.07%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향후 일정액의 원조액 증대가 요구시 된다. 이는 현 공여구조로는 원조액의 과소로 인한 원조의 Synergy효과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기화 되는 원조분야에 대한 즉응 체제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개발원조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화시대에 알맞은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의 이해 확산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제반 바람직한 체제의 구축은 우리가 21세기 함께 나누는 세계(지구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Ⅲ.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원조 공여

1. 원조 추진목적 및 이념

우리나라의 원조 추진의 근본목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개발격차를 좁혀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1980년대 이후 선진개도국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1만 불을 상회하여 과거 한국전쟁 이후의 수혜국으로서의 받는 원조로부터 주는 원조국으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선진개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발원조를 실시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 선진원조국 각국이 원조피로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개발원조의 개념에 회의현상이 들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개도국의 공여원조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하였으며, 이로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전 세계가 인정하는 뚜렷한 이웃할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원조이념은 과거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축적 하였던 경제개발 논리 및 노하우 등 각종 축적된 지식을 개도국의 실정에 알맞게 그리고 적용 가능한 지식들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돕는 국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함으로써 개발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997년 이후의 일시적인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조금액도 점증하여 실질적인 개도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조 프레임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현재 2006년 DAC가입을 목전에 두고 국민의 원조에 대한 관심 촉진과 자발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국민 각 주체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원조 추진방법

우리나라의 대 동아시아권에의 원조 추진방법은 주로 인적자원 양성에 주안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즉, 연수생 초청사업과 전문가 파견 및 봉사단 파견사업 등 주로 인적자원의 양성 및 인력의 파견을 통한 주재국의 성장주체를 형성토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로젝트사업 등을 실시하여, 주재국내에 병원이나 직업훈련센터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진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개발조사사업과 물자를 조달하는 물자지원사업 그리고 긴급재해시의 재난구호 현금 공여 등을 그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NGO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 특화하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IT사업도 우리나라의 전문특성을 살린 좋은 예라 하겠다.

대략 위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동 사업들은 각국의 실정에 맞춰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택하여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동 원조사업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국별 Country Programming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원조 추진실적 및 추이

가. 중국

2004년도 사업규모는 4,300천불로, 전체 122개국 중 공여순위 5위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수생초청 : 32과정 85명, 345천불

- 중국 행정공무원연수(국별), 중국 CDMA 통신기술(국별), 아시아 폐 하수 처리시설 관리,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등

□ 봉사단파견 : 총64명 (신규 47명), 1,871천불

□ 프로젝트 : 3건 2,067천불

- 서부지역 조림사업 ('01-'05/5,000천불)
- 기생충 감염관리시범사업 ('01-'04/1,000천불)
- 황사 공동 관측 망 구축사업 ('03-'05/633천불)

□ NGO 지원 : 1건 17.5천불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중국 지원실적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 13년간 총 33,887천불 지원 / 연평균 2,607천불

(단위 :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305	153	537	2,296	4,095	3,785	3,346	1,463	5,089	5,903	1,672	2,397	2,847
순위	8 /120	42 /128	6 /133	1 /143	1 /139	1 /140	1 /139	4 /126	2 /128	1 /133	7 /138	4 /123	5 /134

□ 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명	인원 /건수	지원액 (천불)	세부내역
연수생초청	1,158명	3,975	중국 공무원 행정발전계획, 국제통상 및 WTO협정, 한국어교육, 자본시장육성정책 등
전문가파견	54명	590	농업정책, 농업통계, 환경관리 등 분야
봉사단파견	67명	2,402	컴퓨터, 한국어, 자동차정비, 원예, 태권도 등
개발조사	7건	4,142	신강성 광물자원 개발조사1차('93-'96/1,048천불)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타당성조사('94-'95/205천불) 북건성 광물자원 개발조사('94-'97/943천불) 산서성 댐건설 사업타당성조사('94-'96/1027천불) 신강성 광물자원 개발조사2차('96-'98/151천불) 미산-당비간 철도건설타당성조사('97-'98/320천불)

			호남성 당관포 지구광물자원 조사('98-'01/540천불)
물자지원		1,000	차량, 컴퓨터, 의료·교육·방송기자재 등
긴급원조		1,127	홍수피해구호금 SARS 예방퇴치 현금지원 및 의료기자재 지원 등
프로젝트	19건	19,838	농업통계조사지원1차('94-'96/578천불) 금평현소수직업훈련학교지원사업('95-'96/263천불) 하얼빈전산기술개발훈련센터('95-'97/792천불) 강소성양주직업학교('95/201천불) 도문제3소학교건립('95/461천불) 한중동양의학연구센터지원('95-'97/778천불) 상해한국어훈련센터지원사업('96-'98/732천불) 마을과현모자보건센터('96/260천불) 위해시한중언어센터('96/191천불) 흑룡강성조선족사범학교건립('96-'97/547천불) 천진도시대기분진연구지원사업('96-'97/171천불) 농업통계조사2차('97-'99/237천불) 한중직업훈련협력사업('97-'00/8,971천불) 량팡시시범농장지원사업('99-'01/959천불) 한중기생충감염관리시범사업('00-'04/1,000천불) 농업통계조사3차('00-'02/112천불) 서부지역조림사업('01-'05/5,000천불) 밀운저수지보호림조성사업('01-'03/274천불) 황사경보망건립사업('03-'04/633천불)
NGO지원	15단체	813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 등

나. 태국

2004년도 사업규모는 1,842.1천불로 전체 122개국 중 공여순
위 10위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수생초청 : 25과정 51명 206.8천불

- 전시컨벤션운영, 기상예보, 직업훈련교사기술향상, 해
운항만정책, 철도운영현대화, CDMA통신기술, 폐하수
처리시설관리, IT 인턴쉽 등

□ 봉사단파견 : 총78명(신규 62명) 1,510.6천불

□ 개발조사 : 2건 124.7천불

-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예방 및 퇴치백신
연구사업('02-'06, 2,500천불)

- 아세안 5국 싱가포르-쿤밍 철도연결 타당성조사
('04~'06, 1,200천불)

한편,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태국 지원실적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 13년간 총 US\$8,161.4천불 지원 / 연평균 US\$628천불

- 연수생 703명, 전문가 10명, 태권도사범 1명, 봉사단 109명
(일반단원 83명, 협력요원 26명), 물자지원 21.5천불, 긴급
원조 187.7천불, 프로젝트 8건 1,261.5천불, 개발조사 1건
171.9천불.

(단위 :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194.4	508.3	315.8	445.2	648.0	1,148.3	730.1	826.6	378.5	651.4	599.0	812.1	903.7
순위	29 /120	4 /128	13 /133	12 /143	12 /139	6 /140	19 /139	8 /126	16 /128	13 /133	16 /138	19 /142	21 /130

□ 연도별 사업별 종합실적

사업	구분	합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지 원액	백만원	8,489	148	401	255	358	500	924	694	1,156	450	736	773	1,016	1,077
	천불	8,161	194	508	316	445	648	1,148	730	827	379	651	599	812	904
연수생	백만원	3,026	64	80	54	121	90	116	177	201	180	411	443	505	584
	천불	2,745	84	101	67	150	117	145	186	144	152	363	343	404	490
	인원	703	20	27	18	34	24	30	44	49	48	99	108	90	112
전문가	백만원	330	-	-	-	-	-	-	-	-	-	115	69	23	124

	천불	277	-	-	-	-	-	-	-	-	-	101	54	18	104
	인원	11(10)	-	-	-	-	-	-	-	-	-	5(5)	3(2)	1(1)	2(2)
태권도 사범	백만원	61	13	29	20	-	-	-	-	-	-	-	-	-	-
	천불	78	17	36	24	-	-	-	-	-	-	-	-	-	-
	인원	3(1)	1(1)	1(0)	1(0)	-	-	-	-	-	-	-	-	-	-
일반 봉사단	백만원	2,768	19	145	181	228	230	255	367	285	140	148	188	259	324
	천불	2,794	25	183	224	283	298	317	386	204	118	131	145	207	272
	인원	230(83)	7(7)	16(9)	24(8)	24(7)	20(6)	21(9)	22(6)	19(2)	12(4)	10(4)	16(7)	18(7)	21(7)
협력 요원	백만원	714	-	-	-	-	36	46	117	246	73	62	73	33	28
	천불	625	-	-	-	-	47	57	123	176	61	55	57	27	24
	인원	77(26)	-	-	-	-	4(4)	7(3)	13(6)	17(4)	12(2)	10(4)	6(0)	5(1)	3(2)
개발 조사	백만원	214	-	-	-	-	-	-	-	-	-	-	-	196	18
	천불	172	-	-	-	-	-	-	-	-	-	-	-	157	15
	건수	2(1)	-	-	-	-	-	-	-	-	-	-	-	1(1)	1(0)
물자 공여	백만원	17	-	-	-	9	8	-	-	-	-	-	-	-	-
	천불	21	-	-	-	11	10	-	-	-	-	-	-	-	-
	건수	2	-	-	-	1	1	-	-	-	-	-	-	-	-
긴급 원조	백만원	148	-	148	-	-	-	-	-	-	-	-	-	-	-
	천불	188	-	188	-	-	-	-	-	-	-	-	-	-	-
	건수	1	-	1	-	-	-	-	-	-	-	-	-	-	-
프로 젝트	백만원	1,210	52	-	-	-	136	507	33	424	57	1	-	-	-
	천불	1,261	69	-	-	-	176	630	35	303	48	1	-	-	-
	건수	10(8)	1(1)	-	-	-	2(2)	3(3)	2(2)	1(0)	1(0)	-	-	-	-

□ 세부 협력실적

가. 연수생초청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1년	13과정 20명	63.6 (83.6)	컴퓨터활용3, 가공식품품질관리2, 산업재산권제도1, 다작영농기술1, 어로기술1, 간척지이용2, 잠업2, 행정능력개발2, 중견건설공무원연수1, 혈청검사1, 경제기획1, 수출진흥시찰1, 중소기업육성2
'92년	17과정 27명	79.6 (101.0)	조림 및 산림보호1, 미곡생산2, 작물생산기술1, 농촌개발1, 수출진흥1, 광물탐사1, 중소기업육성1, 산업재산권1, 직업훈련1, 과학기술1, 국가표준1, 경제기획1, 정보관리1, 식품보호1, 컴퓨터활용7, 가족계획1, 식물보호4
'93년	9과정 18명	54.2 (67.1)	컴퓨터활용 6, 농촌개발2, 잠업1, 사후관리1, 광물자원1, 거시경제2, 산업재산권1, 중소기업3, 비파괴검사1
'94년	18과정 34명	120.9 (150.4)	한국어교육2, 미곡생산1, 작물생산1, 비파괴검사1, 산업재산1, 국토개발1, 컴퓨터응용6, 축산1, 왕실사업단4, 해양조사2, 가공식품1, 환경보호2, 수산양식1, 과학기술2, R&D관리3, 국가표준제도1, TV프로그램2, ASEAN2
'95년	9과정 24명	90.3 (117.2)	컴퓨터응용(APSDEP)9, R&D관리(UNDP)3, 과학기술정책(UNDP) 3, 중소기업육성(Colombo Plan)2, 환경관리(싱가폴3국연수)1, 원자력(IAEA)2, 가공식품(UNDP)1, 해양조사(UNDP)2, 수출진흥(싱가폴3국연수)1
'96년	13과정 30명	116.5 (144.7)	가공식품품질관리2, 농촌개발과 농협경영1, 산림경영1, 수출진흥전략2, 수출진흥전략(한.싱공동연수)1, 여성과 보건2, 원자력(IAEA)2, 작물생산기술2, 컴퓨터응용(APSDEP)9, 해양환경보전2, 환경관리(한.싱공동연수)1, 환경보호기술3, R&D관리(UNDP)2
'97년	15과정 44명	176.9 (186.0)	WTO/UR 협정이행 2차(WTO)1, 경제기획과 산업개발 2차2, 과학기술정책2, 관개(한.이스라엘공동연수)8,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관리2, 광물자원탐사3, 산업재산권2, 에너지효율관리2, 원자력(IAEA) 1, 정보기술관리(한.싱공동연수)2, 직업훈련교사향상(APEC)7, 컴퓨터응용(APSDEP)6, 한국어교육1차2, 해양환경보존(IOC)2, 행정발전계획1차2
'98년	20과정 49명	201.2 (143.9)	21세기파트너쉽(ASEAN)2, 국토개발계획2, 기상예보1, 농촌개발 및 농협경영2, 메콩강지역직업훈련2, 범죄방지형사사범1, 산업재산권3, 수출진흥전략1, 잠업기술2, 한.싱통신정책2, 한.이관개개발8, 한국어교육3, 해운항만1, 환경보호기술3, APEC직업훈련5, APSDEP컴퓨터응용3, IAEA 원자력2, IOC 해양환경4, WTO1, 정보기술관리(한.싱 공동연수)1
'99년	23과정 48명	180.3 (151.5)	21세기파트너쉽(아세안1차)2/(아세안2차)3, 경제개발전략과 시장경제1차2, 과학기술정책(아세안)2, 국제통상 및 WTO협정1, 기상예보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범2, 산림관리2, 여성소규모창업2, 연구개발관리2, 잠업기술1, 원자력발전(IAEA)2, 지역개발정책2, 직업훈련교사기술향상(APEC)5, 한.싱 관광진흥3, 한국어2차2, 직업훈련기능검정제도(ILO)2, 환경시설관리2, 컴퓨터응용기술(APSDEP)3, 한.싱 통신정책(제3국)2, 해양환경보전2, 행정발전계획1차2, TV다큐멘타리제작(UNESCO)1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2000년	49과정 99명	410.8 (363.4)	컴퓨터응용기술(APSDEP) 2 명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APEC) 5 명 직업훈련 및 검정기능개발(ILO) 2 명 아세안 건축설계 2 아 세안 정보처리 1차 2 아세안 한국어교육 2 아세안 한국경제장기 1아세안 기술교육법 2 관광개발전략 2 아세안 정보처리 2차 2 의약품안전 2 생식보건 포럼(PPD) 2 수자원관리 2 산업재산권 제도 2 국가표준제도 1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1 국제통상 및 WTO협정 1 아세안 행정발전계획 3 아세안 경제산업 파트너쉽 2 아세안 중소기업 육성 3 아세안 농촌개발 3 아세안 새마을 운 동 2 아세안 외교통상 파트너쉽 2 아세안 교육문화 파트너쉽 2 관세행정 2 한.일 경제개발과 시장경제 2 기상예보 1 한.싱 해운 항만관리 2 한.싱 신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2 철도운영 현대화 1 TV 다큐멘터리제작(UNESCO) 1 아세안 전자상거래와 무역실무 2 아세안 정보통신기기운용(1) 1 아세안 정보통신망 구축 2 정보 기술관리 2 아세안 정보통신기기운용(2) 2 전력기술 2 아세안 한.싱 자본시장 3 자본시장육성 2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1아세안 축산 3 아세안 미곡생산 2 R&D관리 1 아세안 한.싱 관광개발 2 아세안 무역투자정책 3 아세안 한국의 무역정책과 인터넷무역 3 환경시설관리 3 한.일 수환경개선 2 해양환경보전(APEC) 2
2001년	57과정 107명	443.1 (343.3)	해양오염방제시뮬레이션 3, 해양환경보전(APEC) 2, 아세안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 2, 아세안 교육행정제도 2, 아세안 국가 표준제도 3, 아세안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1, 아세안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3, 아세안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2, 아세안 무역진 흥과 인터넷무역 2, 아세안 미곡생산 3, 아세안 자동화제어기술 2, 아세안 중소기업육성 3, 아세안 지식재산권제도 2, 아세안 직 훈 1차(전자,CNC) 2, 아세안 직훈 2차(CAD,CAM,자동차) 2, 아 세안 직훈 3차(인터넷 네트워크/웹디자인) 2, 아세안 청소년 파트 너쉽 2, 아세안 컴퓨터응용기술 2, 아세안 파트너쉽 1,2차 각2, 아세안 한국어교육 1, 아세안 CDMA 기술 2, 아세안 CDMA 기 술관리자 1, 아세안 E-business와 무역투자정책 2, 결핵관리 2, 관세기법 2,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사후관리 1, 교통정책 2, 국제 통상 및 WTO협정 2차(APEC) 1, 농업금융 및 농업협동조합 2, 농정개혁과 농촌개발 1,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1, 벼생산기술이 전(IRRI) 3, 보건의료정책개발 1, 산업개발정책과 산업구조조정 1, 수자원관리 1, 식품생명공학 2, 신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2, 아 시아 경제개발정책 2,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IAEA), 의약품안전 1, 자본시장육성 3, 작물생산기술사후관리 1, 전력기술 1, 전시,컨 벤션전문가약성 1, 중소기업환경경영기법 3, 지식재산권제도 1,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APEC) 5, 첨단기상기술예보 2, 컴퓨터응 용기술(APSDEP) 2, 한.싱수처리시설관리 2, 한.이작물관개기술 2, 한.일경제개발과 시장경제 2, 한.일호소수질관리(일측선발) 2, 한 국경제장기(아세안20, 일반10) 1, 한의학교육 1, 해상교통관제 2,

나. 전문가파견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2000년	2분야 5명 (신규5)	114.7(101.5)	수산양식(조규태/00.12.20~01.4.19/ 브라파 대학) 도시개발(고병호/00.6.20~00.9.4/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김태환/00.6.5~00.9.4/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임경수/00.12.13~01.3.12/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고병호/00.12.25~01.3.04/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2001년	3분야 3명 (신규2)	69.3(53.7)	바다양식(조규태/00.12.20~01.4.19/ 브라파대학교) 국제경제(강기원/01.12.12~02.6.11/ 수상실 국제업무국) 무역진흥전략(이진휴/01.10.17~02.1.16/ 상무부 국내무역부)
2002년	1분야 1명 (신규1)	22.8(18.2)	국제경제(김태기/02.6.24~9.23/ Asia Khon Kaen University)
2003년	1분야 2명 (신규2)	123.6(103.7)	공항전략(송동복/03.5.30~11.29/ 국가경제사회개발청) 공항전략(송동복/03.12.3~04.12.2/ 국가경제사회개발청)
계	10명 (신규기준)	330.4(277)	

다. 태권도사범파견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1년	1분야 1명 (신규1)	13.0(17.1)	송기영(1988-04-01~1993-03-31)
'92년	1분야 1명 (계속1)	28.5(36.2)	송기영(1988-04-01~1993-03-31)
'93년	1분야 1명 (계속1)	19.7(24.4)	송기영(1988-04-01~1993-03-31)
계	1명(신규기준)	61.3(77.7)	

라. 일반봉사단파견

단위 :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1년	5분야7명 (신규7)	19.1 (25.0)	<2기> 컴퓨터1, 체육교육2, 수공예1, 한국어2, 유아교육1
'92년	9분야16명 (신규9명)	144.6 (183.4)	<2기> 컴퓨터1, 체육교육2, 수공예1, 한국어2, 유아교육1 <3기> 컴퓨터1, 전자공학1, 자동차정비1, 시청각미디어1, 체육교육1, 한국어2, 유아교육1, 지역개발1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3년	12분야24명 (신규8명)	181.3 (224.4)	<2기> 컴퓨터1, 체육교육2, 수공예1, 한국어2, 유아교육1 <3기> 컴퓨터1, 전자공학1, 자동차정비1, 시청각미디어1, 체육교육1, 한국어2, 육아교육1, 지역개발1 <4기> 컴퓨터1, 토양1, 체육교육1, 지역개발1, 한국어1, 육아교육1, 축산1, 양잠1
'94년	11분야24명 (신규7명)	227.8 (283.4)	<3기> 컴퓨터1, 전자공학1, 자동차정비1, 시청각미디어1, 체육교육1, 한국어2, 육아교육1, 지역개발1 <4기> 컴퓨터1, 토양1, 체육교육1, 지역개발1, 한국어1, 육아교육1, 축산1, 양잠1 <5기> 컴퓨터1, 전자공학1, 자동차정비1, 지역개발1, 체육교육1, 한국어2
'95년	11분야20명 (신규6명)	230.0 (298.2)	<4기> 컴퓨터1, 토양1, 체육교육1, 지역개발1, 한국어1, 육아교육1, 축산1, 양잠1 <5기> 컴퓨터1, 전자공학1, 자동차정비1, 체육교육1, 한국어2 <6기> 한국어3, 전기공학1, 지역개발2
'96년	7분야21명 (신규9명)	254.8 (316.7)	<5기> 컴퓨터1, 전자공학1, 자동차정비1, 체육교육1, 한국어2 <6기> 한국어3, 전기공학1, 지역개발2 <7기> 한국어4, 지역개발3, 컴퓨터1, 체육교육1
'97년	5분야22명 (신규6명)	367.4 (386.3)	<5기> 한국어1 <6기> 한국어3, 전기공학1, 지역개발2 <7기> 한국어4, 지역개발3, 컴퓨터1, 체육교육1 <8기> 한국어5, 컴퓨터1
'98년	6분야19명 (신규2명)	285.3 (204.0)	<6기> 한국어1, 지역개발1 <7기> 한국어4, 지역개발3, 컴퓨터1, 체육교육1 <8기> 한국어5, 컴퓨터1 <9기> 한국어1, 태권도1
'99년	3분야12명 (신규4명)	139.8 (117.6)	<8기> 한국어5, 컴퓨터1 <9기> 한국어1, 태권도1 <10기> 한국어3, 컴퓨터1
2000년	3분야10명 (신규4명)	148.0 (130.9)	<9기> 한국어1, 태권도1 <10기> 한국어3, 컴퓨터1 <11기> 한국어3, 컴퓨터1
2001년	4분야16명 (신규7명)	187.5 (145.3)	<9기> 태권도1 <10기> 한국어3, 컴퓨터1 <11기> 한국어3, 컴퓨터1 <12기> 컴퓨터1, 한국어5, 지역개발1
2002년	5분야 18명 (신규7)	258.7 (206.8)	<11기> 한국어3, 컴퓨터1 <12기> 컴퓨터1, 한국어5, 지역개발1 <14기> 컴퓨터3, 한국어2, 태권도1, 국악1
2003년	5분야 21명 (신규7)	323.7 (271.6)	<11기> 한국어1 <12기> 컴퓨터1, 한국어4, 지역개발1 <14기> 컴퓨터3, 한국어2, 태권도1, 국악1 <16기> 한국어7
계	83명 (신규기준)	2,768.1 (2,793.5)	

마. 협력요원파견

단위 :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5년	3분야4명 (신규4명)	36.0(46.8)	<1기> 컴퓨터2, 한국어1, 전자공학1
'96년	4분야7명 (신규3명)	45.9(57.0)	<1기> 컴퓨터2, 한국어1, 전자공학1 <2기> 컴퓨터1, 체육교육2
'97년	4분야13명 (신규6명)	116.9(122.9)	<1기> 컴퓨터2, 한국어1, 전자공학1 <2기> 컴퓨터1, 체육교육2 <3기> 한국어3, 컴퓨터3
'98년	5분야17명 (신규4명)	246.1(175.9)	<1기> 컴퓨터2, 한국어1, 전자공학1 <2기> 컴퓨터1, 체육교육2 <3기> 한국어3, 컴퓨터3 <4기> 컴퓨터2, 전기공학1, 한국어1
'99년	5분야12명 (신규2명)	72.7(61.1)	<3기> 한국어3, 컴퓨터3 <4기> 컴퓨터2, 전기공학1, 한국어1 <5기> 체육교육1, 컴퓨터1
2000년	8분야10명 (신규4명)	61.8(54.7)	<4기> 컴퓨터2, 전기공학1, 한국어1 <5기> 체육교육1, 컴퓨터1 <6기> 수산양식1, 축산1, 수의과1, 원예1
2001년	6분야6명 (신규없음)	73.3(56.7)	<5기> 체육교육1, 컴퓨터1 <6기> 수산양식1, 축산1, 수의과1, 원예1
2002년	5분야 5명 (신규1)	33.3(26.6)	<6기> 수산양식1, 축산1, 수의과1, 원예1 <8기> 체육교육1
2003년	3분야 3명 (신규2)	28.2(23.7)	<8기> 체육교육1 <10기> 전자공학1, 컴퓨터1
계	26명 (신규기준)	714.2(625.4)	

바. 개발조사

단위 : 백만원(천불)

사 업 명	계	2002	2003
계	1건	1(1)건	1(0)건
	214.2	196.2	18.0
	(171.9)	(156.8)	(15.1)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 퇴치지원 (‘02-’06/2,500천불)	214.2	196.2	18.0
	(171.9)	(156.8)	(15.1)

사. 물자지원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 원 내 역	비 고
'94년	9.2(11.4)	소규모프로젝트 지원(봉사단 Zn cubator, Hot air oven등,현금지원<4987천원>)	
'95년	7.7(10.0)	Rajamanagala기술대학에 AC SERVO MOTOR를 이용한 X-YPLOTTER제작에 소요될 전자부품	
계	16.9(21.5)		

아. 긴급원조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 원 내 역	비 고
'92년	148.0(187.7)	난민원조 (수원국 내)	
계	148.0(187.7)		

자. 프로젝트사업

단위: 백만원(천불)

사업명(기간/예산)	계	91	95	96	97	98	99	00
계	8건(신규) 1,210.2 (1,261.5)	1(1)건 52.2 (68.6)	2(2)건 135.5 (175.8)	3(3)건 507 (630)	2(2)건 33.3 (35.0)	2(0)건 423.6 (302.8)	1(0)건 57.5 (48.3)	- 1.1 (0.9)
태국 시범농장 (‘89-’92/280천불)	52.2 (68.6)	52.2 (68.6)	- -	- -	- -	- -	- -	- -
출라롱콘대 한국어센터 (‘95/100천불)	78.9 (99.6)	- -	67.8 (87.9)	- -	11.1 (11.7)	- -	- -	- -
찬드라카셈사대 한국어센터 설립사업 (‘95/100천불)	67.7 (87.9)	- -	67.7 (87.9)	- -	- -	- -	- -	- -
벽지지역 학생복지 향상(‘95-’96/350천불)	275.7 (339.8)	- -	- -	265.2 (329.5)	7.1 (7.4)	- -	3.4 (2.9)	- -
송클라대학 한국어센터설립 지원 (‘96/100천불)	162.7 (202.2)	- -	- -	162.7 (202.2)	- -	- -	- -	- -
농경지수원개발사업 (‘96/100천불)	79.1 (98.3)	- -	- -	79.1 (98.3)	- -	- -	- -	- -
치앙마이대학 한국어 센터건립(‘97/100천불)	169 (208.9)	- -	- -	- -	6.2 (6.6)	162.8 (202.3)		- -
영농개발지원 (‘97-’99/400천불)	486.6 (357.5)	- -	- -	- -	8.9 (9.3)	423.6 (302.8)	54.1 (45.4)	

영농개발지원 2차 (사전조사만 실시)	1.1	-	-	-	-	-	-	1.1
	(0.9)	-	-	-	-	-	-	(0.9)

<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명	지원내역 등
태국 시범농장 (‘89-’92/280천불)	o R/D 체결일자: 1992-02-07 o 기자재공여 : 종자, 비료, 농약 작물재배 등
출라롱콘대 한국어센터 (‘95/100천불)	o R/D 체결일자: 1995-12-22 o 기자재공여 : Headset등 어학실습기자재 지원/설치
찬드라카셈사대 한국어센터 설립사업 (‘95/100천불)	o R/D 체결일자: 1995-12-22 o 기자재공여: 67.0(86.9) - 품목/수량: Headset등 어학실습기자재 지원/설치
벽지지역 학생복지 향상 프로젝트 (‘95-’96/350천불)	o R/D 체결일자: 1995-12-22 o 기자재공여 : OHP3대, 미니버스2대, 컴퓨터44대, LCD프로젝터 3대, HDD, FDD키보드 등
송클라대학 한국어센터설립 지원 (‘96/100천불)	o R/D 체결일자: 1996-12-27 o 기자재공여 : 어학실습용 기자재 34종
농경지수원개발사업 (‘96/100천불)	o R/D 체결일자: 1995-12-22
치앙마이대학 한국어센터건립 (‘97/100천불)	o R/D 체결일자: 1997-01-01 o 기자재공여 : 어학실습용 기자재 학습용 기자재
영농개발지원 (‘97-’99/400천불)	o R/D 체결일자: 1997-06-23 o 기자재공여 : 관리기 등 영농기자재 및 씨앗, 비료 등 영농자재, Power Tiller 3대 o 전문가파견 : 영농분야/농진공 o 연수생초청 : 영농기법과정, 연수기관: 농진공

다. 필리핀

2004년도 사업규모는 4,632.4천불로 전체 122개국 중 공여순위 4위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수생초청 : 43과정 97명 393.2천불

- 관세행정기법, 필리핀 경제개발정책, 환경보호정책, 한의학제도 등

- ☐ 전문가파견 : 2분야 2명 54.2천불
 - 잠업 1명(3개월), 농기계 1명(3개월)
- ☐ 봉사단파견 : 총61명(신규 41명) 1,600.8천불
- ☐ 개발조사 : 1건
 -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예방 및 퇴치백신 연구사업('02-'06, 2,500천불)
- ☐ 프로젝트 : 2건 2,510천불
 -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510천불 ('03-'05년, 5,000천불)
 - 정보기술훈련원 건립사업 2,000천불('03-'05년, 5,000천불)
- ☐ NGO 지원 : 2건 74.2천불
 - 민다나오지역 소외계층 구호 및 어린이교육지원사업 (한국제이티에스, 35천불)
 - 결핵퇴치 지원사업(선한사람들, 39.2천불)

한편,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필리핀 지원실적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 ☐ 13년간 총 US\$19,344.2천불 지원 / 연평균 US\$1,488천불
 - 연수생 951명, 전문가 15명, 봉사단 93명(일반단원 62명, 협력요원 31명), 개발조사 6건 1,881.5천불, 물자지원 949.3천불, 긴급원조 219.5천불, 프로젝트 5건 8,723.9천불, NGO지원 507.8천불

(단위 :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462.5	687.7	930.0	759.1	914.3	850.4	654.9	509.3	539.4	2,223.4	3,038.4	1,811.1	5,693.9
순위	2 /120	3 /128	4 /133	6 /143	8 /139	13 /140	22 /139	21 /126	12 /128	3 /133	3 /138	6 /142	3 /130

□ 연도별 사업별 종합실적

사업	구분	합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총 지원 액	백만원	21,432	352	542	752	610	705	684	623	712	642	2,514	3,922	2,266	7,108
	천불	19,344	463	688	930	759	914	850	655	509	539	2,223	3,038	1,811	5,964
연수생	백만원	4,143	87	87	84	128	183	146	191	218	251	632	601	852	683
	천불	3,752	115	111	104	159	237	181	201	156	211	559	466	681	573
	인원	951	29	29	22	36	49	39	52	57	58	130	155	154	141
전문가	백만원	193	3	12	6	5	13	-	-	-	36	33	69	-	15
	천불	176	4	15	8	6	17	-	-	-	30	29	54	-	13
	인원	15(15)	1	3	1	1	3	-	-	-	2	1	2	0	1
일반 봉사단	백만원	2,351	83	166	174	167	194	200	184	150	103	115	186	290	339
	천불	2,391	109	210	215	208	252	248	193	107	87	102	144	232	285
	인원	165(62)	10	18	16	15	12	13	11	10	6	7	14	16	17
협력 요원	백만원	853	-	-	-	-	36	54	81	188	101	84	88	98	123
	천불	742	-	-	-	-	47	67	85	135	85	75	68	78	103
	인원	83(31)	-	-	-	-	4	4	9	13	11	10	9	11	12
개발 조사	백만원	1,962		125	429	99			64	108	89		10	732	305
	천불	1,882		159	531	123			67	77	75		8	585	256
	건수	13(6)	-	1(1)	3(2)	2(0)	-	-	1(1)	1(0)	1(0)	-	-	2(2)	2(0)
물자 공여	백만원	844	141	113	58	211	9	11	53	17	3	91	-	137	-
	천불	949	186	143	72	263	12	14	56	12	2	80	-	109	-
	건수	13	1	1	2	1	2	1	1	1	1	1	0	1	0

긴급 원조	백만원	207	37	39			23					56	26	-	24
	천불	220	49	50			30					50	20	-	20
	건수	6	1	1	-	-	1					1	1	-	1
프로 젝트	백만원	10,290	-	-	-	-	202	270	10	-	23	1,441	2,753	39	5,551
	천불	8,724	-	-	-	-	262	335	10	-	20	1,275	2,133	32	4,657
	건수	9(5)	-	-	-	-	1(1)	2(1)	1(0)	-	1(1)	1(0)	1(0)	-	2(2)
NGO	백만원	590	-	-	-	-	44	4	41	31	36	62	188	118	67
	천불	508	-	-	-	-	57	4	43	22	30	55	146	94	56
	건수	19	-	-	-	-	2	1	2	2	2	2	3	3	2

□ 사업별 세부실적

가. 연수생초청사업

단위 :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1년	16과정 29명	87.5 (114.9)	컴퓨터활용과정 3, 가공식품품질관리 1, 건설기술자훈련 2, 식품개발연구 1, 한비지원협력 광물분야 3, 산업재산권제도 1, 육림 및 산림보호 1, 간척지이용 1, 고위정책입안자연수 1, 중견건설공무원연수 1, 기술개발 및 이전전략 1, 행정능력개발 2, 수출진흥시찰 1, 경제기획 1, 필리핀 농지개혁 7, 혈청검사 2
'92년	20과정 29명	87.1 (110.5)	조림 및 산림보호 1, 미곡생산 1, 농촌개발 1, 수출진흥 1, 행정능력개발 2, 광물탐사 3, 어로 1, 잠업 2, 산업재산권 1, 국토개발 1, 직업훈련 2, 국가표준 1, 건설기술자 1, 경제기획 1, 광선치료 1, 비파괴검사 1, 식품발효 1, 새마을교육 1, 컴퓨터활용 1, 가족계획 2, 식물보호 3
'93년	15과정 22명	83.8 (103.7)	수출진흥 1, 전자제품 1, 국가표준 1, 작물생산 1, 잠업 2, 사후관리 1, 행정능력 1, 거시경제 1, 국토개발 2, 기초직업훈련 2, 산업재산권 1, 비파괴검사 2, 중소기업 2, 한국어 2, 정보관리 2
'94년	22과정 36명	127.8 (159.1)	기초직훈 1, 전자수리 1, 자동차정비 1, 한국어교육 1, 미곡생산 1, 작물생산 2, 비파괴검사 1, 가족계획 1, 산업재산 1, 광물탐사 2, 컴퓨터응용 4, 국토개발 2, 새마을 2, 수산양식 1, 중소기업 1, 가공식품 2, 환경보호 2, 과학기술 2, R&D관리 3, 건설 2, ASEAN 2, 어로 1
'95년	22과정 49명	182.7 (237.0)	자동차정비 2, 컴퓨터응용(APSDEP) 3, 한국어 2, 가족계획(UNFPA) 1, 행정발전 2, R&D관리(UNDP) 2, 과학기술정책(UNDP) 2, 국가표준제도 3, 중소기업육성(Colombo Plan) 2, 산업재산권 3, 환경기술보호 2, 에너지관리 2, 원자력(IAEA) 2, 미곡생산 2, 어로수산양식 2, 작물생산 2, 잠업 4, 가공식품(UNDP) 2, 광물자원탐사 3, 해양조사(UNDP) 2, 수출진흥 2, 수출진흥(싱가폴3국연수) 2
'96년	20과정 39명	145.6 (180.9)	가족계획과 지역사회개발(UNFPA) 2, 가족계획과 보건사후관리 Workshop 2, 결핵퇴치 2, 과학기술정책(UNDP) 2,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2, 농촌개발과 농협경영 2, 산림경영 1, 새마을운동(AARRO) 2, 어로수산양식 2, 여성과 보건 2, 원자력(IAEA) 1, 자동차기술 2, 작물생산기술 2, 잠업 3, 축산기술 2, 한국어교육 2, 해양환경보전 2, 행정발전계획 2, 환경관리(한.싱가폴공동연수) 2, R&D관리(UNDP) 2
'97년	23과정 52명	190.8 (200.6)	WTO/UR 협정이행 2차(WTO) 1, 원자력(IAEA) 1, 가족계획과 보건(UNFPA) 2, 광물자원탐사 2, 국가표준제도 2, 국토개발계획 2, 농산물유통 2, 산림경영 2, 산업재산권 2, 어로수산양식 2, 자동차정비 2, 작물생산기술 2, 전력기술 2, 정보기술관리(한.싱가폴공동연수) 2, 조세(OECD) 2, 중소기업육성 2, 축산기술 2, 해양환경보전(IOC) 2, 행정발전계획 1차 2, R&D관리 2, 잠업 3, 환경보호기술 4, 직업훈련교사향상(APEC) 7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8년	25과정 57명	218.3 (156.0)	21세기 파트너쉽(ASEAN) 2, 가공식품품질관리 4, 가족계획 1, 경제기획과 산업발전(2차) 2,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1, 관광개발 및 관리(한.싱 공동연수) 1, 국가표준제도 5, 국토개발계획 2, 기상예보 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1, 산림관리 2, 산업재산권제도 2, 수출진흥전략 1, 작물생산 2, 잠업 4, 전력기술 3, 정보기술관리(한.싱) 2, 중소기업육성(1차) 1, 축산 2, 한싱 통신정책 2, 해운항만 2, 환경보호기술 3, AARRO새마을운동 2, IAEA원자력 2, IOC해양환경3, R&D 관리2, WTO 1
'99년	31과정 58명	251.2 (211.2)	21세기파트너쉽(아세안 1차) 2, 21세기파트너쉽(아세안 2차) 2, 가공식품 품질관리 2, 결핵퇴치 2, 경제개발전략과 시장경제1차 2, 과학기술정책(아세안) 1, 국제통상 및 WTO협정 1, 기상예보 2, 농업정책 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1, 사후관리(행정발전계획) 4, 산림관리 2, 산업재산권제도 2, 생식보건과 가족계획 2, 여성 소규모 창업 2, 연구개발관리 2, 원자력발전(IAEA) 1, 잠업기술 1, 중소기업육성 2,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APEC) 4, 직업훈련기능검정제도(ILO)2, 한국어 2차 2, 컴퓨터응용기술(APSDEP) 2, 한국경제장기 2차 1, 한싱 관광진흥 2, 한싱 항만운영(제3국) 1, 해양오염방제 2, 해양환경보전 2, 해운항만관리 2, 환경시설관리 2, TV다큐멘타리제작(UNESCO) 1
2000년	62과정 130명	631.8 (558.8)	컴퓨터응용기술 2,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APEC) 2, 직업훈련 및 검정기능개발(ILO) 2, 아세안 직훈2차 4, 아세안 건축설계 3, 아세안 정보처리 1차 3, 아세안 한국어교육 2, 아세안 한국경제장기 2, 아세안 직훈3차 4, 아세안 기술교육법 3, 아세안 직훈1차 4, 관광개발전략 2, 아세안 정보처리2차 3, 산업디자인 1, 보건의료정책개발 1, 의약품안전 2, 가족계획과 생식보건 2, 생식보건 포럼 2, 산업재산권 제도 1, 국가표준제도 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2, 아세안 행정발전계획 3, 아세안 경제산업 파트너쉽 2, 아세안 중소기업육성 3, 아세안 농촌개발 3, 아세안 지방행정 4, 아세안 새마을운동 3, 아세안 외교통상 파트너쉽 1, 아세안 교육문화 파트너쉽 2, 국가행정과 개발전략 2, 한일경제개발과 시장경제 2, 기상예보 1, TV 다큐멘타리제작 1, 아세안 전자상거래와 무역실무 3, 아세안 정보통신기기운용(1) 아세안 정보 통신망 구축 2, 아세안 정보통신기기운용(2) 1,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1, 전력기술 1, 아세안 한싱 자본시장 1, 작물생산기술 3,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2, 잠업기술 2, 산림관리 1, 농업금융 2, 아세안 축산 4, 아세안 미곡생산 3, 잠업기술 사후관리 2, 어로기술 사후관리 2,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1, 과학기술정책 1, R&D관리 1, 아세안 한싱관광개발 2, 아세안 무역투자정책 3, 한싱해운항만관리 2, 한싱 신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2, 아세안 한국의 무역정책과 인터넷 2, 환경보호기술 1, 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 2, 환경시설관리 2, 한일 수환경개선 2, 새마을운동 1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2001년	50과정 155명	601.2 (465.8)	컴퓨터 응용기술(APSDEP)1, 아세안 한국어교육3, 한국경제 장기1, 아세안 전자 직업훈련1차2, 아세안 컴퓨터 응용기술3, 아세안 자동화 제어기술3, 아세안 CAD/CAM 직훈2, 아세안 인터넷 네트워크4, 결핵관리2, 의약품 안전1, 한의학 교육1, 가족계획과 생식보건1, 수자원 관리1, 아세안 국가표준제도3,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1, 지방행정2, 조세제도 및 행정1, 한일 경제개발전략과 시장경제3, 아세안 파트너쉽1차1, 아세안 교육행정제도2, 아세안 지식재산권제도3, 아시아 경제개발정책3, 관세기법2, 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1, 지식재산권제도1, 신도시개발 및 도시정비1, 아세안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2, 한성 위성항행시스템2, 해상교통관제1, 아세안 CDMA 기술관리자4, 아세안 CDMA기술2, 아세안 필리핀 정보통신15, 아세안 마이크로프로세스 응용4, 전시.컨벤션 전문가 양성1, 전력기술2,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IAEA)1, 아세안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2, 관개개발과 농업용수 관리3, 농업금융 및 농업협동조합3, 아세안 미곡생산기술3, 농정개혁과 농촌개발2, 아세안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4, 한이 작물관개 기술3, 작물생산기술 사후관리2, 농촌개발과 새마을 운동2, 식품생명공학2, 첨단기상기술예보2,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사후관리1, 정보화시대 산업디자인 정책3, 아세안 중소기업 육성4, 과학기술정책2, 관광개발 전략2, 아세안 무역진흥과 인터넷무역 3, 아세안 E-Business와 무역투자진흥4, 국제통상 및 WTO협정1차2, 국제통상 및 WTO협정2차2, 해양오염 방제 시뮬레이션3, 해양환경보전(APEC)1, 한성 수처리시설 관리3, 한일 호소수질 관리1, 중소기업 환경경영기법4, 아세안 파트너쉽2차4, 연수생초청 Workshop 1, 아세안 청소년 파트너쉽4
2002년	62과정 154명	851.8 (680.8)	컴퓨터응용기술(APSDEP)4, 한국경제장기2, 아세안직훈1차(전자/CNC)3, 자동화제어기술2, 아세안직훈2차(CAD/CAM,냉동)3, 아세안한국어교육3, 교육정책과 교육개혁2, 한의학제도와 전통의학발전2, 결핵관리2, 수자원관리1,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1, 교통정책2, 지방행정2, 국제형사사법 파트너쉽1, 지식재산권제도 사후관리3, 필리핀 경제개발정책관리15, 공무원 교육훈련발전2, 한국경제발전과 성장전략과정1, 정보화시대의 산업디자인정책2, 한.일 경제개발정책2, 중소기업육성 사후관리2, 아시아 주택보급정책기술2, 한.성 신도시개발과 도시정비2, 가축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2, 해상교통관제2, 전방향무선표지시설보수2, 아시아 위성항행시스템2, 물류혁신전략2, 마이크로프로세서운영2, 전시컨벤션운영2, IT인턴쉽1차(전자상거래)3, 2차(광전송기술)2, 3차(초고속정보통신)3, 4차(멀티미디어콘텐츠)3, 5차(네트워킹)3, CDMA 통신기술1,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IAEA)1,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산림관리 사후관리2, 원예재배기술2, 미곡생산기술2, 필리핀 농산물 유통정책15, 아시아 기상예보2,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1, 과학기술정책1, 기상기술정책1, 아세안 국제표준화 적합성 평가구축2, 무역투자진흥3, 아시아 국제통상 및 WTO협정2, 아시아 수출진흥전략3, 한·싱 무역진흥과 인터넷무역2, 한·싱 관광정책 및 마케팅전략4, 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2, 한·일 호소수질관리2, 아시아 폐하수처리시설관리2, 아시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기술2, 환경영향평가기술(APEC)2, 아시아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3, 새마을운동(AARDO)1, 아세안 파트너쉽2, BIE파트너쉽2, 아시아 여성개발 파트너쉽1, 아.태 청소년파트너쉽2
2003년	141명	683.2 (573.2)	가족계획과 생식보건2, 결핵관리2, 경쟁법정책과 경제발전워크샵2, 공무원행정발전계획2, 과학기술정책2,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관리1, 관세기법1, 교육정책과 교육개혁2,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1,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2, 기상기술예보2,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경영1, 대기오염방지기술2,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2, 무역투자진흥1, 물류혁신전략3,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1, 병원관리 및 제도운영2, 보건의료정책1, 사막화방지1, 싸이클로토론 및 RI의 의학적이용2, 아.태 청소년파트너쉽2, 아.태지역 여성 IT기술교육3, 아세안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3, 아세안 국제표준화적합성평가구축2, 아세안 미곡생산기술3, 아세안 중소기업육성2, 아세안 직훈1차(CNC/전자)2, 직훈2차(CAD/CAM, 컴퓨터그래픽)3, 아세안 파트너쉽2, 아시아 대전력·고전압 시험기술2, 아시아 산업보건1, 아시아 소각시설운영 및 대기오염관리2, 아시아 여성개발 파트너쉽2, 아시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기술2, 아시아 주택보급정책 및 제도2, 아시아 폐하수처리시설관리1, 아시아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기술2, 어로기술1, 에너지기술전문인력1, 연안수산업양식1, 원예재배기술2, 웹디자인고급과정(가상현실디자인)1, 위성항행시스템2, 의약품안전1, 자동화제어기술1, 자본시장육성정책1, 전력기술1, 전방향무선표지시설3, 전시.컨벤션운영1, 정보화시대의 산업디자인정책2, 지방행정3, 지식재산권제도1, 철도운영현대화1, 한국어교육3차(아세안)1, 한의학제도와 전통의학발전2, 해양오염방제시뮬레이션2, 해양환경보전(APEC)2, 해운항만정책1, 행정정보화관리1, E-Business와 무역투자진흥1, IT인턴쉽1차(전자상거래)2, 2차(광전송기술)1, 3차(초고속정보통신)2, 4차(멀티미디어콘텐츠)3, 5차(네트워킹)3 등
계	총951명	4,142.8 (3,752.4)	

나. 전문가파견

단위 :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1년	1분야 1명 (신규1)	3.2(4.2)	암석(신희순/91.11.1~91.11.30)
'92년	2분야 3명 (신규3)	12.0(15.3)	암석(박철환/92.9.6~92.10.9/ 광업소) 공공행정(박상덕/92.8.16~92.9.26/ 지방행정연수원) (김순은/92.8.5~92.9.18/ 지방행정연수원)
'93년	1분야 1명 (신규1)	6.4(8.0)	암석(정태진/93.8.14~93.9.13)
'94년	1분야 1명 (신규1)	4.8(5.9)	수산양식(류홍수/94.11.7~94.11.25)
'95년	2분야 3명 (신규3)	13.1(17.0)	광물자원탐사(박영수/95.10.30~95.11.28) 식품공학1(정대성/95.11.15~95.12.14) 식품공학2(김정상/95.12.1~95.12.15)
'99년	2분야 2명 (신규2)	35.8(30.1)	해양오염(박철/99.11.13~99.12.12/ 광산지구과학청) 투자진흥(전애자/99.7.26~00.1.25/ 투자청)
2000년	1분야 1명 (신규1)	32.6(28.8)	직업훈련(권영안/00.7.10~01.1.9/ 기술교육개발청)
2001년	2분야 2명 (신규2)	69.4(53.7)	도로건설(성익현/01.12.11~02.6.10/ 기술교육개발청) 직업훈련(최성식/01.6.16~01.12.15/ 기술교육개발청)
2003년	1분야 1명 (신규1)	15.4(12.9)	식품공학(권영안/03.6.26~03.8.31/ 무역산업부)
계	15명(신규기준)	192.6(175.8)	

다. 일반봉사단파견

단위 :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1년	8분야 10명 (신규10)	82.8(108.9)	<1기>교육일반1, 유아교육1, 잠업1, 축산3, 요업1 <2기>인구복지1, 간호1, 식품공학
'92년	11분야 18명 (신규8)	165.9(210.4)	<1기>교육일반1, 유아교육1, 잠업1, 축산3, 요업1 <2기>인구복지1, 간호1, 식품공학1 <3기>교육일반1, 간호1, 지역개발1, 미곡생산1, 잠업1, 축산1, 요업1, 물리치료1
'93년	15분야 16명 (신규5)	173.8(215.0)	<2기>인구복지1, 간호1, 식품공학1 <3기>교육일반1, 간호1, 지역개발1, 미곡생산1, 잠업1, 축산1, 요업1, 물리치료1 <4기>컴퓨터1, 임업1, 전기공학1, 식품공학1, 체육 교육1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4년	13분야 15명 (신규4)	167.0(207.9)	<3기>간호1, 미곡생산1, 잠업1, 축산1, 물리치료1, 지역개발 <4기>컴퓨터1, 임업1, 전기공학1, 식품공학1, 체육교육1 <5기>컴퓨터1, 주형1, 작물생산2
'95년	9분야 12명 (신규3)	194.0(251.6)	<4기>컴퓨터1, 임업1, 전기공학1, 식품공학1, 체육교육1 <5기>컴퓨터1, 주형1, 작물생산2 <6기>수산양식1, 축산1, 작물생산1
'96년	8분야 13명 (신규4)	199.7(248.1)	<4기>임업1, 전기공학1, 식품공학1 <5기>컴퓨터1, 주형1, 작물생산1 <6기>수산양식1, 축산1, 작물생산1 <7기>축산1, 작물생산1, 컴퓨터2
'97년	6분야 11명 (신규4)	183.7(193.1)	<6기>수산양식1, 축산1, 작물생산1 <7기>축산1, 작물생산1, 컴퓨터2 <8기>축산2, 원예1, 한국어1
'98년	6분야 10명 (신규1)	150.2(107.4)	<6기>수산양식1, 축산1 <7기>축산1, 작물생산1, 컴퓨터2 <8기>축산2, 한국어1 <9기>원예1
'99년	4분야 6명 (신규2)	102.9(86.5)	<8기>축산2, 한국어1 <9기>원예1 <10기>컴퓨터2
2000년	6분야 7명 (신규4)	115.2(101.9)	<9기>원예1 <10기>컴퓨터2 <11기>축산1, 간호1, 공중보건1, 임상병리1
2001년	9분야 14명 (신규8)	186.1(144.2)	<10기>컴퓨터2 <11기>축산1, 간호1, 공중보건1, 임상병리1 <12기>컴퓨터1, 과학기술정책1, 작물생산2, 지역개발2, 용접2
2002년	9분야 16명 (신규4)	290.1(231.9)	<11기>축산1, 공중보건1, 간호1, 임상병리1 <13기>컴퓨터1, 작물생산2, 용접2, 지역개발2, 과학기술정책1 <15기>간호1, 컴퓨터2, 축산1
2003년	7분야 17명 (신규5)	339.2(284.6)	<13기>컴퓨터1, 작물생산2, 용접2, 지역개발2, 과학기술정책1 <15기>간호1, 컴퓨터2, 축산1 <17기>컴퓨터3, 작물생산1, 축산1
계	총62명 (신규기준)	2,011.5 (2,106.9)	

라. 협력요원 파견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5년	3분야 4명 (신규4)	36.0(46.8)	<1기>컴퓨터2, 기계1, 전자공학1
'96년	3분야 4명 (신규0)	54.1(67.3)	<1기>컴퓨터2, 기계1, 전자공학1
'97년	3분야 9명 (신규5)	80.9(85.1)	<1기>컴퓨터2, 기계1, 전자공학1 <3기>컴퓨터5
'98년	4분야 13명 (신규4)	188.2(134.5)	<1기>컴퓨터2, 기계1, 전자공학1 <3기>컴퓨터5 <4기>컴퓨터2, 전기공학1, 축산1
'99년	6분야 11명 (신규2)	100.7(84.7)	<3기>컴퓨터5 <4기>컴퓨터2, 전기공학1, 축산1 <5기>기계1, 작물생산1
2000년	8분야 10명 (신규4)	84.3(74.5)	<4기>컴퓨터2, 전기공학1, 축산1 <5기>기계1, 작물생산1 <6기>수산양식1, 수의과1, 축산1, 원예1
2001년	8분야 9명 (신규3)	88.0(68.2)	<5기>기계1, 작물생산1 <6기>수산양식1, 수의과1, 축산1, 원예1 <7기>컴퓨터1, 작물생산1, 전기공학1
2002년	8분야 11명 (신규4)	98.2(78.5)	<6기>축산1, 수산양식1, 수의과1, 원예1 <7기>컴퓨터1, 전기공학1, 작물생산1 <9기>컴퓨터1, 채소재배1, 축산1, 수의과1
2003년	7분야 12명 (신규5)	122.8(103)	<7기>컴퓨터1, 전기공학1, 작물생산1 <9기>컴퓨터1, 채소재배1, 축산1, 수의과1 <11기>컴퓨터3, 축산1, 원예1
계	총31명	853.2(742.5)	

마. 개발조사사업

(1)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천불)

사 업 명	계	92	93	94	97	98	99	01	02	03
계	6건	1(1)건	3(2)건	2(0)건	1(1)건	1(0)건	1(0)건	-	2(2)건	2(0)건
	924.8	125.2	429.2	99.2	64.0	108.0	89.0	10.2	731.9	305.1
	(1,040.6)	(158.8)	(531.1)	(123.5)	(67.3)	(77.2)	(74.8)	(7.9)	(584.9)	(256.0)
동부 비사야스 공단 조성 개발조사 (93-94/300천불)	236.4	12.2	185.4	38.8	-	-	-	-	-	-
	(293.3)	(15.6)	(229.4)	(48.3)	-	-	-	-	-	-
파나온섬 지질조사사업 (92-93/136천불)	113.8	112.9	0.9	-	-	-	-	-	-	-
	(144.3)	(143.2)	(1.1)	-	-	-	-	-	-	-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타당성조사 (93-94/374천불)	303.3	-	242.9	60.4	-	-	-	-	-	-
	(375.8)	-	(300.6)	(75.2)	-	-	-	-	-	-
수리가오 해저광물 탐사사업 (97-00/219천불)	261	-	-	-	64.0	108.0	89.0	-	-	-
	(219.3)	-	-	-	(67.3)	(77.2)	(74.8)	-	-	-
배전계통 개선 사전조사 (02-03/810천불)	10.2	-	-	-	-	-	-	10.2	535.7	10.2
	(7.9)	-	-	-	-	-	-	(7.9)	(428.1)	(7.9)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예방 및 퇴치백신 연구사업 (02-06/2,500천불)	10.2	-	-	-	-	-	-	-	196.2	10.2
	(7.9)	-	-	-	-	-	-	-	(156.8)	(7.9)

(2) 사업별 개요

단위 : 백만원(천불)

연 번	사업명 (조사기간)	주 요 내 용(목적 및 효과)	총사업비	용역업체
1	동부 비사야스지역 공단조성사업 (‘93.10-’94.7)	-비사야스지역 산업기지건설에 필요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필리핀 경제,산업 및 국토정책에 관한 정보획득	236.4 (293.3)	국토개발 연 구 원
2	바탄/말라야 가스터빈발전소 복합화력발전소 전환사업 (‘93.10-’94.4)	-가스터빈발전소를 가스터빈과 증기검용의 복합 화력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건 설공정 계획수립 -국내 발전플랜트 용역업체의 해외진출 기반확보	113.8 (144.3)	(주)한국 전력기술
3	파나온섬 지질조사 (‘93.2-’93.10)	-광물자원부존 유망지역인 파나온섬 지질조사,지 질도 및 지화학도 제작	303.3 (375.8)	한국자원 연구소

연 번	사업명 (조사기간)	주 요 내 용(목적 및 효과)	총사업비	용역업체
4	수리가오 북부해역 해저 광물조사 (‘97.12-’00.12)	-개발대상 광종 및 조사지역선정 후 해양지질,지 구물리 및 지화학탐사 -아국업체의 필리핀 해저광물자원개발 진출기반 조성	261 (219.3)	한국자원 연구소
5	배전계통 개선 타당성조사 (‘02.9-’03.12)	-단기적으로는 기존 배전계통의 효율성제고 방 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배전설비 의 개선 및 확충계획 수립	10.2 (7.9)	한국전력
6	아세안 6국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퇴치 (02-06)	-아세안 6국의 일본뇌염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백신연구개발		국제백신 연구소/ 식품의약 품안전청

바. 물자지원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 원 내 역	비 고
‘91년	141.3(185.7)	소나타 5대, 베스타 11대	
‘92년	112.6(142.8)	전기 및 기타	
‘93년	58.4(72.2)	트랙터1대, 컴퓨터1대, TV14대, 비디오14대 / 의료장비(병원용 침대등)7종	
‘94년	211.1(262.7)	소방차2대, 의료장비5종(14세트), 소규모프로젝트 지원(봉사단, 기자재)	
‘95년	9.4(12.1)	하드디스크, HDC Cable P.C부품(현금) / 양어장 건설기자재구입(현금),육묘장,상토제조장건설(현금)	
‘96년	11.5(14.3)	현대그레이스1대	
‘97년	53.3(56.0)	컴퓨터30대, 프린터10대, 전압조정기30대	
‘98년	16.5(11.8)	95~97지원차량 부품지원	
‘99년	2.6(2.2)	‘91사무관리(소나타부품 연료펌프, 연료필터, 오일 필터 등 7종 각 5개)	
2000년	90.8(80.3)	한국전 참전용사회(PEFTOK) 장학기금 지원	
2002년	136.6(109.2)	에쿠스2, 스타렉스2, 소나타2	
계	843.9(949.3)		

사. 긴급원조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 원 내 역	비 고
'91년	37.2(48.9)	재난구호금	
'92년	39.4(50.0)	화산피해구호금	
'95년	23.4(30.4)	태풍피해구호금	
2000년	56.4(49.9)	화산폭발 구호물품 5만불 (매트 500, 전지분유(1kg)3,500포, 세제(5kg)360포)	
2001년	26.1(20.2)	화산폭발구호금	
2003년	24.1(20.2)	산사태 구호지원	
계	206.6(219.5)		

아. 프로젝트

(1) 사업별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천불)

사업명(기간/예산)	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5건 4,699.5 (4,034.9)	1(1)건 202.1 (262.0)	2(1)건 269.9 (335.4)	1(0)건 9.7 (10.2)	1(0)건 0.4 (0.3)	1(1)건 23.5 (19.7)	1(0)건 1,441.0 (1,274.6)	1(0)건 2,752.9 (2,132.7)	- 39.4 (31.5)	2(2)건 5,551.2 (4,657.5)
잠업개발사업 (‘95~’96년/500천불)	364.9 (464.2)	202.1 (262.0)	161.7 (201.0)	1.1 (1.2)	- -	- -	- -	- -	- -	- -
세부 도로표지 설치사업 (‘96년/120천불)	101.8 (126.3)	- -	101.4 (126.0)	- -	0.4 (0.3)	- -	- -	- -	- -	- -
*한.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96년)	6.8 (8.4)	- -	6.8 (8.4)	- -	- -	- -	- -	- -	- -	- -
한.비 친선병원 건립사업 (‘99-2001/3,800천불)	4,290.5 (3,488.6)	- -	- -	8.6 (9.0)	- -	23.5 (19.7)	1,441.0 (1,274.6)	2,752.9 (2,132.7)	39.4 (31.5)	25.1 (21.1)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 훈련원 건립사업 (03-04/5,000천불)	5,426.2 (4,552.6)	- -	- -	- -	- -	- -	- -	- -	- -	5,426.2 (4,552.6)
한.필리핀 IT훈련원 건립사업 (03-05/5,000천불)	99.9 (83.8)	- -	- -	- -	- -	- -	- -	- -	- -	99.9 (83.8)

(2) 사업별 개요

단위: 백만원(천불)

분야	사업명 (기간/규모)	지원실적	지원내역 등
농림 수산	잠업개발사업 (‘95~’96년/ 500천불)	364.9 (464.2)	○목적 : 필리핀 양잠사업 활성화 및 누에생산증식 지원 ○추진경위 - ‘94.8 필리핀 정부 사업요청서 접수 - ‘95.9.19 R/D 체결 ○사업주관부처: 섬유산업개발청(FIDA) ○기자재공여: 197.1(255.6) - 95년 : 건전기4종, 소독기2종, 합사기2종, 연사기2종, 해사기2종, 건면채취기18종 - 96년 : 건조시, 건면채취기 등 6종 - 97년 : 온·습도계(사후관리 지원) ○연수생초청 : 96.10.7~11.6, 22명, 잠사곤충연구소 ○전문가 파견: 유근섭, 손해룡, 이상품, 정인모
운송 보관	세부시 공항도로 표지판 설치사업 (‘96년/120천불)	101.8 (126.3)	○목적 : 필리핀 제2의 도시인 Cebu시의 원활한 교통 및 관광도시화 지원, 공항에서 각 행선지역간 관광객 및 차량운행자에 대한 행선 안내 ○추진경위 - ‘95.8.4 필리핀정부 사업요청서 제출 - ‘96.10.27~29 사전조사(지역사무소장/10.27 R/D체결) ○사업주관부처: 세부시청, 세부시 교통공학관리소 ○지원방법 : 도로표지판제작비 송금(12만불, 12.9)후 사무소에서 도로표지판 32개 현지구입
직업 훈련	한.비직업훈련 원 건립(‘96년)	6.8 (8.4)	○사전조사 : 96.10.2~9
보건	한.비 친선병원 건립사업 (‘99~2001년/ 3,800천불)	4,226 (3,446)	○목적 : 의료인력 및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Cavite 주에 병원 건립을 통해 의료복지환경 개선 ○추진경위 - ‘96.11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대통령 방필시 라모스대통령과 추진합의 - ‘99.6.11-18 사전조사단 파견 - ‘99.9.13-17 실시협의조사 (9.16 R/D 체결) - ‘00.7.3 Arrangement 체결(대사-필측 외무장관) - ‘00.9.26 설계/감리업체(엄&이 사무소) 선정계약 - ‘01.4.19 필리핀 현지 Hanin건설과 건축공사계약 - ‘02.5.27 개원식(아로요대통령, 민형기총재 참석)

단위: 백만원(천불)

분야	사업명 (기간/규모)	지원실적	지원내역 등
보 건	한.비 친선병원 건립사업 (‘99~2001년/ 3,800천불)	4,226 (3,446)	○사업주관부처: 국가경제개발처(NEDA) 및 카비테주정부 ○병원신축 : 01.4.10~02.4.30 ○연수생초청(‘02.1.7~19, 5명) - 병원관리자과정(가족보건복지협회) ○기자재공여 : 산부인과/소아과 의료기자재(280여종) ○사업현장관리자파견 - 임춘규부장 (카비테 주정부, 01.9.11~02.4.30) - 상주감리인(엄앤이건축) 1명, 01.1~02.2 ○추가공사(사후관리) : 급배수시설 및 X-ray 통제실 (02.8.22-9.26) ○기자재공여(사후관리) - 인큐베이터1, Rotary Microtome1, Fetal monitor1, 소모품 6종(04.1.29선적, 2.15 기증)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 훈련원 건립사업 (03-04/5,000천불)	5,426.2 (4,552.6)	○사업주관부처 :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 ○직업훈련원 건축 : 파라다이스건설산업(주)
	한.필리핀 IT훈련원 건립사업 (03-05/5,000천불)	99.9(83.8)	○사업주관부처 :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

자. NGO 지원

단위: 백만원(천불)

연도	지원액		사업내용/지원내역
‘95년	44.3(57.4)	40.7(52.8)	산림가나안장학회/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사업
		3.6(4.4)	태평양.아시아협회/필리핀 자원봉사사업
‘96년	3.5(4.4)	3.5(4.4)	태평양.아시아협회/ 필리핀 자원봉사사업
‘97년	40.6(42.7)	20.3(21.3)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빈민층 사랑의 집짓기
		20.3(21.3)	산림가나안장학회/가나안 농군학교 부대시설 건축 및 교육 훈련
‘98년	30.8(22.0)	15.4(11.0)	가나안복민회/가나안 농군학교 건축 및 개발
		15.4(11.0)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
‘99년	35.9(30.2)	15.4(12.9)	가나안복민회/가나안 농군학교 건축 및 개발
		20.5(17.3)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
2000년	61.8(54.6)	30.9(27.3)	가나안복민회/가나안 농군학교 건축 및 개발
		30.9(27.3)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

연도	지원액	단체명/사업내용
2001년	188.1(145.7)	41.1(31.9) 가나안복민회/가나안 농군학교 지원
		44.2(34.2)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
		102.8(79.6) 지구촌나눔운동/필리핀 빈민지역 자활 지원
2002년	118.0(94.3)	51.3(41.0)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사랑의집짓기사업
		35.9(28.6) 가나안복민회/가나안농군학교 지원사업
		30.8(24.6) 선한사람들/결핵퇴치지원사업
2003년	67.2(56.4)	31.0(26.0) 가나안복민회/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 지원
		36.2(30.3) 선한사람들/결핵퇴치 지원사업
계	590.2(507.8)	

라. 말레이시아

2004년도 사업규모는 93.2천불로 전체 122개국 중 공여순위 53위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수생 초청 : 16과정 23명 93.2불

한편,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말레이시아 지원실적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 13년간 총 US\$1,832.5천불 지원 / 연평균 US\$141천불

- 연수생 404명, 전문가 5명, 물자지원 9.6천불, 긴급원조 100.8천불

(단위 :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191.1	137.0	193.1	160.2	89.2	130.1	144.1	73.6	103.0	259.1	127.7	85.8	138.6
수원 순위	31 /120	49 /128	31 /134	42 /142	73 /138	61 /140	54 /138	54 /126	40 /128	24 /133	44 /138	81 /142	50 /130

□ 연도별 사업별 종합실적

구분	구분	합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총 지원액	백만원	1,804.4	145.4	108.0	156.1	128.7	68.8	104.7	137.0	102.9	122.5	292.9	164.9	107.3	165.2
	천불	1,832.5	191.1	137.0	193.1	160.2	89.2	130.1	144.1	73.6	103.0	259.1	127.7	85.8	138.6
연수생	백만원	1627.9	117.8	92.0	143.5	106.6	58.8	62.3	91.2	102.9	122.5	292.9	164.9	107.3	165.2
	천불	1619.1	154.8	116.7	177.6	132.7	76.3	77.5	95.9	73.6	103.0	259.1	127.7	85.8	138.6
	인원	404	27	29	35	35	21	20	21	21	35	59	46	23	32
전문가	백만원	81.0	20.3	16.0	12.6	22.1	9.9	-	-	-	-	-	-	-	-
	천불	103.0	26.7	20.3	15.6	27.5	12.9	-	-	-	-	-	-	-	-
	인원	8(5)	2(2)	1(1)	2(1)	2(1)	1(0)	-	-	-	-	-	-	-	-
물자 공여	백만원	7.3	7.3	-	-	-	-	-	-	-	-	-	-	-	-
	천불	9.6	9.6	-	-	-	-	-	-	-	-	-	-	-	-
	건수	1	1	-	-	-	-	-	-	-	-	-	-	-	-
긴급 원조	백만원	88.2	-	-	-	-	-	42.4	45.8	-	-	-	-	-	-
	천불	100.8	-	-	-	-	-	52.6	48.2	-	-	-	-	-	-
	건수	2	-	-	-	-	-	1	1	-	-	-	-	-	-

마. 브루나이

2004년도 사업지원계획은 없으며,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브루나이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13년간 총 US\$187.8천불 지원 / 연평균 US\$14.4천불
- 연수생 52명

(단위 :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	-	-	17.6	-	-	38.0	13.1	16.3	49.6	9.7	17.1	26.4
순위	/120	/128	/133	126 /143	/139	/140	101 /139	98 /126	86 /128	68 /133	114 /138	121 /141	104 /130

바. 베트남

2004년도 사업규모는 6,808.7천불로 전체 122개국 중 공여순
위 2위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수생초청 : 46과정 126명 502.7천불
 - 베트남 원전기술 및 사업관리(국별), 베트남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국별), CLMV 통신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보급, 아.태 청소년 파트너쉽 등
- 전문가파견 : 2분야 4명 36.7천불
 - 과학기술평가 3명(각1개월), 수산물검역(3개월)
- 의료단파견 : 가정의학과 1명(신규) 49.3천불
- 태권도사범 : 1명(계속) 88.8천불 (노광엽, '99.12.27~06.12.26)
- 봉사단파견 : 총80명(신규 55명) 1,555.7천불
- 개발조사 : 2건 276.3천불
 -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예방 및 퇴치백신 연구사업 ('02-'06, 2,500천불)
 - 아세안 5국 싱가포르-쿤밍 철도연결 타당성조사 ('04~'06/1,200천불)
- 프로젝트 : 5건 4,190천불
 - 다낭 정보통신대학 설립사업 2,500천불 ('04-'06/10,000천불)
 - 마약퇴치사업 330천불('04-'06/534천불)
 - 정보통신입법 지원사업 700천불('04-'05/860천불)
 - 산업오염방지기술 지원사업 160천불('03-'05년, 600천불)
 - 중부지역 병원건립사업 500천불('02-'04년, 3,000천불)

□ NGO 지원 : 4건 109.2천불

- 식수사업 및 무료이동진료사업(글로벌케어, 16.7천불)
- HIV/AIDS 예방사업(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42.5천불)
- 언청이수술 및 의료지원사업(대한치과의사협회, 18.3천불)
- 불우아동지원사업(한국복지재단, 31.7천불)

한편,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베트남 지원실적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 13년간 총 US\$40,558천불 지원 / 연평균 US\$3,120천불

(단위 : 천불)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지원액	21	316	995	2,281	3,303	3,653	2,770	3,127	6,193	4,864	4,814	4,706	3,515
수원 순위	104 /120	11 /128	3 /133	2 /143	2 /139	2 /140	2 /139	1 /126	1 /128	2 /133	1 /138	2 /141	4 /130

□ 연도별 사업별 지원실적

사업	구분	합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지원액	백만원	44,556	16	249	804	1,833	2,593	2,940	2,664	4,375	7,367	5,517	6,214	5,888	4,189
	천불	40,558	21	316	995	2,281	3,363	3,653	2,801	3,127	6,193	4,864	4,814	4,706	3,515
연수생	백만원	6,447	16	79	270	237	349	473	352	365	457	961	979	1,059	850
	천불	5,974	21	100	335	294	453	588	370	261	384	850	758	846	713
	인원	1444	6	22	46	63	95	107	112	80	109	181	221	227	175
전문가	백만원	422	-	-	27	21	28	24	19	14	36	47	98	63	45
	천불	392	-	-	34	26	36	30	20	10	30	42	76	50	38
	인원	33	-	-	3	4	4	6	2	1	2	3	3	2	3
의료단	백만원	406	-	-	-	-	15	61	73	111	91	53	-	-	-
	천불	376	-	-	-	-	20	76	77	79	77	47	-	-	-
	인원	6(1)	-	-	-	-	1(1)	1(0)	1(0)	1(0)	1(0)	1(0)	-	-	-
태권도 사범	백만원	584	-	-	-	33	41	39	49	95	78	53	57	70	70
	천불	533	-	-	-	41	53	49	51	68	65	47	44	56	58
	인원	11(2)	-	-	-	1(1)	1(0)	1(0)	1(0)	1(0)	2(1)	1(0)	1(0)	1(0)	1(0)

일반 봉사단	백만원	3,099	-	-	-	56	166	213	284	195	304	369	378	549	585
	천불	2,792	-	-	-	70	215	265	298	140	255	327	292	439	490
	인원	165(65)	-	-	-	4(4)	12(8)	14(5)	17(5)	13(4)	14(6)	17(6)	21(10)	27(11)	26(6)
봉사 요원	백만원	1,188	-	-	-	-	36	90	126	261	108	171	161	95	141
	천불	1,038	-	-	-	-	47	112	132	186	90	151	125	76	118
	인원	95(35)	-	-	-	-	4(4)	10(6)	14(4)	17(4)	11(3)	12(5)	8(0)	10(5)	9(4)
협력 의사	백만원	335	-	-	-	-	-	-	-	-	34	24	113	67	96
	천불	272	-	-	-	-	-	-	-	-	29	21	88	53	81
	인원	7(2)	-	-	-	-	-	-	-	-	1(1)	1(0)	2(1)	2(0)	1(0)
개발 조사	백만원	3,704	-	16	356	471	262	119	-	-	643	387	705	726	18
	천불	3,560	-	21	441	587	340	148	-	-	541	342	546	580	15
	건수	13(5)	-	0	2(2)	2(0)	1(0)	1(0)	-	-	1(1)	1(0)	2(1)	2(1)	1(0)
물자 공여	백만원	695	-	114	150	-	-	-	85	182	-	-	-	162	-
	천불	681	-	145	186	-	-	-	90	130	-	-	-	130	-
	건수	7	-	1	1	-	-	-	2	1	-	-	-	2	-
긴급 원조	백만원	410	-	39	-	-	23	82	98	61	47	34	-	13	12
	천불	419	-	50	-	-	30	102	103	44	40	30	-	10	10
	건수	10	-	1	-	-	1	1	1	1	2	1	-	1	1
프로 젝트	백만원	26,382	-	-	-	1,015	1,514	1,729	1,447	3,029	5,472	3,319	3,584	2,995	2,278
	천불	23,679	-	-	-	1,263	1,964	2,149	1,521	2,165	4,601	2,936	2,776	2,393	1,911
	건수	65(25)	-	-	-	3(3)	8(5)	10(3)	9(4)	7(0)	8(3)	4(0)	7(5)	6(1)	3(1)
NGO	백만원	885	-	-	-	-	112	108	103	62	97	80	140	89	94
	천불	842	-	-	-	-	145	135	108	44	82	71	108	71	79
	건수	40	-	-	-	-	7	6	5	3	5	4	4	3	3

* ()안의 수는 당해연도 신규파견인원(또는 신규사업건수)임.

사. 라오스

2004년도 사업규모는 2,903.1천불로 전체 122개국 중 공여순위 8위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수생초청 : 27과정 50명 202.7천불

- 통신인프라구축 및 인터넷보급, 미곡생산기술, IT인턴십, 한국경제연구(장기), 도로경영 및 도로교통 등

□ 전문가파견 : 3명 102.5천불

- 농촌개발(3개월), 벼싯재배(6개월), 정보통신(6개월)

□ 봉사단파견 : 총49명(신규 31명) 1,555.7천불

□ 개발조사 : 1건 124.7천불

- 아세안 5국 싱가포르-쿤밍 철도연결 타당성조사('04~'06, 1,200천불)

□ 물자지원 : 70천불(통신장비 및 의전용 차량)

□ 프로젝트 : 2건 805천불

- 전자정부구축사업 550천불(04-05년, 950천불)
- 한·라오스직업훈련원 건립 255천불(02-05년, 2,000천불)

□ NGO지원 : 1건 42.5천불

- 기생충퇴치사업(한국건강관리협회)

한편,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라오스 지원실적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 13년간 총 US\$6,623.6천불 지원 / 연평균 US\$509.5천불

(단위 :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4.9	6.1	10.6	1.4	68.9	436.7	825.4	216.4	296.6	628.8	680.4	1,419	2,028.3
순위	114 /120	122 /128	126 /133	143 /143	87 /139	22 /140	14 /139	34 /126	22 /128	15 /133	14 /138	10 /141	9 /132

□ 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명	인원/ 건수	지원액 (천불)	세부내역
연수생초청	434명	1,702.3	직업훈련, 한국경제정책(장기), 한국어, 의약품안전, 수자원 관리, 국제형사사법 파트너십, 공무원 행정발전계획 등
전문가파견	5명	126.8	관광, 경제기획, 종자증식, 미곡생산, 수자원보호
의료단	1명	180.3	소아과(김순남/99.9.7-2001.9.6/미타팜병원)
봉사단파견	30명	907.9	관광개발, 임상병리, 간호, 컴퓨터, 임업, 한국어 등
개발조사	2건	366.5	1. 타드살렌 소수력 발전소건설 타당성조사(96-97년) 2. 루앙프라방 관개시설사업(98-99년)
물자지원		413.5	봉사단 소규모프로젝트 지원 등
긴급원조		81.6	홍수피해구호금 등
프로젝트	6건	2,658.7	1. 외무부 전산망구축사업 1차('96년/236천불) 2. 외무부 전산망구축 2차사업('97년/425천불) 3. 메콩강제방축조 지원사업('97년/360천불) 4. 법씨 증산 사업(01-03년/500천불) 5.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02-05년/2,000천불) 6. 초등학교 건립사업(02-03년/100천불)
NGO지원	3단체	185.9	대한적십자사, 한국선명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아. 미얀마

2004년도 사업규모는 2,903.1천불로 전체 122개국 중 공여순
위 8위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수생초청 : 37과정 65명 263.5천불

- 한국경제장기, 한국어교육, IT인턴십, 전력기술 등

□ 전문가파견 : 1명 19.2천불 (씨감자생산/6개월)

□ 의료단파견 : 3명 213.3천불 (내과1명, 한방의료팀2명)

□ 봉사단파견 : 총45명(신규 32명) 1,465.5천불

□ 개발조사 : 3건 254.7천불

- 송전망건설 타당성조사사업 130천불('03-'05년/1,000천불)
- 아세안 5국 싱가포르-쿤밍 철도연결 타당성조사124.7천불('04-'06년/1,200천불)
-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 퇴치지원('02-'06/2,500천불)

□ 프로젝트 : 2건 733.3천불

- 산림녹화시범단지조성사업 183천불('04~'05/300천불)
- 정보통신개발 마스터플랜지원사업 550천불 (04~'05/950천불)

□ NGO지원 : 1건 25천불(한국세이브더칠드런/영유아 보호 개발사업)

한편,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미얀마 지원실적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 13년간 총 US\$8,452.9천불 지원 / 연평균 US\$650천불

(단위 :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231.3	203.4	290.3	392.5	628.9	894.6	379.2	550.6	465.9	730.2	651.2	1,574.4	1,460.4
순위	18 /120	26 /128	16 /133	14 /143	14 /139	12 /140	34 /139	18 /126	15 /128	11 /133	15 /138	9 /142	11 /130

□ 사업별 지원내역

사업명	인원/전수	지원액(천불)	세부내역
연수생초청	583명	2,711	직업훈련, 한국어교육, 결핵관리, 보건의료정책, 폐하수처리시설관리, 관세기법 등

전문가파견	20명	269	광물자원개발, 효소공학, 컴퓨터, 잠업, 경제개발계획, 조립, 농촌개발 등
-------	-----	-----	---

자. 싱가포르

2004년도 싱가포르 지원계획은 없으며,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싱가포르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13년간 총 US\$23.6천불 지원 / 연평균 US\$1.8천불
- 연수생 5명

(단위 : 천불)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	-	-	11.0	-	5.1	-	3.0	4.5	-	-	-	-
순위	/120	/128	/133	133 /143	/139	137 /140	/139	126 /126	115 /128	/133	/138	/141	/130

□ 연도별 사업별 종합실적

구분	구분	합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총지 원액	백만원	22.5	-	-	-	8.9	-	4.1	-	4.2	5.3	-	-	-	-
	천불	23.6	-	-	-	11.0	-	5.1	-	3.0	4.5	-	-	-	-
연수생	백만원	22.5	-	-	-	8.9	-	4.1	-	4.2	5.3	-	-	-	-
	천불	23.6	-	-	-	11.0	-	5.1	-	3.0	4.5	-	-	-	-
	인원	5	-	-	-	2	-	1	-	1	1	-	-	-	-

4. 주요 원조 추진사례

원조사업의 여러 형태 중 기초인프라 형성에 공헌한 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

가. 중국 동북 3성 교육지원사업 (1999년 사업)

OECD에서 정의한 5가지 분류에 의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목표달성도

전산보급이 낙후된 지역의 전산화 촉진과 함께 전산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폭넓게 진행 중이며, 취업률의 제고 등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됨. 아울러 기술지원문제에 있어서는 교육과정별 수업시간이나 훈련교사의 적격성 등에 있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설비사용 상황 등 지원장비의 활용도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임. 중국지방정부도 학교의 시설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2) 사업효과

타 사업에 비하여 우월한 수준의 전산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졸업생의 소득 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의 전산화 교육이나 전산업무 수준을 높이는 게 기여하였음.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센터가 한국의 지원에 의하여 설립되었음을 다수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음으로 홍보 효과는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한인 동포의 센터 등록은 적은 편이나, 한국산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 시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실시의 효율성

센터지원사업은 양측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되었고 전문가 파견교육과 초청연수의 시행 등 교육과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나, 기술이전이나 프로그램 개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파견 전문가 활동과 초청연수는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간이 짧아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선정된 기자재는 품목과 수량, 현지여건 등에 전반적으로 적

합하였다고 판단되며, 적절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었음.

4) 사업의 타당성

낙후된 중국 동북 3성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전산 소프트웨어 및 전산응용기술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의 개발수요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전산응용 훈련 능력과 장소를 갖추고 있고 전산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5) 자립발전 가능성

지원기자재의 유지관리는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구형 기자재의 경우, 고장 또는 수명이 다하여 폐기해야 할 상황임.

훈련기능의 발전과 훈련내용의 향상을 통하여 전산분야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투자자금 조달과 기술인력 양성이 과제로 대두됨.

나. 메콩강 위원회(MRC)지원사업

1) 사업형성 및 추진

우리나라의 사업참여 동기, 사업대상지 적정성, MRC의 메콩강 유역개발 전략상 위치, 수혜대상국(베트남)의 높은 관심도 등을 고려 시,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메콩강 유역개발의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의 체제전환에 따른 수교의 필요성, 유역의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교두보의 확보 등이 경제, 외교적 주요 이슈로 부각됨.

사업대상지인 메콩강 하류 델타지역은 농, 수, 임산자원의

풍부함 및 인구밀집지역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이나, 매년 홍수와 산성화 문제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빈발함.

MRC의 메콩강 유역개발 전략상 수자원 이용 및 개발에 관한 핵심 프로그램에 위치하고 베트남, 캄보디아국의 국가개발계획 상 동 지역 홍수조절사업이 우선순위 상위그룹 형성 등 동 국가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전문가파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MRC 전문가파견은 MRC의 전문가 파견 요청배경, 그리고 앞서 언급된 파견전문가의 실제 활동내용 및 성과 등으로 판단해 본 바, MRC의 전문가파견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측 전문가 파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나라측 지원 2개 개발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임에도 불구하고 MRC와 전문가파견 합의 시, 개발조사지원사업과의 관계 미연급으로 전문가를 통한 사업 모니터링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전문가 파견의 효율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성과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기업의 메콩강 유역 투자진출 지원, 사업시행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 메콩강유역 국가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 경제적 성과로 판단됨.

가시적인 성과 및 형태로 기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메콩강 유역국가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친한 인사의 저변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 등과 같은 무형적 협력 증진을 이룩함.

MRC측이 얻은 최대의 성과는 우리나라측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공한 관련 지식, 제안 등의 정보취득이며, 이를 후속사업 실시를 위한 정책 자료 및 후속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됨.

중부지역에 농지를 조성하여 화전민 정착 지원정책을 시행함. 또한, 베트남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였음. 베트남은 인구 점중에 따른 경작지 부족으로 경작지를 찾아 산악지대로 이동, 화전민화 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수민족 다수 거주지인 중부지역에 농지를 조성, 화전민정착 지원정책을 시행함.

식량 증산 효과로 아수프지역 식량자급률이 다목적사업 타당성조사 종료 후 증가함.

타당성조사 종료 후, 베트남 정부 자체의 동 지역에 대한 지원 및 추가적인 개발계획 등을 감안 시, 타당성조사 결과의 지속적인 정책 적용이 예측됨.

동 프로젝트는 MRC 메콩강 개발전략 중 핵심프로그램으로서, 베트남 및 캄보디아 당국에 홍수조절 시스템 가동을 위한 후속사업 실시의 근거 제공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 한·베산업기술학교/퀴논·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1) 목표달성도

수료생의 취업률이 95% 이상으로 취업은 대단히 잘 되고 있으며, 졸업생의 기술능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나, 정보통신 졸업자들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낮아 60% 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동 훈련원은 인민위원회 노동성 지위 체계 속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민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지원사업에 의한 기술이전의 정도는 한국장비의 지원과 활용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프로젝트 전후의 기술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기술 수준이 월등히

진보된 것으로 조사됨.

2) 사업효과

동 훈련원은 베트남 직훈 제도 및 정책결정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타 직업훈련원의 모델화 가능성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하노이 공업기술학교가 지역경제 위주로 형상되어, 타성으로의 파급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3) 실시의 효율성

학교의 편의시설 효용도나 시설안내 등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을 나타내는 편이나, 가격대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만족은 낮은 편임. 입학체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나 휴학제도가 없는 교육훈련시스템은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사업의 타당성

베트남은 교육에 관한 관심이 국민 정서 속에서 매우 높으며, 베트남 빈곤퇴치를 위하여 직훈사업을 선택하여 수요파악에 적절하였다고 평가되나, 제공하는 공과가 지역산업의 수요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5) 자립발전 가능성

본 사업은 정부의 대단한 의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재정지원도 파격적인 수준이나,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인 사업인 직훈사업의 높은 비용부담은 여전히 자립발전에 중요한 애로 요인임. 기술인력, 장비, 예산 등의 순으로 자립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5. 원조 추진효과 및 우리와의 관계

- 가. 중국의 산업발전 양상이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에 걸쳐 있으나, 직업훈련의 초점이 상대적으로 전통산업 쪽에서 직업훈련의 중견기술 기능인력으로 상향되는 데 대비하여야 한다.
- 나. 직훈센터 보유인력이 매우 우수하고 적극적이지만 인력구성의 연령적 구조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센터의 전문성의 심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다. 베트남의 직업훈련은 많은 원조로 훈련원시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나, 수원에 의존하는 관성은 자체적으로 역량을 배양하는 자별적 노력을 간과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교육훈련에 관여하는 전문가집단을 확충하고 능력을 제고시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원이 증가하는 양적 팽창이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R&D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 라. 직업훈련사업의 지원형태를 훈련센터의 건축이나 장비지원의 방식에서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형 사업, 그리고 물적 지원에서 인적·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 유무상의 혼용이나 진출 민간기업이나 국내의 재단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여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사업에 대한 비용효과에 대한 판단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하

고 일회성 비용의 경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체제, 즉 현지사무소의 활용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바. KOICA는 그간의 성과를 업무로 환원하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아울러 비용절감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전문가 활용이나 기관의 위탁방식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개도국과 우리와의 외교적인 선린우호관계의 구축에 순응하는 것이며, 통상의 증대는 물론, 상호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경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의 향후가 보장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의 국가의 가치는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공헌했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질 것이다. 우리는 통상과 교역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학적인 접근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6. 향후 추진방향

상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원조사업은 수혜국의 일반적인 경제·사회발전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원 양성에 그 중심을 두고 있어 동 개도국들이 자조노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인지도 제고 및 우리제품의 사용도 제고 및 브랜드 파워 향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우리의 상대국 시장에서의 침입 및 침투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아울러 기술이전 효과나 우리기업의 진출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조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국가별로 특화된 전략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oad Map하에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이 배가되어 미래에는 상호호혜적인 Plus Sum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 또한 크게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별 연도별 중장기전략 하에 원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조사업은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후생증진으로 연계되어 국력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그 기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중국과 우리와의 기술단계 Gap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지역이 기술과 인력과 자금에 의하여 인종족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정책당국자나 우리기업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의 발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IV. 중국과 동아시아지역과의 제반관계

1. 역사적 유대관계

중국과 동아시아지역과의 역사는 지난 12, 3세기 원나라가 형성되어 중앙아시아지역까지 중국의 지배 하에 있을 때부터 조공관계가 구축되어 중국의 간접적인 지배 하에 있었다.

이러한 대중화권의 형성은 상호교역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였고, 국가의 안위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상호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중국의 장안은 세계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곧 세계경제의 발전과 연계되어 많은 문물이 교역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곧 본토인의 이주로 연계되어 중국인의 디아스포라를 가져와 지역상권의 지배 및 중국인 혈통의 확장으로 이어져 현재의 강력한 중화권 형성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1842년 난징조약에 의하여 중국의 대외관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난징조약은 중국과 그 이웃나라가 책봉과 조공으로 상징되는 상하 군신관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이었다. 그러나 이의 엄격한 해석은 구미와 일본이 해당될 뿐 다른 국가와의 관계는 변함없이 여전히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조공관계는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후 청조가 실천에 옮겼던 화이질서는 동아시아주변국가를 5가지의 위계계급 구조로 분류하고 있어, 이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하는 화이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었던 것이다.

주변국 중에서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의 병합은 여전히 국제문제화 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된 중국과 동아시아지역과의 관계는 과거의 일본 세에서 벗어나 본토의 세계 공장화에 이은 지역 주변세력의 토착화와 연계되어 시너지효과가 거양됨으로써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ASEAN국가들이 현재 중화권 인력에 의해 상권과 경제권이 장악되고 있으며, 기타 국가들의 상황도 이와 동일하다. 현 대부분의 ASEAN국가들은 중국 본토에 투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송금액도 만만치 않으며, 사업기회를 중국본토에서 찾으려는 움직임 또한 매우 활발하다.

이와 관련하여 ASEAN은 중국과 정치적으로도 연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ASEAN+3나, 또는 ARF를 확대 발전시켜 정치공동체 화하는 방안도 양측 사이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과거의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종과 문화를 공유하였다고 하는 동류의식의 발로라고 판단된다.

2. 통상적 이해관계

1979년 덩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중국 경제는 1979~2003년간 연평균 9.4%의 고성장을 나타내, 지속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에는 특히 중국정부의 안정 및 예측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 기인한다. 시장확립을 위한 강력한 제도개혁과 경영관리체제의 개혁, 재정·금융시스템의 개혁, 무역과 투자시스템의 개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경제개혁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정치제도와 행정제도의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여 왔다.

덩소평의 개발전략은 당 주도의 불균형개발, 선부론의 반평등주의론, 경제분권화와 부분적 시장화의 추진, 책임경영의 기업관리,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외자도입정책 등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등장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3차 산업의 발전과 노동력 취업문제의 해결, 시장진입 규제 완화, 사유재산 보호 강화, 민영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국유기업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전략으로 서부대개발 및 동북 노후

공업개발 등 성장동력의 지속적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률 유지는 해외기업의 직접투자 유치의 증대와 기술 및 자본의 육성 등 성장전략으로서의 내수확대와 기업경쟁력 제고 등 세계의 공장으로서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등의 이유에 의함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시아국가와의 통상·교역관계는 꾸준히 증대하여 ASEAN의 제1위 수출과 투자대상국이 바로 중국이며, 중국은 꾸준히 ASEAN에 수출하면서 문호를 적극 개방, 역내 지역국가에 상호협력의 인식하에 수출과 수입을 균형있게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자사이에 FTA구성에 합의를 이루었으며, 더 나아가 정치경제공동체 구축의 이야기도 외교소식통들에 의하여 나돌고 있다.

여하튼 향후 양자 사이에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에 의하여 많은 통상·교역 협력관계가 형성되리라 하는 데 의심하는 이는 없다.

3. 중국의 동 지역에 대한 협력 지원 추이

2003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중국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Joint Declaration of the Heads of State /Government of ASEAN and PRC on Strategic Partnersdhip for Peace and Prosperity)」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양측간 고위급 인사 교류, 2005년까지 교역 1,000억달러 달성, 2002.11 합의한 FTA 교섭 가속화, SARS 등 보건위생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 당시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최상의 외교적 표현을 이용하면서 대 ASEAN 중시정책을 표방하였다.

중국측은 내정불간섭, 선린우호 강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공식서명

하였다.

4. 향후 양지역간의 협력관계 예측

중국은 1997년 동아시아에 몰아 친 외환위기 이후 ASEAN국가들에 대하여 양자 차원에서 경제를 비롯, 통상, 외교 등 안보적 접근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2002. 11월 역외국가들 중 처음으로 ASEAN과 FTA 결성을 공식화함으로써 대 ASEAN 외교의 중요한 일보를 디딘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ASEAN과 FTA 체결을 위한 관세인하 조치를 2005. 1월부터 발효하기로 되어 있으며, 조기수확(Early Harvest)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국과 200여 품목의 농수산물과세를 2003. 10월부터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번 ASEAN+3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의 대 ASEAN 외교의 약진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역외국가들 중 최초로 ASEAN이 요청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본격적인 통상경제협력의 길을 열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는 중국의 대 ASEAN 외교의 친중화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 ASEAN접근은 아태지역 국제질서의 다극화 모색과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 확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 부각 등을 겨냥한 다목적의 전략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 ASEAN 전략목표의 핵심은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 견제를 목표로 미국 중심의 지역동맹체 결성에 ASEAN의 참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한편, 중국-ASEAN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중국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태도와 인식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이미지가 과거의 위협한 존재로부터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

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국가들이 일본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서 등장한 중국을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간주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은 이와 같은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친중화를 목표로 대 ASEAN 접근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및 일본의 움직임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5. 동 지역의 중국에 대한 시각(경제적 의존 및 협력 등)

최근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역외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보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급부상에 의한 것이다. 과거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안보적으로는 미국에게, 경제적으로는 일본에게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의 부상은 이러한 기존의 구조를 혁신하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ASEAN으로서는 자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의 캐스팅보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렛대의 형식으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각각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적으로는 가장 정서가 맞고 지역주의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중국을 택하리라 판단되며, 이미 TAC 및 FTA 형성의 합의 등으로 중국이 대 ASEAN외교를 선점한 상태로 이를 동아시아지역 국가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ASEAN국가들은 ASEAN+3회의를 확대발전시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역할과 정체성이 중국, 일본 등에 의하여 한계화 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중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이 WTO가입 후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지역 국가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중국이 단연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및 통상·외교협력의 최적의 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V.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제반관계

1. 역사적 유대관계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유입한 관계이기도 하다. 1950년의 한국전쟁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비로소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중국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과거의 조공관계도 이제는 그 흔적이 없어지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웃국가로서 순치의 관계로서도 인식되기도 한다. 중국인의 전통적인 대한관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근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중국인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이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인의 화이의식 속에서의 한국을 바라보는 의식은 일부 중국인들에게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까운 존재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와 집이라면 한국은 입술과 대문이라는 차별적인 사고도 역시 존재함도 부인할 수 없다.

2. 통상적 이해관계

1992년 국교수립 이후 추진된 양국간의 통상관계는 지금은 매우 중요한 관계로 위치 지워져 상호협력이 매우 절실한 관계에 놓여 있다.

2003년의 경우,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570억 달러로서 수출이 351억불, 수입이 219억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도에는 1,000억달러를 넘어서리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강하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2003년 미·일에 이어 제3위의 수입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존도 상승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며, 산업부문간 전략적 협력과 대외경제정책의 전략적 구상이 매우 절실하다.

이는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이룩할 수 있는 데,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대체화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아울러,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투자의 모색과 동북공정, 에너지, 교통운수 건설 등 가치사슬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는 산업클러스터의 경쟁과 협력이 필요시 되며, 또한 한·중간의 FTA의 단계적 모색과 지역연계권의 확대 등 동북아 FTA를 대비한 경제통합의 확대 등도 중점 고려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3. 외교적 협력관계

중국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정책기조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안정유지로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은 경제·통상관계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북한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국가 외교목표 및 인식으로 인해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경제·통상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있고 양국간 정치·외교관계도 1990년대 중북관계의 전반적인 경색추세와 비교할 때,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상호인식도 양국관계 발전 및 교류의 심화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양국관계 전반적인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불균형이 존재하며, 특히 군사·안보분야는 중국군의 특성 및 북한요인으로 인하여 진전속도가 늦고 현재까지 상호주의는 결여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원칙적·수사적 차원에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국익상 차이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왔으나, 양국은 정치체제, 국가조직, 사회적 가치 및 대외관계상 상이점을 갖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서는 상당한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기조 감안 시, 북핵문제는 중국의 딜레마이다. 중국은 자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할 수 없고 반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로 인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핵불용'을 선언함과 동시에 미국에 대하여 '북한체제 보장', 한국에 대하여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등 외형상 '상호 모순적'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중장기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전략기획 및 현실주의적 감각이 필요하며, 또한 미래 대외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내부적으로나마 중장기적(특히, 통일 대비)전략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중관계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양국 체제 및 대외관계 환경의 상이성, 양국의 국가 잠재력과 중장기적인 목표를 감안, 한국은 21세기 및 통일한국의 대외환경에 대비한 장기적·포괄적 대중전략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지원(원조공여)

2004년도 중국에 대한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분	4,300천불 (공여순위 5위/122국)	비고
연수생 초청	○345천불/32과정 85명 -중국 행정공무원 연수15, 중국 CDMA 통신기술15,아시아 폐하수 처리시설 관리3, 가족계획과 생식보건2, 재정정책과 경제발전2, 관 세행정과 기법2,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2, 레이더 접근 관제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2, 산림관리2, 싸이클론트론 및 RI 의 의학적 이용2, 아시아 파트너쉽2, 아태 청소년 파트너쉽2, 지 방행정2, 철도운영 현대화2, 한국어교육2차(중급)2, 한국어교육3 차(중급)2, 한국형 원전기술2, 해운항만관리2, 형사사법파트너쉽 2, 환경보호정책2, APEC 사이버 안전2, APEC 해양환경보전(연 안환경평가기술)2, IT 인턴쉽 2차(컴퓨터 수리기술)2, IT 인턴쉽 3차(전자상거래)2, IT 인턴쉽 4차(CAD/CAM/컴그래픽)2, 과학 기술 장기1, 기상기술 고위 파트너쉽1, 외교관연수1, 지식재산권 제도 고위 파트너쉽1, 한국경제정책(장기)1, IT 감사기법1	
봉사단 파견	○1,871천불/64명(신규 47명) - 팀제봉사단 28명(신규28), 일반단원 36명(기존17, 신규19)	
프로 젝트	○3건 2,067천불 - 서부지역 조립사업 ('01-'05/5,000천불) - 기생충 감염관리시범사업('01-'04/1,000천불) - 황사공동관측망 구축사업 ('03-'05/633천불) ※ "북경지구 산림종합경영 시범사업(후보사업)"은 금년도 사전조사후 2004/5년경 사업추진여부 검토예정	
NGO	○1건 17.5천불 - 연변조선자치주 도시지역보건사업(대륙복지회)	

한편,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대 중국 지원실적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 13년간 총 33,887천불 지원 / 연평균 2,607천불

사업	구분	합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지 원액	백만원	35,342	232	120	434	1,845	3,158	3,046	3,182	2,047	6,053	6,674	2,158	2,999	3,393
	천불	33,887	305	153	537	2,296	4,095	3,785	3,346	1,463	5,089	5,903	1,672	2,397	2,847
연수 생	백만원	4,050	80	103	131	279	294	489	371	479	506	243	315	350	408
	천불	3,975	105	131	162	348	381	608	390	343	425	215	244	280	342
	인원	1,158	22	39	37	100	92	143	107	133	135	90	79	87	94
전문 가	백만원	606	5	17	48	47	44	33	88	119	5	30	31	65	75
	천불	590	7	22	59	59	57	41	93	85	4	26	24	52	63
	인원	57(53)	4(4)	5(5)	7(7)	8(8)	8(8)	8(8)	6(6)	2(0)	2(0)	2(2)	2(2)	2(2)	1(1)
해외 봉사 단	백만원	1,838	-	-	-	120	191	277	234	105	173	122	108	208	301
	천불	1,817	-	-	-	149	247	344	246	75	146	108	83	166	253
	인원	117(46)	-	-	-	9(9)	16(7)	16(1)	14(4)	7(1)	6(1)	5(2)	9(6)	15(7)	20(8)
국제 협력 봉사 요원	원화	653	-	-	-	-	36	72	108	246	83	56	45	8	-
	달러화	585	-	-	-	-	47	89	113	176	70	49	35	6	-
	인원	67(21)	-	-	-	-	4(4)	8(4)	12(4)	17(5)	12(3)	9(1)	4(0)	1(0)	-
개발 조사	원화	3,561	-	-	256	977	994	327	444	244	211	108	-	-	-
	달러화	4,142	-	-	316	1,216	1,289	407	467	174	178	95	-	-	-
	건수	19(7)	-	-	1(1)	4(3)	4(0)	4(1)	2(1)	2(1)	1(0)	1	-	-	-
물자 공여	원화	978	-	-	-	81	174	193	72	140	59	28	30	201	-
	달러화	1,000	-	-	-	100	226	240	76	100	49	25	24	160	-
	건수	16	-	-	-	1	2	2	1	1	3	2	1	3	-
긴급 원조	원화	1,040	147	-	-	80	77	310	0	65	-	-	-	-	362
	달러화	1,127	193	-	-	100	99	385	0	46	-	-	-	-	304
	건수	10	1	-	-	1	1	3	0	1	-	-	-	-	3
프로 젝트	백만원	21,784	-	-	-	261	1,217	1,231	1,758	603	4,971	6,016	1,519	2,059	2,149
	천불	19,838	-	-	-	325	1,578	1,530	1,849	431	4,179	5,321	1,176	1,646	1,803
	건수	45(19)	-	-	-	1(1)	6(5)	8(5)	7(2)	3(0)	3(1)	4(2)	5(2)	4(0)	4(1)
NGO	백만원	832	-	-	-	-	131	114	107	46	46	72	110	108	98
	천불	813	-	-	-	-	170	141	112	33	39	64	85	86	82
	건수	33	-	-	-	-	6	6	4	3	2	3	4	3	2

□ 사업별 세부협력실적

가. 연수생초청사업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1년	10과정 22명	80.2(105.4)	광선치료1, 이주전략2, 행정2, 미곡생산1, 컴퓨터5, 가공식품2, 자동차정비1, 건설기술5, 농기계1 산림보호2
'92년	13과정 39명	103(130.6)	산림보호2, 작물생산1, 농촌개발1, 수출진흥전략1, 한국어 교육2, 자동차정비1, 직업훈련2, 컴퓨터7, TV프로그램 제작1, 작물보호1, 비파괴검사2, 가족계획3, 공무원15
'93년	17과정 37명	130.7(161.8)	행정능력2, TV프로그램제작1, 광물자원1, 국토개발2, 농촌개발2, 정보관리4, 컴퓨터응용8, 산업재산2, 작물생산2, 미곡생산2, 가족계획2, 한국어교육2, 비파괴검사2, 시장경제1, 중소기업1, 수출진흥전략1, 전자제품2
'94년	18과정 100명	279.4(347.6)	미곡생산3, 작물생산2, 가족계획2, 중소기업육성2, 수출진흥전략1, 시장경제2, 환경보호2, 전자제품2, 광물탐사2, 해양조사3, 산업재산권2, 컴퓨터응용4, 국토개발2, 한국어교육5, 축산2, 식품가공2, 비파괴검사2, 경제인연수60
'95년	10과정 92명	294.1(381.5)	경제인(1차)29, 경제인(2차)19, 공무원(1차)9, 공무원(2차)15, 해양조사4, 컴퓨터응용4, 환경관리2, 수출진흥전략2, 가족계획1, 비파괴검사2, 과학기술정책2, R&D관리3
'96년	25과정 143명	489.4(608.2)	가족계획2, 산림경영1, 광물탐사2, 토목건축2, 산업재산권보호3, 환경보호2, 환경관리2, 농촌개발2, 축산2, 컬러TV2, 한국어교육3, 관개개발3, 에너지절약2, 어로수산2, 여성보건2, 결핵관리4, 경제인(1차)26, 경제인(2차)25, 공무원(1차)21, 공무원(2차)16, 세관2, R&D관리3, 해양환경3, 과학기술정책3, 컴퓨터응용4, 원자력안전2, 수출진흥전략2
'97년	21과정 107명	370.7(389.8)	WTO/UR협정2, 결핵퇴치2, 과학기술정책2,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2, 국가표준제도2, 농산물유통3, 산업재산권2, 에너지효율2, 여성보건2, 원자력발전3, 자동차정비1, 전력기술2, 정보기술2, 조세1, 경제인29, 공무원28, 직훈교사7, 컴퓨터응용4, 한국어교육6, 해양환경3, 환경보호2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8년	22과정 133명	479.2(342.6)	과학기술정책2, 관광개발 및 관리(한.싱 TCTP)2, 기상예보1, 농업종합개발 및 농지조성6, 메콩강지역 직훈관리자연수(ILO)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1, 비원전방사성폐기물처리(IAEA)2, 여성과 보건3, 자본시장육성2, 정보기술관리(한.싱 TCTP)4, 경제정책관리22, 중국공무원행정발전(1차)20, 중국공무원행정발전(2차)15, 중국환경시설관리18, 직훈교사(APEC)5, 컴퓨터응용기술(APSDEP)4, 통신정책(한.싱 TCTP)3, 한.중황해환경오염조사10, 한국경제개발연구1, 한국어교육(2차)3, 해양환경보전4, R&D 관리2, WTO 협정1
'99년	30과정 135명	506.0(425.4)	결핵퇴치2, 경제개발전략과 시장경제(1차)3, 경제개발전략과 시장경제(2차)2, 관개개발 및 농지조성4,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2, 기상예보3, 농업정책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1, 산업재산권제도2, 시장경제체계 및 경제개발전략15, 에너지 효율관리2, 연구개발관리2, 원자력발전(IAEA)3, 작물생산기술2, 중국공무원행정발전(인사부)15, 중국한국담당관연수(각성)34, 중소기업육성2, 지역개발정책1, 직업훈련교사기술향상(APEC)4, 직업훈련기능검정제도(ILO)1, 컴퓨터응용기술(APSDEP)3, 한국경제장기(2차)2, 한국어교육(2차)1, 한.싱 자본시장육성3, 한.싱 항만운영(제3국)4, 한.중황해해양환경조사7, 해양오염방제3, 해양환경보전2, 환경보호기술2, 환경시설관리6
2000년	24과정 90명	243(215)	결핵관리2, 국가표준제도2, 기상예보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1, 산림관리2, 산업재산권제도1, 생식보건포럼2, 세계지리학회2, 수자원관리2, 에너지절약3, 의약품안전2, 서부지역개발26, 행정발전계획(인사부)15, 직업훈련 및 검정기능개발(ILO)2, 철도운영현대화3, 컴퓨터응용기술(APSDEP)2, 한.싱 신도시계획 및 도시정비2, 한.싱 해운항만관리1, 한.일 경제개발과 시장경제2, 한.일 수환경개선2, 한국어교육2, 해양환경보전(APEC) 3, 환경보호기술4, 환경시설관리5
2001년	24과정 79명	315.5(244.4)	컴퓨터응용기술(APSDEP)2, 한국경제장기2, 한국어교육3, 의약품안전1, 한의학교육2, 수자원관리4, 중국행정발전계획13,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1, 한.일 경제개발전략과 시장경제2, 관세기법2, 지식재산권제도2, 중국국가위 경제개발13, 철도운영현대화2, 레이더 접근과제1, 해상교통관제3,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IAEA)2, 사막화방지9, 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사후관리1, 국제통상 및 WTO협정(1차) 2, 국제통상 및 WTO협정(2차)2, 해양오염방제 시뮬레이션3, 해양환경보전(APEC)2, 한.싱 수처리시설관리3, 아시아 파트너쉽2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2002년	24과정 87명	350.4(280)	한국경제장기1, 한국어교육2, 수자원관리1, 중국공무원행정발전15, 중국 경쟁정책과 경제발전15, 한국경제발전과 성장전략과정2, 한일경제개발정책2, 산업안전 및 보건2, 철도운영현대화2, 전방향무선표지시설보수2, CDMA통신기술3,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IAEA)2, 사막화방지2, 아시아 기상예보2, 기상기술정책1, 중국 국제통상 및 WTO협정14, 무역투자진흥2, 아시아 국제통상 및 WTO협정2, 중국 황해환경조사6, 한.일 호소수질관리2, 아시아 폐하수처리시설관리2, 환경연안평가기술(APEC)3, 아시아 파트너쉽1, 아.태 청소년파트너쉽1
2003년	94명	408.2(342.5)	APEC 직업훈련교사 기술향상(냉동,자동차,CNC/CAD, 전자)3, 한국어교육1차4, 과학기술(장기)1, 싸이클로트론 및 RI의 의학적이용1, 중국상수도관리(국별)15, 국제형사사법파트너쉽2,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2, 경쟁법정책과 경제발전1, 중국공무원행정발전계획(국별)14, 한국경제(장기)1, 한.일 경제개발정책1, 철도운영현대화2, CDMA 통신기술1, APEC 사이버보안 능력배양1,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IAEA)2, 한국형원전기술2, 자본시장육성1, 가공식품품질관리 사후관리2, 중국 국제통상 및 WTO협정(국별) 14, 중국 서부지역 해외투자담당관(국별)15, 한.일 호소수질관리1, 중국 황해해양환경조사5, 아시아 소각시설운영 및 대기오염관리2, 아시아파트너쉽1
계	총1,158명	4,049.9 (3,974.6)	

나. 전문가파견

단위 :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1년	4분야 4명 (신규4)	5.3 (7.0)	농업정책(한상수/91.10.11~91.10.25/연변농업과학연구소) 채소재배(윤진영/91.10.11~91.10.25/연변농업과학연구소) 상하수도(조수영/91.10.11~91.10.25/연변농업과학연구소) 작물생산(박영대/91.10.11~91.10.25/연변농업과학연구소)
'92년	3분야 5명 (신규5)	17.3 (21.9)	농산물시장(왕성우/92.12.8~92.12.28) (성배영/92.12.8~92.12.28/상업부) 경 영(김승범/92.11.29~92.12.28/대외경제무역대학) 농촌개발(김석동/92.10.13~92.10.30/연변조선족자치주) (김정갑/92.10.13~92.10.30/연변조선족자치주)

'93년	4분야 8명 (신규8)	47.6 (58.9)	농업통계(오홍근/93.6.13~93.7.4, 11.14~12.13/농업통계국,2회) (최지훈/93.6.13~93.7.4, 11.21~12.12/2회) (신경근/93.11.21~93.12.12) 작물생산(이상범/93.11.25~93.12.9) 육종(김희태/93.11.24~93.12.8) 화훼(유순호/93.11.23~93.12.7) *1인 2회 파견은 신규 2인 파견으로 계상
'94년	7분야 8명 (신규8)	47.2 (58.7)	작물생산(임일빈/94.11.8~94.12.8) 임목육종(나천수/94.12.6~95.1.27) 농업통계(주경준/94.11.20~94.11.27) (오홍근/94.11.21~94.11.27) 임업(김철민/94.12.6~95.1.27) 컴퓨터(배해영/94.12.9~95.2.20) 육종(김규원/94.11.8~94.12.30) 미곡생산(권순종/94.10.25~94.11.24)
'95년	6분야 8명 (신규8)	43.6 (56.5)	수자원보호(이기종/95.7.10~95.7.31) 채소재배(김수동/95.9.11~95.10.9),(최영하/95.7.15~95.8.12) 농산물가공(성기영/95.9.11~95.10.9) 작물생산(박성태/95.7.15~95.8.12), (민황기/95.7.10~95.8.28) 국제경제(하인봉/95.10.18~95.11.15) 기계(이장명/95.10.18~95.11.15)
'96년	6분야 8명 (신규8)	32.6 (40.5)	육종(김장용/96.10.9~96.11.4/천진시 천진식물연구소) (안종국/96.8.8~96.8.17/흑룡강성 팔일농업대학) 전자공학(홍순성/96.12.14~96.12.29/하얼빈 공과대학) 가축사육(오성종/96.8.5~96.9.1/천진 축목수의연구소) 환경공학(박미옥/96.8.17~96.8.21/천진 남개대학) 농산물가공(김영배/96.10.8~96.10.27/하북성 석가장시 과학기술원) (김동만/96.9.9~96.9.22/하북성 농림과학원) 축산(서성/96.10.8~96.11.3/하북성 석가장시 목공상개발총공사)
'97년	3분야 6명 (신규6)	88.2 (92.8)	원양어업(윤수진/97.8.19~99.2.18/연변원양선원학교) (이강섭/97.8.19~99.2.18/연변원양선원학교) 육종(김용호/97.11.11~97.12.10/광둥성과학기술위원회) (김한용/97.11.11~97.12.10/광둥성과학기술위원회) 소프트웨어(박만곤/97.11.20~97.12.19/산둥빈주염색회사) (이장호/97.12.14~98.1.12/산둥빈주염색회사)
'98년	1분야 2명 (계속2)	118.5 (84.7)	원양어업(윤수진/97.8.19~99.2.18/연변원양선원학교) (이강섭/97.8.19~99.2.18/연변원양선원학교)
'99년	1분야 2명 (계속2)	4.6 (3.8)	원양어업(윤수진/97.8.19~99.2.18/연변원양선원학교) (이강섭/97.8.19~99.2.18/연변원양선원학교)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2000년	2분야 2명 (신규2)	29.8 (26.3)	환경공학(김대선/00.11.20~01.1.20/ 환경과학연구원) 폐기물처리(한기봉/00.12.31~01.3.30/ 천진경공업대학)
2001년	2분야2명 (신규2)	31.0 (24.0)	환경관리(김종민/01.9.1~01.11.30/ 환경과학연구원) 제지폐수처리(이영준/01.9.1~01.10.31/ 천진경공업대학)
2002년	2분야 2명 (신규2)	65.4 (52.2)	환경평가관리(오수태/02.6.17-12.16/ 환경과학연구원) 제지폐수처리(이재운/02.10.10~03.3.9/ 천진과학기술대학)
2003년	1분야 1명 (신규1)	74.5 (62.5)	환경평가(차준석/03.7.18-04.7.17(1년)/ 환경영향평가센터)
계	총58명 (신규54명)	605.7 (590.1)	

다. 해외봉사단파견

단위 :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4년	5분야 9명 (신규9)	119.9 (149.2)	<5기>컴퓨터4, 한국어1, 자동차정비2, 원예1, 작물생산1
'95년	6분야 16명 (신규7)	190.8 (247.4)	<5기>컴퓨터4, 한국어1, 자동차정비2, 원예1, 작물생산1 <6기>한국어2, 자동차정비1, 원예1, 작물생산2, 축산1
'96년	6분야 16명 (신규1)	276.9 (344.1)	<5기>컴퓨터3, 한국어1, 자동차정비2, 원예1, 작물생산1 <6기>한국어2, 자동차정비1, 원예1, 작물생산2, 축산1 <7기>한국어1
'97년	6분야 14명 (신규4)	233.8 (245.8)	<5기>컴퓨터1, 자동차정비1 <6기>한국어2, 자동차정비1, 원예1, 작물생산2, 축산1 <7기>한국어1 <8기>한국어4
'98년	2분야 7명 (신규1)	105.1 (75.1)	<6기>자동차정비1 <7기>한국어1 <8기>한국어4 <9기>한국어1
'99년	1분야 6명 (신규1)	173.3 (145.7)	<8기>한국어4 <9기>한국어1 <10기>한국어1
2000년	1분야 5명 (신규2)	121.9 (107.9)	<8기>한국어1 <9기>한국어1 <10기>한국어1 <11기>한국어2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2001년	2분야 9명 (신규6)	107.6 (83.3)	<10기>한국어1 <11기>한국어2 <12기>한국어5, 태권도1
2002년	2분야 15명 (신규7)	208 (166.2)	<11기>한국어2 <12기>한국어5, 태권도1 <14기>한국어6, 태권도1
2003년	3분야 20명 (신규8)	301.1 (252.6)	<12기>한국어4, 태권도1 <14기>한국어6, 태권도1 <16기>한국어7, 수의학1
계	총117명 (신규46명)	1,838.5 (1,817.5)	

라. 국제협력봉사요원파견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원액	지 원 내 역
'95년	1분야 4명 (신규4)	36.0(46.8)	<1기>한국어4
'96년	2분야 8명 (신규4)	71.8(89.2)	<1기>한국어4 <2기>한국어3, 컴퓨터1
'97년	2분야 12명 (신규4)	107.9(113.4)	<1기>한국어4 <2기>한국어3, 컴퓨터1 <3기>한국어4
'98년	2분야 17명 (신규5)	246.1(175.9)	<1기>한국어4 <2기>한국어3, 컴퓨터1 <3기>한국어4 <4기>한국어3, 컴퓨터2
'99년	2분야 12명 (신규3)	82.7(69.5)	<3기>한국어4 <4기>한국어3, 컴퓨터2 <5기>한국어3
2000년	2분야 9명 (신규1)	55.6(49.2)	<4기>한국어3, 컴퓨터2 <5기>한국어3 <6기>한국어1
2001년	1분야 4명 (신규0)	45.5(35.2)	<5기>한국어3 <6기>한국어1
2002년	1분야 1명 (신규0)	7.8(6.2)	<6기>한국어1
계	총67명 (신규21명)	653.4 (585.4)	

마. 개발조사사업

단위 : 백만원(천불)

사업명	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7)건	1(1)건	4(3)건	4(0)건	4(1)건	2(1)건	2(1)건	1(0)건	1(0)건	-
	3,560.8	255.6	976.8	993.9	327.2	444.4	243.9	211.4	107.5	-
	(4,141.8)	(316.3)	(1,215.5)	(1,289)	(406.6)	(467.3)	(174.3)	(177.7)	(95.1)	-
신강성 광물자원 개발조사1차	838.7	255.6	351.3	119.3	112.5	-	-	-	-	-
	(1,048)	(316.3)	(437.1)	(154.8)	(139.8)	-	-	-	-	-
농산물도매 시장 건설 타당성조사	163.8	-	149.3	14.5	-	-	-	-	-	-
	(204.7)	-	(185.8)	(18.9)	-	-	-	-	-	-
북건성 광물자원 개발조사	743.2	-	279.1	357.2	106.9	-	-	-	-	-
	(943.3)	-	(347.3)	(463.2)	(132.8)	-	-	-	-	-
산서성 댐건설사업 타당성조사	804.1	-	197.1	502.9	104.1	-	-	-	-	-
	(1,026.8)	-	(245.3)	(652.1)	(129.4)	-	-	-	-	-
신강성 광물자원 개발조사2차	150.6	-	-	-	-	150.6	-	-	-	-
	(158.4)	-	-	-	-	(158.4)	-	-	-	-
미산-당비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320.4	-	-	-	3.7	293.8	22.9			-
	(329.8)	-	-	-	(4.6)	(308.9)	(16.3)			-
호남성 당관포지구 광물자원조사	539.9	-	-	-	-	-	221.0	211.4	107.5	-
	(430.8)	-	-	-	-	-	(158.0)	(177.7)	(95.1)	-

※ ()안의 사업건수는 당해연도 신규사업건수임.

연 번	사업명 (사업기간)	주 요 내 용 (목적 및 효과)	총사업비 백만원 (천불)	사업추진내역	수원국 담당기관 /용역업체
1	신강성 광물자원 개발조사 1차 (93.9-96.3)	-신강성 하미지역 구리,니 켈광상에 대한 부존량 확 인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협력 및 자원의교를 통한 광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839 (1,048)	-95.6.13~8.11 본조사	유색금색공 업총공사/ 대한광업 진흥공사
2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타당성조사 (94.7-95.6)	-농산물유통센터(도매시장) 의 시범적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 -중국 농산물 및 유통관련 정보수집	164 (205)	-95.4~6 본조사	중국국내무 역부과일채 소류유통개 발훈련원/ 농수산물 유통공사
3	북건성 광물자원 개발조사 (94.9-97.5)	-북건성 매선지역 연.아연 광상에 대한 부존량확인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협력을 통한 광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743 (943)	-95.9.25~96.4.24 본조사	유색금색공 업총공사/ 대한광업 진흥공사
4	산서성 댐건설 사업 타당성조사 (94.7-96.6)	-심각한 용수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산서성내 분하강 활용에 필요한 제반기술 검토 -아국의 댐건설분야 기술축 적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804 (1,027)	-94.3.20~4.2 사전조사 -94.5.4 용역계약체결 -94.6.20 MOU체결 -94.7.1~12.31 본조사1차 -95.1.1~12.31 본조사2차	수리부 산서성 수리청/ 한국수자원 공사
5	신강성 광물자원 개발조사2차 (96.8-98.4)	-신강성 하미, 향산지역의 티타늄 및 포열경지역의 동.금광상 탐사 -기술협력을 통한 광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151 (158)	-96.4.15~25 실시협의조사 -96.7.25 MOU 체결 -96.8.3 용역계약체결 -96.8.7~11.4 본조사1차 -97.8~10 본조사2차	대한광업 진흥공사
6	미산-당비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97.10-98.12)	-흑룡강성 석탄자원 수송을 위한 35.2Km 구간 철도건 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 획 수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국 기업 진출 활성화	320 (330)	-96.11.9~16 실시협의조사 -97.8.27 MOU 체결 -97.10.8 용역계약체결	교통개발 연구원
7	호남성 당관포 지구 광물자원 조사 (98.11-01.5)	-조사지역의 광상을 체계적 으로 탐사, 평가하여 합리 적인 광물자원 개발촉진 -기술협력을 통한 광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540 (431)	-98.7.29~8.6 실시협의조사 -98.10 구상서교환 -98.11.6 용역계약체결 -98.11~01.5 본조사	대한광업 진흥공사

사. 물자지원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 원 내 역	비 고
'94년	80.6(100.3)	컴퓨터60, 복사기15, 어학실습세트42좌석 등 14종	
'95년	174(225.7)	연변지역 의료기자재(구급차10대, 고속원심기7대, 만능수술대4대, 전기능마취기4대) / 컴퓨터3대, 엔진테스터기1대	
'96년	193.5(240.4)	사범대 교육장비 / 방송기자재	
'97년	72.0(75.7)	X-RAY기계1SET, 필름자동현상기1대	
'98년	139.6(99.8)	앰블란스2대, 심전도기, 초음파기, X-RAY기	
'99년	58.8(49.4)	사무소 소장 현지출장비지원(현금) / 겔로퍼 1대 및 부품 / 겔로퍼 1대 및 부품	
2000년	28.0(24.8)	'99 지원차량 사후관리(연안대학 차량기증식 출장) / 무쏘 1대	
2001년	30.3(23.5)	무쏘 1대	
2002년	200.8(106.5)	무쏘차량부품지원(사후관리) 미니버스 1대, 산타페 3대, 소나타 1대 컴퓨터 20대 등 12종	
계	977.7(1000.1)		

아. 긴급원조

단위: 백만원(천불)

년 도	지원규모	지 원 내 역	비 고
'91년	146.6(192.7)	홍수피해구호금	
'94년	80.4(100.0)	남부지역 홍수피해구호금	
'95년	76.6(99.4)	홍수피해구호금	
'96년	309.8(384.9)	운남성 지진피해구호물품 대금지출 홍수피해 구호금 운남성 지진피해 구호금지출	
'98년	64.8(46.3)	현금지원	
2003년	362.2(303.9)	SARS 피해구호금 (132,170,000원) SARS 퇴치관련 기자재 : 이동용 X-ray 2대, 인공호흡기, 앰블런스 2대, 트럭 1대 등	
계	1,040.4 (1,127.2)		

자. 프로젝트

단위: 백만원(천불)

사 업 명	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19)건	1(1)건	6(5)건	8(2)건	7(2)건	3(0)건	3(1)건	4(2)건	5(2)건	4(0)건	4(1)건
	21,783.7	261.1	1,217.1	1,231.2	1,758.3	603.1	4,970.5	6,015.7	1,518.6	2,059.1	2,148.9
	(19,837.6)	(324.9)	(1,578.5)	(1,529.9)	(1,848.7)	(431.1)	(4,178.7)	(5,320.8)	(1,176.5)	(1,645.7)	(1,802.9)
농업통계조사 지원1차 (94-96)	461.5 (578.1)	261.1 (324.9)	77.7 (100.7)	122.7 (152.5)	- -	- -	- -	- -	- -	- -	- -
금평현 소수직업훈련 학교지원사업 (95-96)	263.3 (341.2)	- -	262.8 (340.8)	- -	- -	0.5 (0.4)	- -	- -	- -	- -	- -
하얼빈 전산기술개발 훈련센터 (95-97)	673.5 (791.5)	- -	177.6 (230.4)	219.9 (273.2)	267.0 (280.7)	- -	3.9 (3.2)	- -	5.1 (4.0)	- -	- -
강소성 양주직업학교 (95)	154.8 (200.8)	- -	154.8 (200.8)	- -	- -	- -	- -	- -	- -	- -	- -
도문 제3소학교 건립(95)	358.3 (461)	- -	350.3 (454.3)	- -	- -	- -	7.1 (5.9)	0.9 (0.8)	- -	- -	- -
한·중·동양 의학연구센터 지원(95-97)	669.1 (777.7)	- -	193.9 (251.5)	148.2 (184.2)	317.9 (334.3)	- -	9.1 (7.7)	- -	- -	- -	- -
상해 한국어 훈련센터지원 사업(96-98)	676.9 (732.3)	- -	- -	173.5 (215.6)	466.3 (490.2)	37.1 (26.5)	- -	- -	- -	- -	- -
마울파현 모자보건 센터(96)	209.7 (260)	- -	- -	206.8 (257)	2.9 (3.0)	- -	- -	- -	- -	- -	- -
위해시 한중 언어센터(96)	153.6 (190.5)	- -	- -	151.6 (188.4)	2.0 (2.1)	- -	- -	- -	- -	- -	- -
흑룡강성 조선족사범 학교건립 (96-97)	490.2 (546.7)	- -	- -	163.7 (203.4)	326.5 (343.3)	- -	- -	- -	- -	- -	- -
천진 도시대기분진 연구지원사업 (96-97)	154.5 (171)	- -	- -	44.8 (55.6)	109.7 (115.4)	- -	- -	- -	- -	- -	- -
농업통계 조사2차 (97-99)	276.4 (236.5)	- -	- -	- -	77.8 (81.8)	96.7 (69.1)	101.9 (85.6)	- -	- -	- -	- -

사 업 명	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한.중직업 훈련협력사업 (97-00)	10,430.1 (8,970.6)	-	-	-	185.5 (195.1)	466.2 (333.3)	4,721.3 (3,969.3)	5,057.1 (4,472.9)	-	-	8.8 (7.4)
랑팡시 시범 농장지원사업 (99-01)	1,124.5 (959)	-	-	-	-	-	127.2 (107.0)	722.6 (639.2)	274.7 (212.8)	-	-
한.중 기생충감염 관리시범사업 (00-04)	789.5 (624.8)	-	-	-	-	-	-	120.4 (106.5)	669.1 (518.3)	1.4 (1.2)	168.2 (141.1)
농업통계조사 3차(00-02)	135.9 (111.9)	-	-	-	-	-	-	59.6 (52.7)	76.3 (59.2)	68.2 (54.5)	-
서부지역 조림사업 (01-05)	195.5 (155.5)	-	-	-	-	-	-	37.2 (32.9)	158.3 (122.6)	1,634.3 (1,306.2)	1,226.5 (1,029)
밀운저수지 보호림조성 사업(01-03)	351.4 (274)	-	-	-	-	-	-	16.3 (14.4)	335.1 (259.6)	355.2 (283.8)	312.7 (262.4)
황사공동 관측망구축 사업(03-05)	351.4 (274)	-	-	-	-	-	-	-	-	-	432.6 (363.0)
신규사업 발굴조사 등	6.7 (6)	-	-	-	2.6 (2.8)	2.5 (1.8)	-	1.6 (1.4)	-	-	-

차. NGO 지원

연도	지원액	단 체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95년	131.3(170.3)	대한적십자사	아.태지역 적십자 봉사요원 대회지원 -개도국 참가자 항공료 지원(15개국 26명)
		연세대 보건정책및 관리연구소	보건의료인 교육 및 훈련 -보건프로그램 및 교재개발로 보건분야 경험 기술전 수 및 보건사업 능력향상 -보건의료전문가 및 보건정책담당자를 초청, 각국의 문제점 도출 및 훈련프로그램 결정
		한국건강 관리협회	기생충 관리사업 -연수생초청(학술연수 10명, 보건관리자 연수 10명), 전문가파견(13명)
		한.중 문화협회	요녕성 단둥사범대학 한국어과 설립지원사업 -단둥사범대학과 연변예술대학에 한국어교수파견 및 도서,컴퓨터 장학금 기증
		연세대 도시교통학과	개도국 유학생 지원사업 -도시공학 전공 유학생지원
		한국어린이 육영회	연변 유아교육 지원사업(아동 교육환경개선) -교구지원, 유아교육요원 현지연수, 연변유아교육, 교 원 국내초청 및 견학교육 등

연도	지원액	단 체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96년	113.6(141.2)	한국어린이 육영회	연변 유아 교육사업 -중국 길림성 연변동포 아동의 교육환경개선 -유아교육용 교재7종,2,500권제공, 훈련교사등7 명파견, 유아교사344명현지연수
		한양대 사회봉사단	연변 봉사단 파견사업 -봉사단 8명 파견 및 교육실시, 컴퓨터 및 한 국어 교재지원
		한국건강 관리협회	중국3개성 기생충 관리사업 -기생충조사단 2회 파견, 보건관리자(10명)초 청연수
		한.중 문화협회	요녕성 단둥사범대학에 한국어과 설치지원 -한국어교수1명파견, 컴퓨터등 기자재 및 도서 제공, 교포학생 장학금 지원
		세계선린회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농촌개발사업 -중국 용정시 및 연길시에 소 72마리 제공, 장 향촌 회관 건립비지원
		연세대학 보건정책및 관리연구소	아시아국가 보건분야 정부관리 및 전문가초청 Workshop개최 -아시아 개도국 보건 의료인(정부공무원 및 보건 전문가) 교육, 훈련(5개도국 11명 참가)
'97년	106.6(112.1)	한국건강 관리협회	한.중 기생충 관리사업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구충제 및 기자 재 공여
		한국어린이 육영회	연변 유아 교육사업 -유아교육용 교재 및 교구 지원, 전문가 파견 을 통한 연변 유아교육 교원 현지연수
		한.중문화협회	요녕성 단둥사범대학에 한국어과 설치지원 -한국어교수 2명 파견, 장학금, 한중문화회지, 도서 및 기자재 공여
		연변조선족 기술대학 후원회	조선족 수질환경 개선사업 -연길 지역주민 식수공급 개선을 위한 수질환 경보호 및 식수원 개발지원 -수질검사 기자재 지원, 물 정제 시스템 구축, 양질의 약수 개발
'98년	46.2(33.0)	한,중문화협회	대중국 문화교류 및 교육사업 -중국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조선족2세에 대한 올바른 한국어교육 실시 -한국어교수파견1명, 중국어강좌반지원
		연변,나진과학 기술대후원회	연변조선족 수질환경 개선사업 -정수기 및 정수시스템개발, 관정추가설치, 개발약 수 및 음용수보급
		한국건강 관리협회	한.중 기생충 관리사업 -조사전문가파견4명, 검진전문가4명, 보건관리자초 청연수, 구충제및기자재지원

연도	지원액	단 체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99년	46.2(38.8)	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	연변조선족 수질환경 개선 -관정구축, 상수시설설치, 식용수보급, 수질검 사 적합판정, 폐용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한국건강 관리협회	한.중 기생충 관리사업 -검진전문가 파견, 검진기법 전수, 현지요원 국내연수,약품지원
2000년	72.1(63.7)	한국지역 사회복지회	중국 내몽고 극빈아동 보육센터 건립사업 -극빈아동 보육센터 건립 지원
		국제농업 개발원	여명농민대학 농업교육 훈련 지원사업 -중국한인교포 농업후계자 양성 -농업대학생 초청연수, 교수용 기숙사 건립, 실습용 기자재 공여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	중국 인구, 생식보건 기술전수 사업 -부녀자 건강검진, 사전조사, 사업담당자 초 청연수
2001년	110.0(85.2)	밝은사회국제 클럽한국본부	연변 농촌개발 지원 -한국식 새마을운동을 통한 자립터전 및 살 기 좋은 연변동포사회 건설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마을진입로 확장, 마을회관 건립)
		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	연변 수질개선 지원 -주민지역내 식수원 설치, 식수라인 동파방지 시설, 관정 1개지역 실시
		한국지역 사회복지회	극빈아동 보육센터 운영 -취약한 빈곤가정의 영.유아기 아동들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 제공 -아동보육 프로그램 실시, 기자재 및 교구교 재 지원, 교육훈련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	인구, 생식보건 기술전수 -지역주민의 인구 및 생식보건수준 향상 -모자보건사업 확대 및 검진기자재 지원, 청 소년 성교육, 초청연수
2002년	107.8(86.1)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	연변 조선족 인구/생식보건 기술원조사업 -모자보건사업 확대 및 검진기자재 지원, 학교 청소년 성교육사업, 관계요원 초청연수
		밝은사회국제 클럽한국본부	연변지역 농촌개발사업 -소득증대사업(오리구입 및 오리목장건설 영농기술교육), 생활환경개선사업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조선족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 및 현지수술 -심장병 무료검진 및 수술, 의료장비 및 수술 재료비 지원

연도	지원액	단 체 명	사업내용/지원내역
2003년	98.3(82.5)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	연변 조선족 인구/생식보건 기술원조 사업 -연변 조선족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의료기자재 지원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중국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 및 현지수술 -심장병 어린이 수술, 의료기술 전수를 통한 중국 내 의료환경 발전 유도 -심장병어린이 현지수술, 의료장비 및 의료 봉사단 파견
계	832(812.9)		

5. 중국의 경제발전예의 기여 및 반응

우리의 원조지원은 초기(국교수립시기인 1992년도 이후)에 경제사회시스템의 전환으로 우리의 축적된 노하우 등이 전달되어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유효히 작동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원조 초반기부터 중점지원대상국으로 분류하여 우리의 역량을 집중한 국가인 만큼 우리의 원조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별 특별 연수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센터 건립과 환경관련 프로젝트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질서예의 참여 및 경제시스템예의 도입 등에 크게 작용했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농업과 위생 및 환경분야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생식보건분야 등은 과거 우리가 겪었던 해방 후의 상황과 비슷하여 많은 이해를 중국측에서 했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NGO사업으로서 연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은 매우 유익한 프로젝트이었으며, 황사, 기생충, 조림, 보호림, 한국어 등의 분야는 양국간의 상호관계를 양호이 구축하여 선린관계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였음은 필지의 사실이다. 또한, 개발조

사사업으로서 신강성과 복건성 등의 광물자원탐사 및 미산-당비간 철도건설타당성조사사업 등은 매우 뜻있는 사업이었다. 각 프로그램별 사업규모('91-'03)를 보면, 연수생초청사업이 총 1,158명(4,049백만원)이며, 전문가파견은 총 58명(605백만원)이며, 해외봉사단원파견은 총 117명(1,838백만원)이며,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총 67명(653백만원)이며, 개발조사사업은 7건(3,560백만원)이며, 물자지원은 977백만원이며, 긴급원 1,040백만원이다. 프로젝트사업은 1994년부터 실시되어 총 19건(21,783백만원)이다. 그리고 NGO사업은 832백만원이 공여되었다.

중국에는 KOICA가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원조사업이 이루어져 시너지효과를 거양하였고, 아울러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었다. 2004년도 금년도 대 중국 지원규모는 4,300천 달러로서 공여국 122개국 중 제 5위의 원조규모이다.

각각의 사업이 종료하면서 각종 보도나 매스컴의 반응은 우리의 원조추진을 양국간의 호혜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총 규모는 타 선진원조기관의 금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나, 우리 나름대로의 개발연대시기에 습득한 축적된 노하우 및 기술 지식을 신의로서 전수함으로써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즉, 간략히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데, 첫째는 빈곤층이 많은 중국에 농업과 보건분야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기본욕구(BHN)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경제분야의 공무원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연수시킴으로써 행정경험과 우리의 앞선 경제력을 실감케 하였다는 점이다. 기타 사업들은 모두 중국이 개혁과 개방의 모토하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의 초석을 놓은 데 크게 기여하였다.

6. 향후 바람직한 원조형태

원조의 기본형태는 일단은 요청주의에 입각해서 원조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 평균 9.4%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성장예의 혜택은 극히 일부분의 소수 상위계층만이 향유할 뿐이며, 대부분의 인민은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계층간의 부의 편차 그리고 도시와 지방 및 내륙과 해안(동과 서)에 따라 삶의 질이 판이하므로 이러한 일상 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초의료·보건분야부터 환경 분야까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평균치가 이루어져 부의 집중과 삶의 알맞은 환경을 공유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 원조형태를 총망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연도별로 요청에 따라 필수지원 원조형태를 결정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Grass roots Level 의 원조를 강화하면서 프로젝트나 앞서 언급한 보건의료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단, 중국이 인구나 국토면적이 상당한 만큼 지역(省)의 특성에 맞는 원조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7. 이상적 중국 지원모델 정립

이상적인 중국에 대한 원조모델을 정립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국가라기에는 국토와 인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개 성(省)이나 도시 즉, 지역별로 원조형태를 달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인민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한 후, Priorities를 결정하여 Package System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인민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성 정부 차원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어느 형태이든 간에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면 장구한 세월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매우 필요한 행위일 것이다.

예로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선진원조기관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원조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공여국 별로 임무를 부여(Work Sharing)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그 활동이 두드러진 NGO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이들 NGOs의 역할은 국가기관이라는 공적 원조기관의 참여가 일손이나 방법론 때문에 하기 쉽지 않은 분야 및 지역은 중견 NGOs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측과 바람직한 원조모델 수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여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원조역사가 약 10년 정도 지난 만큼 이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원조모델 정립을 하는 것이 시간과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2006년 DAC에의 가입 이후에 Peer Review 등으로 엄격한 사업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KOICA의 대 중국 모델을 정립할 필요는 충분히 당위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거나 정책대화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8. 향후 원조 지속 추진시 고려사항

현재와 같은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에게 시한부로 원조를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측이 요청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조를 공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제상품시장에서 저임금의 풍부한 인력과 중견기술 개발로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지원할 당위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여하튼, 만약 일정기간 원조를 지속해야 한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원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과 관련하여 황사와 산성비문제 그리고 비산립화 문제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 트리는 주요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족문제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는 심각하다. 그렇다고 디아스포라(Diaspora)형식으로 그 쪽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조선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야 한다.

셋째, 지금 중국은 중앙아시아지역을 주요지역을 분류하여 접근하고 있다.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 바로 그 협의체인 데, 우리의 이익과도 상충된다. 동 협의체 가입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외교방향을 주지시켜 공동의 이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대 중국대응이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난제들이 있다. 역사 문제나 영토문제 등 선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널 구축과 협의체 구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우리와 일본 JICA간의 중국사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책대화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VI. 중국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자유지역(시장) 구성

1. 추진 개요 및 내용

동아시아지역에서 ASEAN은 다자간 협력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1967년 설립된 ASEAN은 동아시아지역 국가간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 정부간 기구이다. 이는 동남아시아지역 10개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인종 및 언어 그리고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역내라는 지리적인 이유로 하여 동일한 처지인 저소득 발전하지 못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거듭나고자 동 기구를 창설한 것이다. 아울러, 동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강대국인 중국은 그들의 결속을 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ASEAN 초기 회원국 6개국은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15년 이내에 창설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그 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2002년 1월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아세안 자유무역의 96%를 차지하는 6개국은 관세율을 5%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였고 뒤에 가입한 4개국은 2010년까지 이 지역의 모든 관세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발언권 강화와 2002년의 WTO 가입으로 인한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단을 강구하기로 한다.

특히 ASEAN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AFTA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출선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던 ASEAN으로서 는 결국은 WTO에 가입하여 시장개방이 진전될 중국밖에는 수출시장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국과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설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ASEAN이 결합하면 17억 인구의 시장이 형성되어 EU나 NAFTA보다도 커다란 규모의 경제협력체가 될 것이다. 결국은 중국은 2001년 11월 ASEAN+3회의에서

ASEAN과 10년 이내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것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2. 추진 효과

AFTA 창설 추진효과로는 역내로는 아세안과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부가가치 창출 및 무역의 증대로 인한 수지 증대로 후생효과가 커질 것이고, 보다 싼 가격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각국의 제품을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경제에도 신흥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아시아시장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은 세계경제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와 세계국부의 증대로 이어져 아시아권이 좋은 투자자금 유입처로 선택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3. 우리에의 영향 및 파급효과 - 우리의 대응 및 전략

이와 같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면 우리는 과거 향유하였던 아시아 수출시장을 잃게 되어,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고, 이에 따라 신규로 투자 및 수출선을 개척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동 자유무역지대에 우리도 가입하거나 아니면 ASEAN 국가와 양자간, 다자간 FTA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성공단이나 북한의 경제적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과 일본 등과의 FTA 형성 및 동북아공동체를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시기에 중일간의 경제기류를 유의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경제적 이익면을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통일문제도 적극 이해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VII.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추진방안

1.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적 원조철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이다.

무릇 외교가 국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전개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쳐 놓고서라도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는 선택지가 별로 많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지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론을 알고 있다. 바로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인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 12개 국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국별전략 : Country Programming)을 통하여 우리의 원조를 공적 개념과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

우선은 우리의 원조개념을 재정립하여 지역적 차원의 **상호협력과 공존**이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개발 발전시켜 적극 홍보(Propaganda)해야만 한다.

철저한 과학적 접근전략 하에 우리의 국력의 이미지 제고와 **선의의 협력의 대상**이라는 무한한 이상을 펼쳐야 한다.

국별로 바람직한 맞춤형 원조전략 하에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전파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여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에는 온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지지는 필수적이다.

우리의 인본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정이 넘치는 따뜻한 이웃나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나누는 인류애를 보이는 원조철학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

2. 원조이념 및 공여형태의 고려

우선은 앞서 언급한 제 원조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와 그리고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을 전수한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원조행위에 임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정체성은 확고한 상호존중과 공존과 협력의 시대정신의 구현이다.

둘째, 우리의 지식과 노하우 및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원조방법을 택한다. 국가별로 알맞은 해당되는 원조방법과 전수방법의 고안과 선한 개념의 국가이미지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을 피하고 원조를 이러한 대립과 갈등해소를 위한 선한 자금으로 사용토록 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국가는 원조대상국에서 제외토록 한다.

넷째, 선진원조기관과 협력하여 원조를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토록 한다.

다섯째, 민간부문과 공적부문의 참여로 구성되는 범국민적 원조협의기구를 구성한다.

여섯째, 각종 국제협력법의 제정 및 국제협력의 날 등 원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정비를 조속히 이룩한다.

일곱째, 어린 나이로부터 국제협력이 상호공존의 길임을 익히도록 교육한다.

3. 바람직한 원조공여 방법 및 모델 정립

바람직한 원조공여 방법 및 모델은 국제협력 추진에 관한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각 국민주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도출하여 실시토록 한다. 전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제협력 그리고 우리가 선한 대상의 신뢰할 수 있는 공존을 위한 따뜻한 이웃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원조철학 파급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과 각 행위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21세기 모델이름은 상호협력과 공존 그리고 우리나라가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

서의 선의의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름의 모델이다.

VIII. 결론- 바람직한 21세기 상호공존의 원조를 추구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의 흐름은 쉴 틈 없이 바빠 흐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상호협력과 공존의 원조철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부방법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부터 상호 돕는 정신을 몸에 익혀야 한다. 계층과 인종과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하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 써야 한다.

21세기 변화무쌍한 시기에 총칼 없는 전쟁이라는 경제전쟁터에서 우리는 이웃에 따뜻한 선한 존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원조공여 Road Map을 우선 작성해야만 한다. 이에는 우리의 세심한 주위가 필요한 데, 우리의 추진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개도국의 요청이 한데 어우러져 모두 포용되는 통합된 원조개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의 기본 원칙은 상호공존과 협력이다. 모든 제도와 인적자원과 시스템이 구비되고 이를 수행하는 수원국과 우리의 이념이 하나 될 때, 우리의 원조이념은 구현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그 만큼 강화될 것이다.

동아시아지역과 중국의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논지가 시작된 본 논고는 지엽적이지 않은 포괄개념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동아시아지역과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구성은 우리에게서 어려움이자 우리의 원조전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는 우리의 원조의 기본정신인 상호협력과 공존에 입각하여 실시되는 우리의 원조이념을 구현

하기 위한 21세기 신 원조전략 수립에 진력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혁신적인 국별·지역별 원조전략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이익과 수원국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우리와의 상호협력이 조성되어 이로서 상호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신 개념의 원조철학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와 수원국 모두에게 서로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상대국에의 따뜻한 이웃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

연구자료 2004-2-64

KOICA 국제 재난구호시스템 구축방안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발 행 일 2004년 9월
저 자 이 용 덕
발 행 인 김 석 현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110-782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화 02-740-5114 팩스 02-744-1092
Website : www.koica.go.kr
인 쇄 광복문화사
전화 02-2272-5961

© KOICA 2004